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 50+ 세대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Aged:
Focusing on Social Networking Activities of the 50+ Generation

울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오 현 석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 50+ 세대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도 수 관

이 논문을 행정학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오 현 석

오현석의 행정학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재 흥



심사위원 안 성 민



심사위원 정 기 훈



심사위원 박 기 목



심사위원 도 수 관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2년 8월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50+세대에 해당하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 연간 개인 총소득, 경제적 만족도와 같은 세 가지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7차년도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50세 이상 응답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분석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률이 높고, 연간 개인 총소득도 증가하며, 주관적 측면에서 준·고령자의 경제적 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성별 변수의 계수값은 종속변수가 경제활동 참여 여부인 경우와 연간 개인 총소득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이 도출되었지만, 종속변수가 경제적 만족도인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계수값이 도출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경우, 교육수준의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지니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계수값이 작아지는데 비해, 연간 개인 총소득과 경제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나타냄은 물론 교육수준 증가에 따라 계수값이 커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의 경우

‘직업의 질’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지 또는 하지 않는지의 선택 문제인 반면, 연간 개인 총소득과 경제적 만족도의 경우 현실과 상황을 반영한 결과 때문일 것으로 이해하였다.

넷째, 결혼 여부와 배우자 취업 변수의 경우에도 역시 종속변수에 따라 추정계수값이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연간 개인 총소득 변수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결혼 여부와 배우자 취업 변수의 추정계수값은 각각 음(-)의 값이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응답결과가 과다 대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여 추정된 분석결과에서 결혼 변수의 추정계수값은 남성의 경우 유의미한 양(+)의 값을, 여성의 경우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각각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준·고령자의 경제활동(근로자, 자영업자), 연간 개인 총소득, 경제적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준·고령자들에게 사회 네트워크 활동 기회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을 경제활동 여부(근로자, 자영업자), 연간 개인 총소득, 경제적 만족도로 구분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을 단순히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로만 측정하지 않고 그러한 경제활동의 결과로 객관적 측면에서 소득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주관적 측면에서 경제적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준·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객관적인 측면에서 준·고령자의 총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만족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향후 정부의 준·고령자 지원정책 방향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의 관계 분석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령화 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분석 모형과 분석결과 제시하였기 때문에 향후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연구에 필요한 분석방법론적 다양화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준·고령자, 사회 네트워크 활동, 경제활동, 50+세대

〈제 목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1
1. 문제제기	1
2. 연구 목적	6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범위, 연구방법	8
1. 연구내용	8
2. 연구범위	9
3. 연구방법	9
제2장 이론적 논의	11
제1절 인구고령화에 따른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11
1. 준·고령자의 개념	11
2. 인구고령화에 따른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13
제2절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의 관계	18
1.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18
2.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의 관계	20
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에서의 연구가설	24
제3장 한국의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과 지원정책	27
제1절 한국의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과 지원정책	27
1. 한국의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27
2. 한국의 준·고령자 경제활동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	34
제2절 지방자치단체별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42
1. 서울특별시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42
2. 부산광역시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45
3. 대구광역시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49
4. 인천광역시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52

5. 광주광역시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54
6. 대전광역시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56
7. 울산광역시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58
8. 세종특별자치시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61
9. 경기도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62
10. 강원도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64
11. 충청북도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67
12. 충청남도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69
13. 전라북도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71
14. 전라남도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73
15. 경상북도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76
16. 경상남도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78
17. 제주특별자치도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82
18. 지역별 50세 이상 준·고령자 취업자수	84
제4장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	87
제1절 분석 자료와 변수	87
1. 분석 자료	87
2. 변수 정의	90
제2절 분석방법	93
1. 경제활동 여부에 관한 분석모형	93
2. 연간 개인 총소득과 경제적 만족도에 관한 분석모형	94
제5장 분석결과와 논의	97
제1절 기술통계분석	97
1. 인적 특성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97
2. 건강 관련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108
3. 사회 네트워크 활동 관련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111

4. 경제활동 관련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116
제2절 경제활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20
1.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	120
2. 경제활동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21
3. 연간 개인 총소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31
4.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45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5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55
제2절 연구결과의 함의	159
제3절 연구의 한계	161
<참고문헌>	163

〈표 차례〉

〈표 2-1-1〉 우리나라 법령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고령자 개념 정의	12
〈표 3-1-1〉 한국의 준·고령자 경제활동 상태: 2013~2021년	28
〈표 3-1-2〉 한국의 55세~79세까지 산업별 취업자 분포	29
〈표 3-1-3〉 한국의 55세~79세까지 직업별 취업자 분포	32
〈표 3-1-4〉 보건복지부 노인공익활동사업	35
〈표 3-1-5〉 보건복지부 시장형사업단(공동작업·제조판매형)	36
〈표 3-1-6〉 시니어클럽 사업연혁	37
〈표 3-1-7〉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39
〈표 3-1-8〉 고용노동부 고용연장지원금사업	40
〈표 3-1-9〉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지원사업	41
〈표 3-2-1〉 서울특별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43
〈표 3-2-2〉 서울특별시 준·고령자 재취업 지원정책	44
〈표 3-2-3〉 부산광역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47
〈표 3-2-4〉 부산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48
〈표 3-2-5〉 대구광역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50
〈표 3-2-6〉 대구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51
〈표 3-2-7〉 인천광역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53
〈표 3-2-8〉 인천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정책	54
〈표 3-2-9〉 광주광역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55
〈표 3-2-10〉 광주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56
〈표 3-2-11〉 대전광역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57
〈표 3-2-12〉 대전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58
〈표 3-2-13〉 울산광역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59
〈표 3-2-14〉 울산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60
〈표 3-2-15〉 세종특별자치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16~2018년	61
〈표 3-2-16〉 세종특별자치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62

<표 3-2-17> 경기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63
<표 3-2-18> 경기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64
<표 3-2-19> 강원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66
<표 3-2-20> 강원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67
<표 3-2-21> 충청북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68
<표 3-2-22> 충청북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69
<표 3-2-23> 충청남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70
<표 3-2-24> 충청남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71
<표 3-2-25> 전라북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72
<표 3-2-26> 전라북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73
<표 3-2-27> 전라남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74
<표 3-2-28> 전라남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75
<표 3-2-29> 경상북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77
<표 3-2-30> 경상북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78
<표 3-2-31> 경상남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79
<표 3-2-32> 경상남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81
<표 3-2-33> 제주특별자치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83
<표 3-2-34> 제주특별자치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84
<표 3-2-35> 지역별 50세 이상 준·고령자 취업자수: 2019년 기준	85
<표 4-1-1> 변수 정의	92
<표 5-1-1> 데이터의 연차별 측정결과	97
<표 5-1-2> 응답자의 성별	99
<표 5-1-3> 응답자의 평균 연령	100
<표 5-1-4> 응답자의 연령대	101
<표 5-1-5> 응답자의 거주지역	103
<표 5-1-6> 응답자의 교육수준	104
<표 5-1-7> 응답자의 가구주 여부	105
<표 5-1-8> 배우자의 고용상태	106

<표 5-1-9> 응답자의 현재 생존 자녀 수	107
<표 5-1-10> 응답자 건강상태	108
<표 5-1-11> 연령대별 건강상태 인식	109
<표 5-1-12> 응답자 건강상태: 장애판정 여부 및 만성질환 여부	111
<표 5-1-13> 응답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112
<표 5-1-14> 응답자의 성별과 사회 네트워크 활동 교차분석	113
<표 5-1-15> 응답자의 연령대와 사회 네트워크 활동 교차분석	115
<표 5-1-16> 경제활동 참여 여부	116
<표 5-1-17> 응답자의 성별과 경제활동 참여 여부 간 교차분석 결과	117
<표 5-1-18>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여부	118
<표 5-1-19> 응답자의 연간 개인 총소득	119
<표 5-1-20> 응답자의 경제적 만족도	119
<표 5-2-1> 기술통계량	120
<표 5-2-2>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22
<표 5-2-3>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령대별 ..	128
<표 5-2-4>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패널프로빗 및 패널로짓 분석 결과	129
<표 5-2-5> 연간 개인 총소득(원래의 측정값)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 결과: pooled OLS	133
<표 5-2-6> 연간 개인 총소득(자연로그 값)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 결과: pooled OLS	137
<표 5-2-7> 연간 개인 총소득(원래의 측정값)에 대한 Random Effect 모델 분석결과	139
<표 5-2-8> 연간 개인 총소득(자연로그 값)에 대한 Random Effect 모델 분석결과	141
<표 5-2-9> 연간 개인 총소득(원래의 측정값)에 대한 Fixed Effect 모델 분석결과	143
<표 5-2-10> 연간 개인 총소득(자연로그 값)에 대한 Fixed Effect 모델 분석결과	144
<표 5-2-11>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 결과: pooled OLS	146
<표 5-2-12>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 결과: 연령대별	149
<표 5-2-13>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Random Effect 모델 분석결과	151
<표 5-2-14>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Fixed Effect 모델 분석결과	152
<표 6-1-1>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분석결과 요약	156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1. 문제제기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는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UN 세계인구 추계¹⁾에 따르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영국 19.4%, 스위스 23.4%, 일본 27.3%, 미국 19.8%, 스웨덴 22.2%, 덴마크 23.2%, 독일 23.3%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조금 낮은 편이지만 노인인구의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전환 중이다.

국가별 인구 고령화의 속도를 살펴보면, 선진국들 중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1970년 고령화 사회에서 1994년 고령사회로 들어설 때까지 24년이 소요되었으며,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프랑스는 115년이 소요되었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로 약 74만 명 정도였으나 200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7.3%로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201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662만 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에 육박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15%를, 2025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0).

한국은 이처럼 2000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국에

1) UN 세계인구 추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ynamics에서 제공하는 World Population Prospects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서 고령화 속도가 이처럼 빨랐던 이유를 전문가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먼저, 산업화 시대의 발전단계에서 산아 제한 및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출생률은 저하되었고, 동시에 보건위생과 의학의 발달로 사망률도 저하되어 ‘저출산, 저사망’의 인구패턴에 기인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의 출산율 하락이 고령화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출산율 하락의 경우, 단순히 기혼여성들의 출산 자녀 수 감소와는 달리 혼인 연령 상승 및 비혼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고학력화, 육아 비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오영희 외, 2007).

한국에서 빠른 고령화 속도의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평균수명 연장을 들 수 있다. UN 보고서(2015)에 의하면, 한 국가의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4% 미만인 나라는 ‘인구 유년국(young population)’, 4~7%인 나라는 ‘인구 성년국(youthful population)’, 7% 이상인 나라는 ‘인구 노년국(aged population)’으로 칭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2020)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1960년 52.4세에서 1980년 66.1세, 1990년 71.6세, 2000년 76.4세, 2010년 78.8세, 2020년 80.7세 그리고 2030년에는 83.2세로 증가하여 향후 인생 100년의 장수사회(long lived society)가 도래 될 예정이다.

한국의 고령자 인구 비율이 이미 2017년에 14.2%를 기록하여 UN에서 정한 고령사회 기준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한국은 2021년에 전체 인구 5,182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16.5%인 854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50년(1,900만 8천명)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이후 2070년(약 1828만 명)까지는 감소세를 보일 전망인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16.5%, 2025년 20.3%, 2050년 39.8%, 2070년 48.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1). 특히, 1950년대 후반기부터 1970년대 전반 기까지 출생한 50~60대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거 퇴직을 하는 2020년에서 2030년 기간 동안 인구고령화 현상은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 인구 증가는 결과적으로 다가올 미래에 급증하는 노년인구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나 지원정책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도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과 제도들을 다양하게 디자인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부양을 담당해야 하는 현재의 젊은 세대들에게 직·간접적인 부담을 안겨주게 되고, 정부도 현 세대의 직접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복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은 정년연장을 통한 고용보장, 연금제도 개선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황정덕, 2016; 서명호,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 파급효과에는 인구고령화 문제를 먼저 경험한 다른 나라들이 겪어 왔던 노동력의 질적 하락과 노동공급의 감소, 투자와 저축 및 소비의 위축 그리고 이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와 경제 활력 저하 문제 등이 포함된다.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최근까지의 적극적인 노력은 기본적으로 고령사회에 노출된 한국 고령인구의 경제적 빈곤에 기인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후를 위한 연금이나 사회적 안전망이 이들 고령인구에게는 미처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장 은퇴 이후 필요한 생활비 충당을 위한 일자리 제공도 전 세계적인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

다. 능력과 의욕이 있어도 고령자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은퇴 이후 노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고령자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더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평균 퇴직 연령인 60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남성은 30년 이상, 여성은 35년 이상의 고령기를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퇴직 이후 고령자들에게 적어도 30~35년 동안의 경제적 수입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불안한 은퇴 후 고령 생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고령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개인적 측면에서는 건강관리, 여가활동, 소득보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적 측면에서는 은퇴 및 퇴직 후 노인부양비 증가, 노인빈곤에 따른 소비와 저축의 감소 등의 문제를 시대에 맞게 다양하고 실용적인 고령화 정책 수립을 통해 대응한다면, 현재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은 생활욕구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을 통해 새로운 수요창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새로운 ‘고령화 시대’로 발전할 수 있는 동인이 될 수도 있다(서명호, 2019).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인적 대응이나 국가적 대응이 미흡하여 고령자 빈곤이나 삶의 질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자 빈곤 문제와 삶의 질 하락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는 고령자의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여 어느 연령층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할 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부터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자,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에서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의 경우 준고령자, 55세 이상인자는 고령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고령자를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령자 통계에서는 준·고령자를 50~64세, 고령자는 65세 이상인 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 이외에 고령자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서미경 외(2012)는 중고령층을 55~79세 이하의 한 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나혜숙(2012)은 40~60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중·고령층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각종 고령자 관련 법령이나 선행연구들에서 고령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고령자 관련 정부정책들의 성과도 평가하기 힘들고, 고령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산업사회의 영향으로 노동공급이 가능한 노령선의 기준이 65세로 규정되면서 생산가능연령 기준에서 제외되기 시작하는 65세 이상부터 고령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등장하면서 연소 노인(young-old)에 해당하는 50대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즉, 경제활동의 의지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지원정책의 대상에서 50대가 배제되어서는 고령자 빈곤 문제 완화와 삶의 질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으면서 50세 이상의 준·고령자 개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해 왔다. 뿐만 아니라 ‘50+ 세대’라는 신개념이 등장하면서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오늘날 이들 세대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양한 지원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이를 통한 소득 증대 그리고 더 나아가 빈곤 문제 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정책의 성과는 여전히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 목적

최근까지 정부는 준·고령자들의 고용 확대와 소득 증대를 위해 단기 일자리 제공 및 고용률 제고, 정년 연장을 통한 일시적 고용 유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 등을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준·고령자의 고용 확대나 빈곤 문제 완화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황남희, 2016; 김승연 외, 2018; 조보배·최요한, 2018; 도수관·박기묵, 2020). 그러나 이와 같은 일시적이고 직접적인 준·고령자 지원정책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오늘날과 같은 지식·지능정보화 사회에서 준·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정보 교환 그리고 보다 능동적이고 준·고령자 주도적인 방식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와 노후 빈곤 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Lamura and Principi, 2019; 도수관·박기묵, 2020). 한국의 경우에도 그러한 사회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준·고령자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함으로써 준·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은 지식·지능정보사회에서 준·고령자들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준·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이를 통한 소득 증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자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고령자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은 고령자 취업 활성화, 고령자 취업 요구 조사 및 취업 실태, 재취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그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도수관·박기묵(2020)의 연구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고령자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문제 제기한 준·고령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경제활동 참여와 소득 증대 그리고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50+ 세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준·고령자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뒤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자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식·지능정보사회에서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그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이를 통한 소득 증대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적 만족도 제고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범위,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주로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리한 뒤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니는 의미와 특징들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분석틀을 구성한다.

셋째,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과 지원정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들을 정리한 뒤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실증분석에 활용되는 각 변수들에 대한 정의와 측정값에 대해 기술한다.

다섯째,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양한 분석모형에 기초한 분석결과들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 OLS 회귀분석, 패널회귀분석 결과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주제는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의 관계를 50+ 세대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와 관련 자료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1~7차년도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50세 이상 응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50세 이상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공간적 범위로는 우리나라 전체 특별·광역시·도의 준·고령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로는 2년 단위의 총 7차에 걸친 고령화 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2006년부터 2018년까지로 설정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준·고령자 즉, 50+ 세대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그들의 경제활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지식지능정보사회에서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소득 증대 그리고 주관적인 경제적 만족도 제고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문헌연구와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연구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채택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준·고령자의 개념적 정의와 그들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그리고 경제활동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이론적 토

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과 정부지원정책 등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개별 광역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다양한 보고서 및 현황자료, 연구논문, 내부 자료들을 활용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1~7차년도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50세 이상 응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50세 이상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의 관계를 분석하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 pooled OLS 회귀분석모형, 패널회귀분석모형(Random Effect and Fixed Effect Model) 등 다양한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따라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이 또 하나의 분석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던 경제활동 여부 변수는 개인의 총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일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 변수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분리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인구고령화에 따른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1. 준·고령자의 개념

고령자의 사전적 의미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는데, 생물학적 차원에서 노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인간을 사회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물리적으로 측정되는 달력상의 나이, 즉 역연령(chronological age)에 따라 고령자를 정의하기도 하지만 노화의 시기는 인간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라는 용어는 빈번하게 사용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간을 고령자로 분류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현재까지 고령자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양혜진,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1년 국제노년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와 1960년 L. Z. Breen이 제시한 고령자에 대한 정의는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령자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1951년 국제노년학회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정의를 노화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체적·심리적·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복합적인 형태로 겪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Breen(1960)은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노인을 생리적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퇴화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심리적으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장인협·최성재, 1993 재인용).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연령을 중심으로 고령자 지원정책이 대부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령이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고령자 개념이 대체로 연령을 중심으로 정의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 <표 2-1-1>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법령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고령자 개념을 연령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2-1-1> 우리나라 법령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고령자 개념 정의

법령 및 선행연구	고령자의 개념 정의
국민연금법	60세부터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 분류
노인복지법	65세 이상인자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50 이상 55세 미만인자의 경우 준고령자, 55세 이상인자는 고령자로 각각 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5세 이상인자
고령자통계	준고령자를 50~64세, 고령자는 65세 이상인자로 각각 규정
김학주·우경숙(2004)	45~54세 이하를 중령층, 55~64세 이하 고령층으로 구분하여 중·고령자로 지칭
서미경 외(2012)	중고령층을 55~79세 이하의 한 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
나혜숙(2012)	40세 이상 60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중·고령층의 범위에 포함
Carey(2003), 양혜진(2016)	55~65세까지의 사람을 연소노인(young-old), 65~74세까지의 사람을 중고령 노인(middle-ml), 75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노인(old-old)으로 규정
이윤경 외(2020)	‘노인실태조사’ 에서 고령자를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

<표 2-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종 고령자 관련 법령이나 선행연구들에서 고령자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고, 특히 산업사회의 영향으로 노동공급이 가능한 노령선의 기준이 65세로 규정되면서 생산가능연령 기준에서 제외되기 시작하는 65세 이상부터 고령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²⁾ 그런데, 이처럼 65세 이상부터 고령자로 간주하게

되면 연소 노인(young-old)에 해당하는 50대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등장하면서 50세 이상에서 고령자 연령 이하의 준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의지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지원정책의 대상에서 50대가 배제되어서는 고령자 빈곤 문제 완화와 삶의 질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으면서 50세 이상의 준고령자와 고령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더욱 증가해 왔으며, 이 두 개의 연령층을 하나로 통합하여 ‘준·고령자’로 개념화한 ‘50+ 세대’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고령자 또는 노인이라는 계층의 경제활동 및 빈곤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노화에 따른 인간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50+ 세대에 해당하는 준·고령자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이 되는 50세 이상의 연령자를 ‘준·고령자’로 정의한다.

2. 인구고령화에 따른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인구고령화 현상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인구고령화 현상에 기인한 문제점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인구고령화는 노동력 인구 규모와 구성의 변화, 전체 사회의 저축률 감소, 고령자의 건강과 생계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의 증가 및 이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증대 등을 초래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부정

2) OECD(2006)에 의하면, 고령자에 대한 국제적 규정도 각국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노동력의 생산성 하락, 투자하락, 세금과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는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김영철, 2018).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과 절대 규모의 감소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가능인구의 연령별 구성의 변화이다. 먼저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규모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의 변화를 초래한다. 최근 통계청(2019)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54.9%로 선진국(61.3%)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노년인구가 증가하는 한편, 유년인구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보다 더 먼저 다가오는 문제는 생산가능인구의 연령구성의 변화인데, 2020년에 50세~64세 인구는 33%에 달했다.

다음으로, 인구고령화의 진전은 통상 근로계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비근로계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계층은 소득을 창출하고 저축을 하는 인구집단인 반면, 비근로계층은 기존의 저축을 이용하여 현재의 소비를 충당하는 집단이다(이혜훈, 2002). 고령화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총저축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경우도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총저축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즉 고령화가 진전되면 총저축은 감소할 것이고, 총저축의 감소는 가용자금의 축소를 통해 투자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이혜훈, 2002).

또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연금재정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재정 지출은 보험료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입기간과 가입자의 생

애소득에도 영향을 받지만 수급자의 수와 수급기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김영철, 2018).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수급기간의 장기화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수급자의 증가는 연금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구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연금재정은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구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1인당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 또한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OECD(2006)에 의하면, 선진국의 경우 노인인구 1인당 진료비는 비노인인구 1인당 진료비의 3~4 배에 달한다. 한국의 경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령별 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구고령화가 진전되면 국민의료비도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이혜훈, 2002).

이와 같이 인구고령화 현상이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그 결과들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기인한 고령층의 빈곤과 소외문제는 다가올 노년의 삶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준·고령자들에게는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다양한 지원기관들의 노력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성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인구고령화에 따른 준·고령자들의 빈곤과 소외문제는 왜 등장하게 될까? 이에 대한 대답은 사회의 근대화·산업화 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 한 사회의 근대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체로 고령층은 주요한 사회활동의 영역에서 배제되고, 사회적 지위가 저하되며, 역할이 상실되게 된다(Cowgill & Holmes, 1972). 그리고 현대화의 주요 현상들인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전, 생산체계의 변화 및 생산기술의 발전, 교육의 대중화, 도시

화 등이 원인이 되어 다양한 고령자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 문제는 각 사회의 현대화 속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Cowgill & Holmes, 1972). 이처럼 근대의 산업문명은 본질적으로 고령층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령자 빈곤과 소외 문제가 산업문명의 근원적인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20세기 복지국가 발달의 전제가 되었다. 하지만 대규모의 고령층을 집단적인 의존 및 소외 계층으로 간주하여 각 사회의 생산연령층이 전적으로 부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따라서 고령세대의 대규모화는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이혜경, 2002).

한편, 사회가 근대화·산업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해체과정을 겪었고, 새로운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편의주의 등의 가치는 고령층의 권위와 기존의 사회적 위치를 하락시켰다. 이러한 가치관은 고령자의 경제적 상황은 물론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 상실과 소외현상을 초래하였고, 경제적 부양문제 등 고령인구와 관련된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사회가 근대화·산업화될수록 고령층의 지위는 낮아지고 사회의 주요 활동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Gutheil, 1994). 즉, 사회의 근대화·산업화는 고령자 빈곤과 소외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질적 하락 문제를 불가피하게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소득 보전 또는 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득 구성을 살펴보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근로소득 및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사적이전(private transfer)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적이전이나 기업연금 등과 같은 제도화된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의한 소득 비중은 매우 낮은 특징을 갖고 있다(김수완 외,

2005). 따라서,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사적이전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고령층은 결국 근로를 통하여 생계비를 부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실제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

김순자(2011)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에서 한국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인일자리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한다. 일할 능력이 있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예비 고령자는 계속 생길 것이며, 그들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소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박제규 외, 2011). 정부도 준·고령자 인력 활용을 국가발전의 중요 과제로 간주하고, 정책을 장기적 안목과 시각에 기초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의 의존적 존재가 아닌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준·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양한 지원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이를 통한 소득 증대 그리고 더 나아가 빈곤 문제 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정책의 성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이를 통한 소득 증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경제적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특히, 오늘날과 같은 지식·지능정보사회에서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에는 다음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제고요인을 검토한 뒤 오늘날과 같은 지식·지능정보사회에서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그들의 경제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제2절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의 관계

1.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인간은 출생과 함께 가족 및 친지와 관계를 시작으로 죽는 순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혈연관계 및 지연, 학연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 속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살아간다. 때로는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유대관계가 비교적 약하고 느슨하게 형성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 속에서 형성한 사회 네트워크 관계는 그 대상의 특성과 관계의 목적에 따라 네트워크 활동의 정도와 관계망의 구조·밀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그러한 네트워크 혹은 사회관계망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비록 사회관계망의 형태와 구조, 밀도 등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의 유형에는 직접적이고 강한 관계망(strong tie)과 단순하고 약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느슨한 관계망(weak tie)이 있다. 강한 관계망은 가족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 등 혈연관계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서로 상호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징이 강하다. 특히, 비공식적인 관계망이 이러한 관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약한 관계망은 느슨하게 연계된 비공식적 네트워크로써 무정형이고 불규칙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강한 연대와 대비된다. Granovetter(1973)는 기업 마케팅에서 직접적이고 강한 관계망(strong tie)을 통한 메시지 전달보다는 느슨한 관계로 이어진 고객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하면서 약한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Burt(2001)는 Granovetter(1973)의 약한 연결망 개념을 발전

시켜 느슨한 연결망(sparse network)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Burt(2001)는 ‘구조적 틈새(structural holes)’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중복적이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연결들은 구조적 틈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라진구, 2009). 아울러, Lin(2001)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 개념을 활용하여 사회연결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회자본은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사회관계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진구, 2009 재인용).

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이와 같은 사회연결망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네트워크는 호혜성과 교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개별 행위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 자원 등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행위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 자원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Coleman, 1990; Putnam, 1993; 도수관·박기묵, 2020). 그렇기 때문에 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별 행위자들 간의 호혜성에 기초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개별 행위자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사회 네트워크 활동을 활용하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 측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은 젊은 세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준·고령자 세대들에게 더욱 더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도수관·박기묵, 2020).

지식정보사회를 지나 지능정보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에 비해 정보역량이 부족한 준·고령자 세대는 자신들의 부족한 정보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노력들은 젊은 세

대와 준·고령자 세대 간의 정보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준·고령자 세대들을 위한 정보역량 강화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원활히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준·고령자들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직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준·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정보역량 강화 노력과 더불어 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 준·고령자들도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어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이미 형성된 기존의 사회 네트워크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준·고령자들이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준·고령자들 간에도 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수준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그들의 경제활동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을까? 특히,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그로 인한 객관적 및 주관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다음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의 관계

최근 유럽 국가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준·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객관적 소득 증대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주관적

만족도 제고에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2). 이는 많은 사회자본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식·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이 경제주체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Granovetter, 1973; Hooyman & Kiyak, 1996; 김명애 외, 1999; 도수관·박기목, 2020).

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경우, 단순히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멤버십을 획득하는데 그치는 소극적 사회 네트워크 활동에서부터 기존의 구축된 자신의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네트워크의 강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및 적극적 참여 등과 같은 적극적 사회 네트워크 활동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Beugelsdijk & van Schaik, 2005; Doh & Acs, 2010).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지식·지능정보사회에서는 단순한 소극적 사회 네트워크 활동만으로도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멤버십이 주는 혜택을 소극적으로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개별 구성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사회 네트워크 활동을 한다면 어떨까? 개별 경제주체들이 다양한 유형의 조직이나 기관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멤버십을 획득하거나 다른 개별 경제주체들과 폭넓은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한다면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 상호작용 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Beugelsdijk & van Schaik, 2005).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극적인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좀 더 많은 혜택과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 또는 적극성의 정도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객관적·주관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도수관, 2013; 도수관·장덕희, 2017). 그리고 소극적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든 적극적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든 개인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경우, 개별 구성원들이 구축한 사회 네트워크 속에서 각 구성원들은 상호 신뢰와 협력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 자원 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그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객관적·주관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지식과 정보의 획득이 그들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획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 있다.

한국 기업의 퇴직연령은 대체로 50~60세 연령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주로 비자발적 퇴직을 경험한다. 특히, 50세 이상 연령대는 대부분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바탕으로 구직 활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567만 2,000명을 기록하였으며, 30대 취업자 수 524만 8,000명을 추월하였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취업자 수가 30대를 역전한 경우는 2021년이 처음이며,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경험하던 1980년 ~ 1990년대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다. 당시만 해도 30대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의 5~6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2021년 9월 기준 60세 이상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수 2,768만 3,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비율은 일하는 사람 5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최근까지 증가해 왔으며, 앞으로도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앞으로도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

이러면 어떤 준·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준·고령자가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개인의 소득 증대를 추구할 수 있을까? 최근의 몇몇 선행연구들은 사회 네트워크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경상(2001)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공식적 사회 관계망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특히, 양혜진·김한곤(2017)은 비공식적 관계망의 유형 가운데 학교동창, 기타 아는 사람, 직장동료와 같은 유대관계가 준·고령자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준·고령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구인 정보기관을 통하여 제공되지 않는 고급 정보들을 비공식적인 사회 연결망을 이용하여 획득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양혜진·김한곤, 2017).

오늘날과 같은 지식·지능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과 도구들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 준·고령자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에 비해 새로운 의사소통 도구와 기기 그리고 정보 획득 수단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김희연 외, 2013). 사회 변화가 준·고령자에게 미치는 이와 같은 영향들도 궁극적으로 준·고령자들에게 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즉, 새로운 의사소통 도구와 수단 그리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획득 수단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능력이 부족한 준·고령자들은 적극적인 사회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 자원 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그들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준·고령자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획득 및 타인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의 교류 및 확산 등을 위해서는 다른 구성원들과 보다 적극적인 사회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Marcelino et al., 2016), 이러한 네트워크 활

동은 궁극적으로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객관적·주관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성과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다(Cornwell et al., 2008; Bahramnezhad et al., 2017).

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에서의 연구가설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해보면,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그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오늘날과 같은 지식·지능정보사회에서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그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제적 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자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최근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고령자 취업 활성화, 고령자 취업 요구 조사 및 취업 실태, 재취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그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도수관·박기묵(2020)의 연구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고령자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문제제기한 50+ 세대의 준·고령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도 한국행정연구원이 제공하는 2013~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매년 같지 않아 패널분석(panel analysis)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의 관계를 50+ 세대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연령대를 다양하게 구분하고 실증분석 방법도 패널분석과 Pooled 데이터 분석을 모두 활용함으로써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의 관계를 보다 풍부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개념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개념을 경제활동 참여 여부, 객관적 측면에서의 소득 증대 그리고 주관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만족도 등으로 세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연구가설 1.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참여할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2.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준·고령자의 객관적 소득 수준에 긍정적인(+)*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3.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준·고령자의 주관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만족도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각 연구가설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에 앞서 한국의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과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3장 한국의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과 지원정책

제1절 한국의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과 지원정책

1. 한국의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국내기업 종사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만 50세 전후로 상당수 노동자들이 이 시기에 비자발적 퇴직을 경험한다. 이러한 준·고령 퇴직자들은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구직활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2021)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최근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21년 9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30대 취업자 수를 추월하였으며, 6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20.5%)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으로써 노동을 하고 있는 5명 중 1명은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또한, 2020년 5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령층 부가조사결과에서 55세 ~ 79세 사이의 고령자는 2021년 5월 기준 약 1,476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월 1,427만 1천 명 대비 49만 5천명(3.4%) 증가한 수치이다.

아울러, 통계청(2021)에 의하면, 2021년 5월 기준 전체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4,512만 4천명 중에서 55세~79세 고령층 인구가 32.7%이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는 856만 3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620만 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5만 5천명(4.2%), 14만명(2.3%)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827만 6천명, 실업자는 28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38만 1천명 증가하였고 실업자는 2만 7천명이 감소하였다. 또한 고

용률은 56%로 전년 동월대비 0.7%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3.4%로 전년동월 대비 0.4% 하락하였다.

<표 3-1-1> 한국의 준·고령자 경제활동 상태: 2013~2021년

(단위: 천명)

시점	연령별	준·고령자 인구	경제활 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고용률 (%)	실업률 (%)
2013	55~79세	10,845	5,872	5,763	109	4,973	53.1	1.9
	55~64세	5,862	3,958	3,867	91	1,904	66.0	2.3
	65~79세	4,983	1,914	1,896	18	3,069	38.1	0.9
2014	55~79세	11,328	6,267	6,132	135	5,061	54.1	2.2
	55~64세	6,194	4,284	4,176	108	1,910	67.4	2.5
	65~79세	5,134	1,983	1,956	27	3,152	38.1	1.4
2015	55~79세	11,807	6,542	6,376	165	5,265	54.0	2.5
	55~64세	6,582	4,541	4,413	128	2,041	67.1	2.8
	65~79세	5,225	2,001	1,963	38	3,224	37.6	1.9
2016	55~79세	12,438	6,890	6,715	175	5,548	54.0	2.5
	55~64세	7,056	4,847	4,708	139	2,209	66.7	2.9
	65~79세	5,382	2,043	2,007	36	3,339	37.3	1.7
2017	55~79세	12,929	7,287	7,117	171	5,642	55.0	2.3
	55~64세	7,354	5,157	5,029	127	2,198	68.4	2.5
	65~79세	5,575	2,131	2,087	44	3,444	37.4	2.0
2018	55~79세	13,441	7,621	7,421	200	5,820	55.2	2.6
	55~64세	7,676	5,371	5,213	158	2,306	67.9	2.9
	65~79세	5,765	2,250	2,209	42	3,514	38.3	1.9
2019	55~79세	13,843	7,974	7,739	235	5,869	55.9	2.9
	55~64세	7,883	5,524	5,350	174	2,359	67.9	3.1
	65~79세	5,960	2,450	2,389	62	3,510	40.1	2.5
2020	55~79세	14,271	8,208	7,895	314	6,063	55.3	3.8
	55~64세	8,021	5,589	5,370	220	2,432	66.9	3.9
	65~79세	6,251	2,619	2,525	94	3,632	40.4	3.6
2021	55~79세	14,766	8,563	8,276	287	6,203	56.0	3.4
	55~64세	8,156	5,678	5,473	205	2,477	67.1	3.6
	65~79세	6,610	2,885	2,803	82	3,725	42.4	2.8

출처: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내용 중에서 고령층 부가조사(2021. 07)

2021년 5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령층 부가조사결과에서 고령

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 도소매·숙박음식업, 농림어업, 광·제조업, 제조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건설업 순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비중은 5.9%,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 비중은 7.2% 증가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업 비중은 4% 하락하였다. 농림어업 비중은 3.4% 상승하였고, 광·제조업 비중은 2.5% 하락하였다. 또한 제조업 비중은 2.8% 하락하였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비중은 4.1% 상승하였고, 건설업 비중은 21% 상승하였다. <표 3-1-2>는 이와 관련된 산업별 취업자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표 3-1-2> 한국의 55세~ 79세까지 산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천명)

산업별	시점	55~79세	55~64세	65~79세
계	2013	5,763	3,867	1,896
	2014	6,132	4,176	1,956
	2015	6,376	4,413	1,963
	2016	6,715	4,708	2,007
	2017	7,117	5,029	2,087
	2018	7,421	5,213	2,209
	2019	7,739	5,350	2,389
	2020	7,895	5,370	2,525
	2021	8,276	5,473	2,803
	농림어업	2013	1,210	497
2014		1,163	482	680
2015		1,055	450	605
2016		992	426	566
2017		1,019	435	585
2018		1,067	454	613
2019		1,064	459	605
2020		1,084	458	626
2021		1,122	459	663

산업별	시점	55~79세	55~64세	65~79세
광·제조업	2013	549	460	89
	2014	640	547	94
	2015	684	575	109
	2016	766	644	122
	2017	838	701	137
	2018	875	732	143
	2019	901	753	148
	2020	954	796	158
	2021	931	769	163
제조업	2013	546	457	88
	2014	636	543	93
	2015	681	572	109
	2016	759	637	122
	2017	829	695	134
	2018	866	726	140
	2019	897	750	147
	2020	950	792	158
	2021	924	762	16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2013	4,005	2,910	1,095
	2014	4,329	3,147	1,182
	2015	4,637	3,389	1,248
	2016	4,958	3,639	1,319
	2017	5,259	3,894	1,366
	2018	5,480	4,028	1,453
	2019	5,774	4,138	1,636
	2020	5,857	4,116	1,741
	2021	6,222	4,245	1,977
건설업	2013	415	353	62
	2014	465	383	81
	2015	498	423	74
	2016	548	478	70
	2017	617	549	68
	2018	646	561	85
	2019	665	573	92
	2020	632	521	111
	2021	798	657	141

산업별	시점	55~79세	55~64세	65~79세
도소매·음식숙박업	2013	1,108	798	310
	2014	1,199	886	313
	2015	1,316	989	327
	2016	1,358	1,043	316
	2017	1,416	1,099	317
	2018	1,456	1,146	310
	2019	1,532	1,184	348
	2020	1,513	1,157	356
	2021	1,454	1,080	374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2013	1,919	1,310	608
	2014	2,048	1,399	649
	2015	2,192	1,482	710
	2016	2,344	1,557	787
	2017	2,516	1,676	839
	2018	2,639	1,746	893
	2019	2,819	1,798	1,021
	2020	2,930	1,855	1,075
	2021	3,156	1,927	1,229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013	563	448	115
	2014	618	480	138
	2015	632	495	137
	2016	708	561	147
	2017	710	569	142
	2018	740	575	165
	2019	758	583	174
	2020	782	584	199
	2021	815	582	233

출처: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내용 중에서 고령층 부가조사(2021. 07)

2021년 5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령층 부가조사결과에서 고령층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관리자·전문가, 사무 종사자 순으로 높았다.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비중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1%, 1.8% 상승하였고, 기능 기계조작종사자 비중은 8.6% 상승하였다.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비중은 3% 상승하였으나 관리자·전문가 비중은 8.4% 하락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무 종사자 비중 또한 0.3% 하락하였다.

<표 3-1-3> 한국의 55세~79세까지 직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천명)

시점	직업별	55~79세	55~64세	65~79세
2013	계	5,763	3,867	1,896
2014		6,132	4,176	1,956
2015		6,376	4,413	1,963
2016		6,715	4,708	2,007
2017		7,117	5,029	2,087
2018		7,421	5,213	2,209
2019		7,739	5,350	2,389
2020		7,895	5,370	2,525
2021		8,276	5,473	2,803
2013		관리자·전문가	485	394
2014	535		448	86
2015	581		480	101
2016	618		532	86
2017	682		587	95
2018	781		670	111
2019	811		677	134
2020	860		711	149
2021	793		658	135
2013	사무 종사자		258	222
2014		320	263	56
2015		368	317	51
2016		435	382	53
2017		488	437	51
2018		517	452	65
2019		547	480	67
2020		589	499	91
2021		587	489	99
2013		서비스·판매 종사자	1,139	879
2014	1,274		1,001	273
2015	1,336		1,044	291
2016	1,432		1,097	335
2017	1,555		1,202	353
2018	1,640		1,280	360
2019	1,778		1,344	434
2020	1,814		1,367	447
2021	1,848		1,357	491
201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124	467

시점	직업별	55~79세	55~64세	65~79세
2014		1,076	449	628
2015		972	413	559
2016		929	397	532
2017		959	411	548
2018		1,015	439	577
2019		1,024	451	573
2020		1,050	448	602
2021		1,082	439	643
2013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1,173	978
2014	1,296		1,078	218
2015	1,398		1,150	248
2016	1,550		1,292	259
2017	1,638		1,367	272
2018	1,658		1,359	300
2019	1,699		1,363	336
2020	1,689		1,328	362
2021	1,847		1,430	417
2013	단순노무 종사자	1,585	927	658
2014		1,631	937	694
2015		1,722	1,009	713
2016		1,752	1,008	744
2017		1,795	1,026	769
2018		1,810	1,014	796
2019		1,880	1,035	845
2020		1,893	1,018	875
2021		2,118	1,100	1,018

출처: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내용 중에서 고령층 부가조사(2021. 07)

2021년 5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55세부터 64세까지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815만 6천명으로 전체인구 5천 183만명 대비 15.7%를 점유하고 있어 이들의 거취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같으면 은퇴 이후 임대소득이나 연금에 의존하며 건강관리에만 힘쓰는 게 보통이었지만 요즘 은퇴자들은 20~30년 이상 남은 여생을 위해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재취업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와 계약직 제도 미비로 이들

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의사가 없는 실정이다.

고령자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는데, 대체로 자신의 핵심역량에 기반하여 직접 취업하거나 간접적으로 자문, 컨설팅 등으로 경험을 전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업종별로 존재하는 각종 협회나 단체에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기도 한다. 사기업의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년이 늦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개방직 공무원이나 연구소 기술자문으로 영입되기도 하고 최근 산학협력 차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산학협력교수나 겸임교수로서 대학교 강단에 서기도 한다.

한편,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것뿐 아니라 직무 이외에 취미로 취득해둔 각종 자격증을 활용하여 아예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도 있다. 번역사, 공인중개사, 직업상담사, 주택관리사, 소믈리에, 요리사, 퍼스널 트레이너 등 자신이 평소 관심이 많거나 취미로 좋아하던 활동에 대해 정식 자격증이나 해당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는 음악가, 화가, 문인 등 예술 및 문학 방면의 진로도 포함된다.

2. 한국의 준·고령자 경제활동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

1)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저소득 고령자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 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일반적으로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및 경륜 전수 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표 3-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1-4〉 보건복지부 노인공익활동사업

운영주체 / 수행기관	사업유형	수요처·수요자	활동내용	예산
시·군·구 등의 기초자치단체/ 수행기관은 운영주체가 사업공고 후 선정	노노케어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점검 등	참여자: 1인당 20만원 이내 수행기관: 1인당(연간) 14만원
	취약계층 지원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 상담, 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공공시설 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등	시설 등에서 지역사회 회내 필요한 공익서비스	연중사업은 1인당(연간) 16만원
	경륜 전수 활동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	국고보조: 50% (서울 30%)

출처: 보건복지부(2016). 노인일자리 종합안내.

2) 시장형사업단(공동작업·제조판매형)

시장형사업단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에서 중·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이

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을 활용하여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6).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가이드라인 및 성과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세부계획 수립 후 우수한 사업단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표 3-1-5>는 2015년 운영한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시장형사업단 인센티브 가이드라인을 나타낸다.

<표 3-1-5> 보건복지부 시장형사업단(공동작업·제조판매형)

구분	인센티브 지급 가이드라인	비고
지급대상	15년 성과진단 결과 1그룹 중 1인당 월평균보수 및 1인당 참여개월 수가 전체 평균 이상인 사업단 중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단	15년 전체 평균 월평균보수 및 참여 개월 수는 추후 업무시스템 시·도 게시판에 공지 예정
지급금액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단, 사업단을 합한 기관 총인센티브가 3,000만원 초과 불가)	
지급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지자체, 검찰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 • 조사가 완료되어 해임, 사업단 폐쇄 등의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기관 • 현장 점검결과 기관경고 또는 사업중단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기관(국회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지적사항만 적용 • 1개 이상 사업단(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전체 사업단에 인센티브 미지급
사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및 인센티브, 담당 전담인력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급 등 - 환경개선비(노인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등) 및 신규사업 개발비 • 보조금법 및 국가재정법 등의 일반절차 준수 • 인센티브를 공익활동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인센티브 사용 후 지자체에 정산 보고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운영비로 사용불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기관에서 다수의 인센티브 지급 대상 사업단이 있을 경우 한도 내 모든 사업단에 인센티브 지급 • 참여노인이 많은 사업단 및 전년 대비 배정량이 증가한 사업단에 가점부여 	

출처: 보건복지부(2016).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3)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 사업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3-1-6〉 시니어클럽 사업연혁

연도	연혁
2001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시범 사업 실시(5개소)
2002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15개소 추가 지정
2003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평가 및 운영의 체계·전문화 도모 • 2001년 지정기관 5개소에 대한 평가 실시
2004	• 명칭 변경 및 기관 확대 • 명칭변경: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 노인인력지원기관 • 추가지정: 노인인력지원기관 11개소, 국민건강보험시니어클럽(직능)
2005	• 지방이양, 명칭 변경 및 사업역량 강화(신규 5개소) •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전환 • 명칭변경: 노인인력지원기관 → 시니어클럽 • 노인 일자리(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일자리) 중점수행기관으로 지정
2006	• 시니어클럽 확대 및 사업역량 강화 • 9개소 추가 지정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의 지역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2007	• 지속적인 시니어클럽 확대 및 사업평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소 신규지정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시니어클럽 확대 및 사업평가 강화 • 11개소 신규지정(총 65개소, 2008.11기준) •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 실태 및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 계간지 ‘시니어파워’ 창간(2008.10) • 제2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개최(2008.11.5. 장충체육관)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클럽 확대 지속 및 사업평가 강화 • 17개소 신규 지정(총 82개소, 2009.11. 기준) • 계간지 ‘일하는 노인 신문’ 창간(2009.9) • 제3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공동개최(경상북도)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클럽 확대 지속 및 사업평가 강화 • 8개소 신규 지정(총 95개소, 2010.12. 기준) • 제4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공동개최(강원도)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클럽 확대 지속 및 사업평가 강화 • 총 129개소(2015.12.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2016).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4)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구직 희망 노인의 취업 상담·알선 등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앙회인 대한노인회 취업지원본부를 비롯하여 전국에 254개소를 두고 있으며, 그 하부 조직으로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와 대한노인회 지회(직할) 취업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별 역할은 <표 3-1-7>에 제시되어 있다.

〈표 3-1-7〉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본부	취업지원센터	지회(직할)취업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노인회 취업 지원 사업 기본 계획 수립·시행 • 취업지원본부(센터) 운영 규정 수립·배포 • 취업지원센터 직원 교육·훈련 및 홍보 계획 수립·총괄 • 취업지원센터 지도 감독 및 평가 • 조사 연구 및 사례 관리 계획 수립 시행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센터 실적 상시 모니터링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취업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취업 지원 사업(시·도 단위 일자리 개발) 등 실행 계획 수립·시행 • 노인 취업 상담 및 알선 • 취업자 사후 관리 및 재취업 연계 • 관할 지회 센터 간 연계·조정 및 사업 평가·관리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취업지원센터 실적 상시 모니터링 • 시·도 취업박람회 등 사업 홍보 및 대외 협력 지원 • 관할 지회 센터 업무 지원·지도 및 감독 • 광역 단위 취업 전 노인 교육 및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취업 지원 사업 세부 실행 계획 수립·시행 • 노인 취업 상담 및 알선 • 노인 인력 수요 업체(기관) 발굴 및 관리 • 취업자 사후 관리 및 재취업 연계 • 취업 전 노인 교육 및 훈련 • 지역 내 대외 협력 지원 등 • ‘통합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제고 • 취업지원본부와 상시적인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출처: 보건복지부(2016).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5) 고용연장지원금사업

고용연장지원금사업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6).

〈표 3-1-8〉 고용노동부 고용연장지원금사업

사업명	정년연장지원금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년연장을 60세 이상으로 한 상시 300미만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정년 폐지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 18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정년퇴직한 자를 퇴직시키지 않는 경우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월 30만원 폐지/1~3년 미만: 1년 3년 이상: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월 30만원 1~3년 미만 재고용 : 6개월 지급 3년 이상 재고용: 1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시 1인당 분기 18만원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 10%) 한도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2016). 고용연장지원금 정책.

6) 임금피크제 지원금사업

임금피크제 지원금사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표 3-1-9〉에 제시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6).

〈표 3-1-9〉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지원사업

사업명	임금피크제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년 60세 이상의 임금피크제 사업장의 55세 이상 적용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50세 이상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개월 이상 근무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10% 이상 임금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개월 이상 근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임금 감액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크임금 대비 9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연 1,080만원 한도에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 차액의 1/2을 최대 2년간 연 1,080만원 한도에서 지원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월 30만원의 간접 노무비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2016). 고용연장지원금 정책.

제2절 지방자치단체별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과 지원정책

1. 서울특별시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1) 서울특별시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별 취업자는 2019년 기준 약 148만 4천명으로 2006년 약 104만명 대비 44만 4천명 정도 증가하였다. <표 3-2-1>는 구체적으로 2006~2019년까지 서울특별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3-2-1> 서울특별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단위: 천명)

시점	성별	합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6	합계	1204	500	320	220	164
	남성	729	292	197	135	105
	여성	474	207	123	84	60
2007	합계	1273	518	335	230	190
	남성	776	301	212	145	118
	여성	497	217	123	85	72
2008	합계	1317	551	358	223	185
	남성	806	326	217	142	121
	여성	511	225	141	81	64
2009	합계	1363	564	373	226	200
	남성	832	338	225	142	127
	여성	532	226	148	84	74
2010	합계	1478	605	413	240	220
	남성	891	359	245	147	140
	여성	587	246	168	93	80
2011	합계	1559	625	444	261	229
	남성	931	361	262	159	149
	여성	629	265	182	102	80
2012	합계	1618	634	458	272	254
	남성	961	365	274	165	157
	여성	657	269	184	107	97
2013	합계	1671	637	480	283	271
	남성	984	363	285	169	167
	여성	687	274	195	114	104
2014	합계	1778	641	531	296	310
	남성	1034	361	308	181	184
	여성	746	281	224	115	126
2015	합계	1798	619	549	317	313
	남성	1044	354	313	190	187
	여성	753	265	236	127	125
2016	합계	1801	579	565	338	319
	남성	1044	334	324	199	187
	여성	758	246	241	139	132
2017	합계	1844	578	565	369	332
	남성	1062	326	328	220	188
	여성	781	252	236	149	144
2018	합계	1817	563	547	364	343
	남성	1045	316	318	214	197
	여성	772	247	229	150	146
2019	합계	1877	570	537	377	393
	남성	1060	321	305	211	223
	여성	817	249	232	166	170

출처: 통계청(2021). 「서울특별시 지역별 기본통계」.

2) 서울특별시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지원정책

서울특별시는 50플러스재단을 통하여 50+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준·고령자 취업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50+일모델 발굴, 사회공헌일자리, 경력전환·취업, 창업·창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3-2-2〉 서울특별시 준·고령자 재취업 지원정책

지원정책	내용
서울시 50+보람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의 활동비를 받으며 시간제로,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 커리어를 탐색할 수 있는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 사회서비스, 마을, 세대통합, 당사자, 문화, 안전, 50+센터 공동사업 영역에서 활동 ○ 만50~67세 서울시민이 대상임
서울50+ (뉴딜)인턴십 (파트타임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 지역기반 활동 영역에서 활동 ○ 활동처와 협의해 활동 요일과 시간을 결정 ○ 대상은 만45~67세 서울시민임
서울50+ (뉴딜)인턴십 (풀타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그린·디지털뉴딜 분야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주 5일(1일 8시간) 근무 ○ 시급은 일급제로 주휴·연차수당을 별도 지급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 50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신중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해 사회적기업 및 스타트업 취업을 지원하며, 현대자동차그룹과 고용노동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주)상상우리가 함께함 ○ 대상으로는 사회적기업 또는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45세 이상 서울·경기 지역 퇴직(예정)자임
50+지역상생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외 지역과 농촌에 관심 있는 50+세대를 대상(만45~67세 서울시민)으로 서울에 소재한 지역상생, 도농상생 유관기관에서의 일·활동 기회를 제공함

50+적합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공공 자원을 투입해 시장의 50+인재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50+세대의 취업연계형 일자리사업 ○ 50+적합일자리 발굴 채널을 상시 운영해 시장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모델화·사업화함
50+단체 도약 및 성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으로는 단체 설립을 준비하는 50+세대 모임이나 설립 5년 미만 50+단체 ○ 뜻을 공유하는 동료와 단체를 조직해 큰일을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하도록 단체 설립부터 성장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제공
베미스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 공간을 마련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입주자 네트워크로 진행하는 사업 ○ 서울시 전역 50플러스캠퍼스 및 50플러스센터에 소재(13개소) 만40~69세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자 등록지가 서울시인 자로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함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지원 프로젝트 집프업 50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와 골목을 되살릴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가를 발굴하고, 교육부터 사업화까지 창업 전 단계를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협력 ○ 도시재생·창업 관련 전문 교육, 현장 탐방, 현장실습 등 사업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며, 고도화 컨설팅도 지원 ○ 만50~64세에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함 ○ 도시재생 창업 아이템 종류로는 지역복합문화공간 운영, 집수리 마을재생 사업, 지역 특화거리 공동 브랜드 사업,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등이 있음

출처: 서울특별시청 복지과(2021).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정책」.

2. 부산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1) 부산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별 취업자는 2019년 기준 약 61만 3천명으로 2006년 약 39만 4천명 대비 21만 9천명 정도 증가하였다. <표 3-2-3>은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분포를 나타낸다.

<표 3-2-3> 부산광역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단위: 천명)

시점	성별	합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6	합계	461	192	126	76	67
	남성	286	116	79	48	43
	여성	174	76	46	28	24
2007	합계	492	201	133	82	76
	남성	301	118	85	52	46
	여성	190	83	48	30	29
2008	합계	496	204	132	89	71
	남성	297	118	82	54	43
	여성	199	86	50	35	28
2009	합계	506	209	131	91	75
	남성	308	122	83	58	45
	여성	198	87	48	33	30
2010	합계	528	220	142	90	76
	남성	327	130	89	60	48
	여성	201	90	53	30	28
2011	합계	560	224	159	99	78
	남성	344	131	96	66	51
	여성	217	93	63	34	27
2012	합계	608	232	179	102	95
	남성	356	132	103	64	57
	여성	250	100	75	38	37
2013	합계	652	236	197	108	111
	남성	381	132	115	68	66
	여성	271	104	82	40	45
2014	합계	672	236	204	116	116
	남성	395	135	119	72	69
	여성	278	101	86	44	47
2015	합계	678	225	201	134	118
	남성	388	124	117	80	67
	여성	288	101	84	53	50
2016	합계	685	212	199	144	130
	남성	395	117	118	84	76
	여성	291	95	81	60	55
2017	합계	687	196	204	154	133
	남성	406	114	123	94	75
	여성	281	82	81	60	58
2018	합계	693	188	204	158	143
	남성	405	104	121	101	79
	여성	288	84	83	57	64
2019	합계	716	195	209	156	156
	남성	403	102	118	96	87
	여성	313	93	90	60	70

출처: 통계청(2021). 「부산광역시 지역별 기본통계」.

2) 부산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부산광역시는 구·군 및 복지관(75), 시니어클럽(16),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대한노인회 통합취업지원센터(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등에서 고령자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4〉 부산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지원정책	내용
최저임금 및 부산형 생활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주거·교육·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제시행을 목적으로 청년, 여성, 중장년, 노년, 장애인 중 시, 시 산하 공공기관 및 자회사 소속 공무원 및 기간제 노동자 또는 전액시비 부산광역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되는 사업 ○ 단,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 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제외함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및 중장년을 위한 취업지원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만 18세 이상 부산시 거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함 ○ 44개 기관(과정)을 선정하여 일반과정(35개 기관(과정)과 특화과정(9개 기관(과정))으로 훈련과정이 나뉘어져 있음 ○ 훈련시간은 최소 120시간 ~ 최대 500시간까지 지원함

출처: 부산광역시청 복지과(2021).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정책」.

3. 대구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1) 대구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별 취업자는 2019년 기준 약 41만 7천명으로 2006년 약 25만 1천명 대비 16만 6천명 정도 증가하였다. <표 3-2-5>는 구체적으로 대구광역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분포를 나타낸다.

〈표 3-2-5〉 대구광역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단위: 천명)

연도	성별	합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6	합계	300	119	82	50	49
	남성	174	71	46	29	28
	여성	127	49	36	21	21
2007	합계	300	122	86	49	43
	남성	183	73	51	30	29
	여성	117	49	35	19	14
2008	합계	307	133	85	47	42
	남성	192	80	53	31	28
	여성	116	53	32	16	15
2009	합계	329	141	87	51	50
	남성	203	84	53	34	32
	여성	125	57	34	17	17
2010	합계	338	144	89	51	54
	남성	205	86	55	32	32
	여성	134	58	35	19	22
2011	합계	371	149	99	62	61
	남성	221	90	61	36	34
	여성	150	59	38	27	26
2012	합계	411	160	115	69	67
	남성	239	94	69	39	37
	여성	172	66	46	30	30
2013	합계	431	165	126	73	67
	남성	249	96	76	43	34
	여성	182	69	50	29	34
2014	합계	454	169	134	79	72
	남성	267	99	82	47	39
	여성	186	70	52	32	32
2015	합계	463	170	136	81	76
	남성	275	98	82	48	47
	여성	189	72	54	34	29
2016	합계	480	165	146	85	84
	남성	280	96	84	48	52
	여성	201	70	62	37	32
2017	합계	503	167	154	94	88
	남성	289	95	87	57	50
	여성	215	73	67	37	38
2018	합계	516	163	157	95	101
	남성	293	91	87	57	58
	여성	222	71	70	38	43
2019	합계	523	166	148	103	106
	남성	300	94	85	60	61
	여성	226	73	64	44	45

출처: 통계청(2021). 「대구광역시 지역별 기본통계」.

2) 대구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정책

대구광역시는 대구강북고용센터,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하여 준·고령자 취업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

〈표 3-2-6〉 대구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지원정책	내용
중장년 Happy Job 일자리 소통 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역 중장년 일자리 멘토링 소통의 장으로 직업과 삶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구체화, 구직자로서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생애설계의 방향설정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전략 수립의 실천의지를 고취 ○ 사업대상은 중장년(만 40세~64세) 구직 희망자로 사업내용은 중장년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 성공전략 수립하는 것
3인 3색 중장년 일자리 토크콘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 일자리 전문가(취업·창업·창직)를 초빙하여 일자리부문 주제별 차별화된 핵심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나만의 맞춤형 일자리 전략 수립 ○ 사업대상은 중장년(만 40세~64세) 구직 희망자로 사업내용은 일자리 전문가 주제별(취업창업창직) 핵심강의 및 질의응답 방식
중장년 일자리 창직학교 (내 직업은 내가 만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없는 시대에 구직 대신 평생 직업으로써 창직을 준비하라’ 는 취지로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고용모델의 접근방식을 제안하고 중장년 일자리 부족과 선호직업의 미스매치 극복방안을 공유하며, 경진대회를 통해 자신의 직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 사업대상은 중장년(만 40세~64세) 구직 희망자로 사업내용은 취업절벽 시대에 중장년 일자리창출의 새로운 모델 제시

출처: 대구광역시청 복지과 2021. 12.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정책」

4. 인천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1) 인천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2019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취업자수 통계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여 50세 이상 59세 이하 연령별 취업자수만 파악이 가능하였다. 구체적으로 2019년 기준 인천광역시 50세 이상 59세 이하 취업자수는 약 61만 1천명으로 2006년 18만 7천명 대비 약 42만 4천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60세 이상 64세 미만 취업자수를 고려하면 아마도 그 수는 더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2-7>은 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분포를 나타낸다.

<표 3-2-7> 인천광역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단위: 천명)

시점	성별	합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6	합계	268	120	67	81	-
	남성	175	77	46	52	-
	여성	94	44	21	29	-
2007	합계	290	129	73	88	-
	남성	132	55	36	41	-
	여성	139	57	40	42	-
2008	합계	320	142	84	43	51
	남성	197	86	54	28	29
	여성	124	56	31	15	22
2009	합계	337	145	90	50	52
	남성	203	87	56	31	29
	여성	136	59	34	19	24
2010	합계	364	155	94	60	55
	남성	217	93	59	38	27
	여성	146	62	35	22	27
2011	합계	399	170	108	62	59
	남성	239	101	66	40	32
	여성	159	69	41	22	27
2012	합계	442	302	-	-	140
	남성	264	181	-	-	83
	여성	178	121	-	-	57
2013	합계	477	324	-	-	153
	남성	280	190	-	-	90
	여성	198	134	-	-	64
2014	합계	505	343	-	-	162
	남성	293	202	-	-	91
	여성	213	141	-	-	72
2015	합계	521	349	-	-	172
	남성	302	205	-	-	97
	여성	219	144	-	-	75
2016	합계	538	362	-	96	80
	남성	314	210	-	59	45
	여성	225	152	-	38	35
2017	합계	564	373	-	107	84
	남성	329	215	-	63	51
	여성	235	158	-	44	33
2018	합계	597	388	209	-	-
	남성	344	221	123	-	-
	여성	253	166	87	-	-
2019	합계	611	387	224	-	-
	남성	349	217	132	-	-
	여성	262	170	92	-	-

출처: 통계청(2021). 「인천광역시 지역별 기본통계」.

2) 인천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정책

인천광역시는 인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하여 직업탐색 및 전직을 돕는 준·고령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3-2-8〉 인천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정책

지원정책	내용
전직스쿨 직업탐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적은 직업탐색 과정을 통해 직업의 이해를 높여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며, 대상은 만4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및 중소기업 퇴직예정자로 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운영함 ○ 세부내용으로는 원예복지사, 짜인디자이너, 직업상담사, 치매예방사가 있음
전직스쿨 직업체험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은 만4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및 중소기업 퇴직예정자로 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운영함 ○ 세부내용으로는 떡제조기능사, 이모티콘 크리에이터가 있음

출처: 인천광역시청 복지과(2021).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정책」.

5. 광주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1) 광주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별 취업자는 2019년 기준 약 24만 7천명으로 2006년 약 12만 2천명 대비 12만 5천명 정도 증가하였다. <표 3-1-8>은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분포를 나타낸다.

〈표 3-2-9〉 광주광역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단위: 천명)

시점	성별	합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6	합계	145	60	38	24	23
	남성	88	38	23	14	13
	여성	58	23	15	10	10
2007	합계	154	63	40	25	26
	남성	93	40	23	15	15
	여성	60	23	17	9	11
2008	합계	155	66	41	24	24
	남성	96	41	24	17	14
	여성	59	24	18	7	10
2009	합계	166	70	43	27	26
	남성	99	43	25	16	15
	여성	67	27	18	10	12
2010	합계	183	76	48	29	30
	남성	108	46	28	18	16
	여성	74	30	19	11	14
2011	합계	191	78	51	29	33
	남성	113	46	31	17	19
	여성	78	32	20	12	14
2012	합계	202	83	54	32	33
	남성	121	49	32	20	20
	여성	81	34	22	12	13
2013	합계	224	91	59	35	39
	남성	131	54	36	20	21
	여성	92	37	23	14	18
2014	합계	240	91	67	38	44
	남성	141	53	42	22	24
	여성	99	38	26	15	20
2015	합계	247	89	72	39	47
	남성	145	53	43	22	27
	여성	102	36	29	17	20
2016	합계	259	89	76	41	53
	남성	150	51	44	25	30
	여성	109	38	32	16	23
2017	합계	271	94	79	43	55
	남성	152	51	46	25	30
	여성	121	43	34	18	26
2018	합계	277	94	82	45	56
	남성	156	52	48	26	30
	여성	121	42	34	19	26
2019	합계	302	107	91	49	55
	남성	145	53	43	22	27
	여성	157	54	48	27	28

출처: 통계청(2021). 「광주광역시 지역별 기본통계」.

2) 광주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광주광역시는 주로 빗고을 50+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10〉 광주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지원정책	내용
빗고을 50+ 일자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50+ 정책의 하나로써,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봉사적 성격이 강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말함 ○ 주민등록법상 45세 ~ 64세 미취업자로 장년층 중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 등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재)취업, 제3섹터 창업, 사회봉사 등 성공적인 인생 3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함

출처: 광주광역시청 복지과(2021).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정책」.

6. 대전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1) 대전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별 취업자는 2019년 기준 약 23만 9천명으로 2006년 약 12만명 대비 11만 9천명 정도 증가하였다. <표 3-2-11>은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분포를 나타낸다.

<표 3-2-11> 대전광역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단위: 천명)

시점	성별	합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6	합계	139	63	37	20	19
	남성	91	42	24	13	12
	여성	46	21	12	7	6
2007	합계	161	73	43	24	21
	남성	102	46	28	15	13
	여성	59	27	15	9	8
2008	합계	172	76	46	27	23
	남성	110	48	31	17	14
	여성	64	28	16	11	9
2009	합계	186	82	48	30	26
	남성	117	51	32	19	15
	여성	70	32	16	11	11
2010	합계	196	88	51	31	26
	남성	122	53	34	20	15
	여성	75	35	18	11	11
2011	합계	212	91	59	32	30
	남성	128	52	38	19	19
	여성	84	39	21	13	11
2012	합계	225	97	60	35	33
	남성	133	54	38	22	19
	여성	92	43	22	13	14
2013	합계	231	98	64	34	35
	남성	140	56	41	22	21
	여성	91	42	23	12	14
2014	합계	248	99	75	38	36
	남성	147	58	46	23	20
	여성	101	41	29	15	16
2015	합계	264	98	81	44	41
	남성	155	56	48	27	24
	여성	110	42	34	17	17
2016	합계	272	94	84	47	47
	남성	159	55	50	27	27
	여성	112	39	34	19	20
2017	합계	271	91	82	50	48
	남성	160	54	49	31	26
	여성	112	38	33	19	22
2018	합계	278	93	81	52	52
	남성	162	54	48	30	30
	여성	117	39	34	22	22
2019	합계	296	97	83	59	57
	남성	169	55	47	34	33
	여성	126	42	36	25	23

출처: 통계청(2021). 「대전광역시 지역별 기본통계」.

2) 대전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대전광역시는 행복금융 서포터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과 중장년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12〉 대전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지원정책	내용
행복금융 서포터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 신용보증기관, 금융회사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퇴직자로 선발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재무상담과 금융 컨설팅을 통해 가계부채 부실을 예방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됨
중장년지원센터	○ 제2의 인생설계를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를 위한 상담, 교육, 커뮤니티, 나눔일자리,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융합공간으로 중장년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출처: 대전광역시청 복지과(2021).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정책」.

7. 울산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1) 울산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별 취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데이터 획득의 한계로 인해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대체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별 취업자는 약 10만 8천명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0>은 구체적으로 울산광역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분포를 나타낸다.

〈표 3-2-13〉 울산광역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단위: 명)

시점	성별	합계	50~54세	50~59세	55~59세	60~64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2006	합계	116	-	81	-	-	35	-
	남성	75	-	54	-	-	21	-
	여성	40	-	26	-	-	14	-
2007	합계	128	-	90	-	-	38	-
	남성	84	-	61	-	-	23	-
	여성	44	-	29	-	-	15	-
2008	합계	135	-	95	-	-	40	-
	남성	84	-	62	-	-	22	-
	여성	51	-	32	-	-	19	-
2009	합계	139	-	99	-	-	40	-
	남성	90	-	66	-	-	24	-
	여성	50	-	34	-	-	16	-
2010	합계	150	66	-	40	21	-	23
	남성	96	43	-	27	14	-	12
	여성	55	24	-	13	7	-	11
2011	합계	157	70	-	43	23	-	21
	남성	104	46	-	29	16	-	13
	여성	54	25	-	14	6	-	9
2012	합계	176	76	-	50	26	-	24
	남성	119	50	-	34	17	-	18
	여성	57	26	-	16	9	-	6
2013	합계	179	77	-	51	25	-	26
	남성	124	52	-	37	17	-	18
	여성	56	25	-	15	8	-	8
2014	합계	186	79	-	53	26	-	28
	남성	128	54	-	39	17	-	18
	여성	58	25	-	14	9	-	10
2015	합계	198	81	-	59	29	-	29
	남성	134	54	-	42	20	-	18
	여성	65	28	-	17	9	-	11
2016	합계	211	81	-	64	34	-	32
	남성	139	52	-	43	22	-	22
	여성	73	29	-	21	12	-	11
2017	합계	215	78	-	70	36	-	31
	남성	137	50	-	44	22	-	21
	여성	77	28	-	26	13	-	10
2018	합계	218	79	-	70	37	-	32
	남성	135	49	-	44	23	-	19
	여성	83	30	-	26	14	-	13
2019	합계	228	81	-	69	39	-	37
	남성	139	50	-	44	24	-	21
	여성	89	32	-	26	15	-	16

출처: 통계청(2021). 「울산광역시 지역별 기본통계」.

2) 울산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내일설계지원센터, 노사발전재단 울산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울산양산경총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동구 퇴직자지원센터, (사)나은내일연구원,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취업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등이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2-14〉 울산광역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지원정책	내용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세~65세 이하의 대상을 고용한 울산지역 중소기업에는 중장년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정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 ○ 주요사업으로는 중장년 재취업훈련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신중년 은퇴/퇴직 이음 새출발, 임업분야 재취업을 위한 임업기능인 양성, 신중년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이 있음
중장년 재취업훈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만40세~64세 이하 퇴직자, 실업자 또는 미취업자 ○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하며(매월 교육과정 변경), 교육수당 지원, 교육비 전액지원, 중식 제공, 수료 후 취업알선 등을 지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전·후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전직스쿨프로그램 및 재도약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중장년층에 특화된 근로단계별 맞춤 종합서비스 무료로 제공됨 ○ 지원대상은 40대 이상 중장년 재직자(퇴직예정자 포함) 및 구직자, 고용조정을 앞둔 사업주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퇴직 중년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공익사업 활용하기 위해 계약직으로 분야별로 채용함 ○ 자격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이어야 하며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해야 함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유급근로와 자원봉사를 결합한 모델로 비교적 적은 금전적 보상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족도와 성취감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적 성격의 활동, 즉 사회공헌 활동을 의미함

출처: 울산광역시청 복지과(2021).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정책」.

8. 세종특별자치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1) 세종특별자치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별 취업자는 2018년 기준 약 4,950명 정도로 2016년 약 2,840명 대비 2,110명 정도 증가하였다. <표 3-2-15>는 구체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분포를 나타낸다.

<표 3-2-15> 세종특별자치시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16~2018년
(단위: 백명)

시점	성별	합계	50~64세	65세이상
2016	합계	38	28.4	9.6
	남성	21.2	16.2	5.0
	여성	16.8	12.2	4.6
2017	합계	37.5	29.1	8.4
	남성	22.4	17.6	4.8
	여성	15.1	11.5	3.6
2018	합계	58.6	49.5	9.1
	남성	33.8	29	4.8
	여성	24.8	20.5	4.3

출처: 통계청(202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별 기본통계」.

2) 세종특별자치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행복 신중년지원센터,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16〉 세종특별자치시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지원정책	내용
세종행복 신중년지원센터	○ 중장년층과 어르신의 인생 후반기 삶과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위한 센터임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 만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로서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자를 대상으로 함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	○ 전문인력이 부족한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한 신중년(만50세 이상 70세 미만) 대상으로 함 ○ 대상사업의 세부내용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 안전점검 관리자, 건강한 신체활동 활성화 매니저, 노인주간보호 재할지원·인지지원 매니저, 뇌똑똑 실버코디네이터, 노인·영유아 돌봄플래너, 지역아동센터 학습지도 설계사,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동반자, 지역화폐 활성화 매니저지역화폐, 50+일자리 컨설턴트, 자원봉사활동기획 및 플랫폼매니저, 경영지원매니저 관련 사업들이 있음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청 복지과(2021).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정책」.

9. 경기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1) 경기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별 취업자는 2019년 기준 약 220만 1천명으로 2006년 약 92만 4천명 대비 122만 7천명 정도 증가하였다. <표 3-2-17>은 구체적으로 경기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분포를 나타낸다.

<표 3-2-17> 경기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단위: 천명)

시점	성별	합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6	합계	1129	472	276	176	205
	남성	716	294	180	112	130
	여성	413	178	96	64	75
2007	합계	1256	533	317	187	219
	남성	788	332	205	113	138
	여성	468	201	112	74	81
2008	합계	1361	588	345	202	226
	남성	838	361	213	127	137
	여성	524	227	133	75	89
2009	합계	1436	633	372	214	217
	남성	888	377	240	136	135
	여성	548	256	132	79	81
2010	합계	1521	665	409	234	213
	남성	943	400	255	155	133
	여성	577	265	154	79	79
2011	합계	1617	695	451	240	231
	남성	1008	424	279	160	145
	여성	610	272	172	80	86
2012	합계	1720	719	483	254	264
	남성	1076	452	299	163	162
	여성	644	267	184	91	102
2013	합계	1830	758	507	270	295
	남성	1125	463	309	171	182
	여성	706	296	198	99	113
2014	합계	1969	794	561	299	315
	남성	1206	473	347	186	200
	여성	764	321	214	113	116
2015	합계	2060	819	588	328	325
	남성	1250	478	366	202	204
	여성	811	341	222	126	122
2016	합계	2165	826	636	367	336
	남성	1303	487	393	219	204
	여성	862	339	243	148	132
2017	합계	2324	832	733	411	348
	남성	1384	491	436	248	209
	여성	941	341	297	163	140
2018	합계	2438	834	779	451	374
	남성	1451	487	457	279	228
	여성	987	347	322	172	146
2019	합계	2665	891	797	513	464
	남성	1542	506	469	300	267
	여성	1123	385	328	213	197

출처: 통계청(2021). 「경기도 지역별 기본통계」.

2) 경기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경기도는 경기도 이음 일자리사업,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4060 맞춤형 재취업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취업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을 활용하여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18〉 경기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지원정책	내용
경기도 이음 일자리사업	○ 만40세 이상~65세 미만 경기도민에 한하여 일자리를 제공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 도내 중장년층 맞춤형 구직정보 제공하고 구직자와 구인자의 매칭을 진행
4060 맞춤형 재취업지원사업	○ 도내 40대 ~ 6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	○ 신산업, 지역특화산업 기반 구인수요 맞춤형 기업연계 직무훈련과 경력활용 및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 대상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역량 강화
재취업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컨설팅	○ 1:1 전문컨설턴트 매칭으로 중장년 구직자에게 부족한 취업스킬 향상하며 취업 후 직장적응을 위한 고충상담 및 사후관리를 실시

출처: 경기도청 복지과(2021).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정책」.

10. 강원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1) 강원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별 취업자는 2019년

기준 약 28만 8천명으로 2006년 약 15만 4천명 대비 13만 4천명 정도 증가하였다. <표 3-2-19>는 구체적으로 강원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분포를 나타낸다.

〈표 3-2-19〉 강원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단위: 천명)

시점	성별	합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6	합계	219	73	43	38	65
	남성	127	44	25	23	35
	여성	91	29	18	15	29
2007	합계	232	77	48	41	66
	남성	133	48	28	23	34
	여성	97	29	20	17	31
2008	합계	242	83	49	40	70
	남성	141	51	30	23	37
	여성	100	31	19	17	33
2009	합계	254	87	55	42	70
	남성	148	52	33	24	39
	여성	107	35	22	18	32
2010	합계	249	87	58	37	67
	남성	143	51	34	22	36
	여성	106	36	24	15	31
2011	합계	268	92	65	42	69
	남성	155	55	39	25	36
	여성	112	37	26	16	33
2012	합계	288	97	75	42	74
	남성	170	59	44	26	41
	여성	118	38	31	16	33
2013	합계	294	99	79	42	74
	남성	172	59	46	25	42
	여성	122	40	33	17	32
2014	합계	311	97	84	48	82
	남성	179	57	50	28	44
	여성	133	40	34	21	38
2015	합계	328	98	90	58	82
	남성	184	57	52	33	42
	여성	143	41	38	24	40
2016	합계	340	97	97	62	84
	남성	192	57	55	36	44
	여성	150	40	43	26	41
2017	합계	370	96	103	70	101
	남성	202	55	57	38	52
	여성	168	41	46	32	49
2018	합계	382	96	105	74	107
	남성	210	56	58	43	53
	여성	174	41	48	31	54
2019	합계	406	101	105	82	118
	남성	223	58	58	49	58
	여성	184	43	48	33	60

출처: 통계청 2021. 09. 「강원도 지역별 기본통계」

2) 강원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강원도는 강원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20〉 강원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지원정책	내용
강원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 및 전직·취업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 ○ 특히, 중장년층에 근로단계에 따라 재직자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퇴직예정자 대상 전직스쿨프로그램, 구직자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함

출처: 강원도청 복지과(2021).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정책」.

11. 충청북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1) 충청북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별 취업자는 2019년 기준 약 28만 6천명으로 2006년 약 15만 6천명 대비 13만명 정도 증가하였다. <표 3-2-21>은 구체적으로 충청북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분포를 나타낸다.

<표 3-2-21 > 충청북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단위: 천명)

시점	성별	합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6	합계	219	71	48	37	63
	남성	126	42	29	21	34
	여성	93	29	19	16	29
2007	합계	233	77	54	40	62
	남성	141	45	33	31	32
	여성	95	31	20	17	27
2008	합계	239	85	55	40	59
	남성	141	50	33	24	34
	여성	98	35	22	16	25
2009	합계	246	88	57	40	61
	남성	144	52	34	24	34
	여성	103	36	24	16	27
2010	합계	259	93	62	40	64
	남성	153	56	37	24	36
	여성	106	37	25	16	28
2011	합계	273	98	66	40	69
	남성	158	56	40	24	38
	여성	117	42	26	17	32
2012	합계	286	101	71	39	75
	남성	162	58	42	22	40
	여성	125	43	30	17	35
2013	합계	299	101	79	43	76
	남성	169	59	45	23	42
	여성	130	42	34	19	35
2014	합계	321	105	85	50	81
	남성	178	59	48	28	43
	여성	143	46	37	22	38
2015	합계	335	106	91	58	80
	남성	189	60	54	33	42
	여성	147	47	38	24	38
2016	합계	344	106	97	63	78
	남성	198	60	57	38	43
	여성	147	46	40	25	36
2017	합계	354	104	105	66	79
	남성	203	60	61	39	43
	여성	150	44	44	27	35
2018	합계	375	102	108	71	94
	남성	219	60	64	42	53
	여성	157	42	45	29	41
2019	합계	391	106	105	75	105
	남성	225	61	63	43	58
	여성	165	45	42	32	46

출처: 통계청(2021). 「충청북도 지역별 기본통계」.

2) 충청북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충청북도는 충북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활용하여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22〉 충청북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지원정책	내용
충북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만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일자리 제공과 기업의 전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 추천, 채용대행서비스를 지원하고, 구직자 및 퇴직예정자에게는 재취업 및 생애경력설계, 전직 지원서비스(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 등의 종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출처: 충청북도 복지과(2021).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정책」.

12. 충청남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1) 충청남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별 취업자는 2019년 기준 약 36만 9천명으로 2006년 약 22만 9천명 대비 14만명 정도 증가하였다. <표 3-2-23>은 구체적으로 충청남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분포를 나타낸다.

<표 3-2-23> 충청남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단위: 천명)

시점	성별	합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6	합계	357	95	73	61	128
	남성	194	55	43	32	64
	여성	163	40	30	29	64
2007	합계	379	99	79	66	135
	남성	206	58	45	35	68
	여성	174	41	34	32	67
2008	합계	361	103	72	62	124
	남성	196	61	42	32	61
	여성	165	41	30	30	64
2009	합계	502	130	186	112	74
	남성	227	73	44	66	44
	여성	157	46	30	28	53
2010	합계	359	115	84	58	102
	남성	205	69	50	32	54
	여성	155	47	34	26	48
2011	합계	381	119	89	64	109
	남성	219	72	52	36	59
	여성	164	47	38	28	51
2012	합계	410	125	96	61	128
	남성	232	74	57	34	67
	여성	179	51	40	27	61
2013	합계	450	134	106	67	143
	남성	256	82	61	37	76
	여성	194	53	45	29	67
2014	합계	462	139	112	69	142
	남성	265	82	65	40	78
	여성	198	57	47	30	64
2015	합계	471	142	119	74	136
	남성	269	83	70	42	74
	여성	201	59	49	32	61
2016	합계	486	145	126	80	135
	남성	285	86	75	48	76
	여성	203	60	51	32	60
2017	합계	472	131	123	83	135
	남성	273	76	74	49	74
	여성	199	55	49	34	61
2018	합계	501	129	131	93	148
	남성	284	74	75	54	81
	여성	216	55	56	38	67
2019	합계	521	139	130	100	152
	남성	293	79	74	57	83
	여성	228	59	56	43	70

출처: 통계청(2021). 「충청남도 지역별 기본통계」.

2) 충청남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충청남도는 충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활용하여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24〉 충청남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지원정책	내용
충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 및 전직·취업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특히, 중장년층에 근로단계에 따라 재직자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퇴직예정자 대상 전직스쿨프로그램, 구직자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지원

출처: 충청남도청 복지과(2021).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정책」.

13. 전라북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1) 전라북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별 취업자는 2019년 기준 약 31만명으로 2006년 약 21만 7천명 대비 9만 3천명 정도 증가하였다. <표 3-2-25>는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분포를 나타낸다.

<표 3-2-25> 전라북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단위: 천명)

시점	성별	합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6	합계	315	93	72	52	98
	남성	176	54	42	28	52
	여성	141	39	30	25	47
2007	합계	327	100	70	53	104
	남성	181	58	41	30	52
	여성	147	42	29	24	52
2008	합계	332	101	70	54	107
	남성	185	58	42	29	56
	여성	147	44	28	24	51
2009	합계	334	103	72	54	105
	남성	189	61	42	31	55
	여성	146	43	29	23	51
2010	합계	337	103	74	57	103
	남성	198	61	45	35	57
	여성	140	42	30	22	46
2011	합계	359	112	80	59	108
	남성	238	63	48	68	59
	여성	150	49	32	21	48
2012	합계	370	113	84	61	112
	남성	209	62	51	37	59
	여성	162	51	33	24	54
2013	합계	388	113	91	66	118
	남성	222	65	53	39	65
	여성	167	49	37	28	53
2014	합계	392	110	97	62	123
	남성	223	64	56	35	68
	여성	168	45	41	27	55
2015	합계	405	111	101	64	129
	남성	230	66	58	35	71
	여성	176	45	44	29	58
2016	합계	425	115	106	68	136
	남성	242	66	61	41	74
	여성	184	49	45	28	62
2017	합계	425	110	114	74	127
	남성	245	62	67	45	71
	여성	180	47	47	29	57
2018	합계	433	107	114	78	134
	남성	246	60	68	46	72
	여성	187	46	47	32	62
2019	합계	460	112	112	86	150
	남성	257	64	66	50	77
	여성	203	48	46	36	73

출처: 통계청(2021). 「전라북도 지역별 기본통계」.

2) 전라북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전라북도는 신중년 취업희망더하기 사업을 통해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26〉 전라북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지원정책	내용
신중년 취업 희망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구직자 취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취업시장 진입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 ○ 사업대상자로는 만40세 이상 미취업 구직자 ○ 지원내용으로는 취업역량강화교육, 취업알선, 구직자 구직활동비 지원, 사후관리로서 취업자성공정착금, 기업환경개선물품을 지원

출처: 전라북도청 복지과 2021. 12.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정책」

14. 전라남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1) 전라남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별 취업자는 2019년 기준 약 33만 5천명으로 2006년 약 25만 1천명 대비 8만 4천명 정도 증가하였다. <표 3-2-27>은 구체적으로 전라남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분포를 나타낸다.

<표 3-2-27> 전라남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단위: 천명)

시점	성별	합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6	합계	406	93	82	76	155
	남성	212	56	44	38	74
	여성	194	38	37	38	81
2007	합계	407	95	81	70	161
	남성	213	57	44	36	76
	여성	194	38	37	34	85
2008	합계	415	101	76	70	168
	남성	216	58	41	37	80
	여성	199	43	35	33	88
2009	합계	432	108	79	70	175
	남성	225	62	43	38	82
	여성	207	46	36	32	93
2010	합계	427	112	84	74	157
	남성	228	64	47	40	77
	여성	199	48	37	34	80
2011	합계	439	117	90	73	159
	남성	235	66	50	41	78
	여성	204	51	40	32	81
2012	합계	463	121	94	75	173
	남성	249	69	52	40	88
	여성	214	52	42	35	85
2013	합계	460	115	94	73	178
	남성	246	67	55	38	86
	여성	212	48	39	34	91
2014	합계	459	111	96	71	181
	남성	248	67	56	38	87
	여성	208	43	39	32	94
2015	합계	473	114	103	71	185
	남성	252	68	59	38	87
	여성	220	46	44	33	97
2016	합계	492	118	107	76	191
	남성	262	68	61	42	91
	여성	231	51	46	34	100
2017	합계	496	115	115	83	183
	남성	271	68	65	47	91
	여성	226	47	50	36	93
2018	합계	502	116	116	87	183
	남성	270	69	64	47	90
	여성	231	47	52	40	92
2019	합계	523	122	119	94	188
	남성	286	71	68	54	93
	여성	239	51	52	40	96

출처: 통계청(2021). 「전라남도 지역별 기본통계」.

2) 전라남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전라남도는 4050 희망일자리 프로젝트,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장려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 4050 인생2막 희망리턴사업, 4050세대(신중년) 맞춤형 취·창업지원사업, 4050+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등을 통해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28〉 전라남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지원정책	내용
4050 희망일자리 프로젝트	○ 전라남도가 정부 고용대책에 발맞춰 조기 퇴직실직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40~50대 가장들과 퇴직한 4050세대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를 마련하고, 경력경험역량을 활용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장려금	○ 40~50대가 취업한 기업에 고용유지금, 취업자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공공기관이 취업경력이 있는 신중년을 고용하면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본인 기술과 경력을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 실비를 지원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	○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되면 취업지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
4050 인생2막 희망리턴사업	○ 4050세대의 재취업,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자 취업역량을 진단하고 기업의 4050세대 채용인식을 개선 ○ 전남에 거주한 4050세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취업특강 등 맞춤형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연계한 사업
4050세대(신중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사업	○ 전라남도가 실직 중인 중년들의 경험을 활용, 재취업 기회를 제공키 위해 마련
4050+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 창업희망 신중년을 대상으로 창업 전문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창업교육, 컨설팅 등 창업을 지원

출처: 전라남도청 복지과(2021).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정책」.

15. 경상북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1) 경상북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별 취업자는 2019년 기준 약 49만 2천명으로 2006년 약 34만 5천명 대비 14만 7천명 정도 증가하였다. <표 3-2-29>는 구체적으로 경상북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분포를 나타낸다.

<표 3-2-29> 경상북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단위: 천명)

시점	성별	합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6	합계	512	146	109	90	167
	남성	277	82	60	48	87
	여성	237	64	50	42	81
2007	합계	516	153	107	86	170
	남성	282	86	60	48	88
	여성	234	67	47	38	82
2008	합계	526	159	109	83	175
	남성	295	93	61	49	92
	여성	231	66	48	34	83
2009	합계	546	165	112	88	181
	남성	305	95	63	51	96
	여성	242	70	50	37	85
2010	합계	572	176	121	87	188
	남성	314	100	69	48	97
	여성	258	76	52	39	91
2011	합계	586	174	128	94	190
	남성	322	101	74	53	94
	여성	264	74	54	41	95
2012	합계	603	173	140	96	194
	남성	335	100	81	54	100
	여성	268	73	59	42	94
2013	합계	633	178	153	99	203
	남성	355	103	87	56	109
	여성	278	75	66	43	94
2014	합계	651	178	157	109	207
	남성	369	103	91	62	113
	여성	281	75	65	47	94
2015	합계	654	172	161	115	206
	남성	375	103	94	66	112
	여성	281	69	68	49	95
2016	합계	669	172	164	117	216
	남성	382	103	96	65	118
	여성	288	69	68	52	99
2017	합계	683	177	174	123	209
	남성	386	105	100	68	113
	여성	296	71	74	54	97
2018	합계	696	175	179	124	218
	남성	397	102	102	71	122
	여성	298	73	77	52	96
2019	합계	714	177	177	138	222
	남성	404	99	102	78	125
	여성	310	78	75	60	97

출처: 통계청(2021). 「경상북도 지역별 기본통계」.

2) 경상북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경상북도는 경북경영자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활용하여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30〉 경상북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지원정책	내용
경북경영자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도모함

출처: 경상북도청 복지과(2021).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정책」.

16. 경상남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1) 경상남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별 취업자는 2019년 기준 약 58만 1천명으로 2006년 약 34만명 대비 24만 1천명 정도 증가하였다. 〈표 3-2-31〉은 구체적으로 경상남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분포를 나타낸다.

<표 3-2-31> 경상남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단위: 천명)

시점	성별	합계	50~54세	50~59세	55~59세	60세 이상	60~64세	65세 이상
2006	합계	466	151	-	105	-	84	126
	남성	260	90	-	61	-	49	60
	여성	205	60	-	44	-	35	66
2007	합계	494	165	-	110	-	83	136
	남성	277	97	-	62	-	50	68
	여성	217	68	-	48	-	33	68
2008	합계	517	173	-	115	-	85	144
	남성	287	101	-	65	-	49	72
	여성	232	73	-	50	-	37	72
2009	합계	524	186	-	116	-	85	137
	남성	294	108	-	65	-	49	72
	여성	229	78	-	51	-	36	64
2010	합계	539	193	-	125	-	85	136
	남성	307	112	-	72	-	50	73
	여성	231	81	-	52	-	35	63
2011	합계	573	207	-	133	-	92	141
	남성	329	121	-	80	-	56	72
	여성	245	86	-	54	-	36	69
2012	합계	582	211	-	135	-	94	142
	남성	344	125	-	86	-	59	74
	여성	238	86	-	49	-	35	68
2013	합계	599	208	-	150	-	94	147
	남성	352	123	-	95	-	57	77
	여성	248	86	-	55	-	37	70
2014	합계	615	209	-	162	-	100	144
	남성	354	120	-	100	-	59	75
	여성	262	89	-	63	-	41	69
2015	합계	661	226	-	179	-	111	145
	남성	380	128	-	106	-	66	80
	여성	282	98	-	73	-	45	66
2016	합계	697	-	416	-	281	-	-
	남성	403	-	241	-	162	-	-
	여성	294	-	175	-	119	-	-
2017	합계	725	-	431	-	294	-	-
	남성	423	-	252	-	171	-	-
	여성	304	-	180	-	124	-	-
2018	합계	753	219	-	215	-	138	181
	남성	433	123	-	130	-	82	98
	여성	319	96	-	85	-	56	82
2019	합계	769	228	-	206	-	147	188
	남성	439	127	-	121	-	88	103
	여성	330	101	-	85	-	59	85

출처: 통계청(2021). 「경상남도 지역별 기본통계」.

2) 경상남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경상남도는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신중년 50+ 커리어컨설턴트, 중견 예술인과 함께하는 ‘예술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신중년 사회적기업 금융 컨설턴트, 신중년 사회적기업 컨설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청소년 방과후 학교 서포터즈 등을 통해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32>는 경상남도의 다양한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3-2-32〉 경상남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지원정책	내용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 신중년 채용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노동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며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한다.
신중년 50+ 커리어컨설팅	○ 신중년 직업상담 컨설턴트를 통해 동년배 퇴직자(예정자)의 생애재설계, 직업 상담·교육, 재취업을 지원하여 신중년층의 경제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중년 퇴직 및 전직 등 커리어 상담, 구인기업 발굴 및 취업 연계 컨설턴트를 권역별로 창원, 진주, 김해에 배치하고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한다.
중견예술인과 함께하는 ‘예술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 신중년 중견예술인을 활용하여 시군 문화예술 프로젝트(기록화, 디자인, 문화예술 교육 등)를 운영, 도시재생 활력을 증대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한다. (재)경남 문화예술진흥원이 위탁 운영한다.
신중년 사회적기업 금융컨설팅	○ 신중년 금융분야 전문경력자를 모집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현장에 컨설팅을 제공하며 사회적 경제기업에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신중년 금융분야 전문경력자의 사회적 경제기업 고용에 경로를 마련코자 함이며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한다.
신중년 사회적기업 컨설팅	○ 사회적 경제기업 경영 현장에 경영·마케팅·생산품 질관리 분야 신중년 경력자 컨설팅을 제공하여 경영역량 강화, 판로개척 등 기업환경 개선 및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을 제공한다. 권역별로 인력을 배치하는데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 나뉘며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한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 교육,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경력과 사회공헌의 열의를 가진 신중년을 모집하여 해당 분야 참여기관(방과후 학교 등)과 연계, 신중년의 원활한 사회공헌활동 지원하며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한다.
청소년 방과후 학교 서포터즈	○ 학교 안전지킴이 활동 종료(15:30)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교길 안전사고를 청소년 지도사, 교통안전지도사 등 신중년 경력자의 안전 사고예방 지도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하며 (사)YSC가 위탁 운영한다.

출처: 경상남도청 복지과(2021).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정책」.

17. 제주특별자치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및 지원정책

1) 제주특별자치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별 취업자는 2019년 기준 약 12만명으로 2006년 약 6만명 대비 6만명 정도 증가하였다. <표 3-2-33>은 구체적으로 제주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분포를 나타낸다.

〈표 3-2-33〉 제주특별자치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 2006~2019년
(단위: 천명)

시점	성별	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2006	합계	88	25	19	16	28
	남성	46	15	10	8	13
	여성	42	10	9	8	15
2007	합계	92	29	18	17	28
	남성	47	17	9	8	13
	여성	45	13	9	8	15
2008	합계	98	32	21	17	28
	남성	51	17	12	9	13
	여성	46	14	9	8	15
2009	합계	99	31	21	17	30
	남성	53	18	12	9	14
	여성	47	13	9	8	17
2010	합계	/	/	/	/	/
	남성	/	/	/	/	/
	여성	/	/	/	/	/
2011	합계	105	36	23	17	29
	남성	57	20	13	10	14
	여성	49	16	10	7	16
2012	합계	111	38	25	17	31
	남성	60	21	15	9	15
	여성	53	18	11	7	17
2013	합계	120	40	28	18	34
	남성	65	22	16	10	17
	여성	56	18	13	8	17
2014	합계	125	41	31	18	35
	남성	66	22	17	10	17
	여성	58	18	14	8	18
2015	합계	134	41	34	21	38
	남성	70	23	18	11	18
	여성	64	18	16	10	20
2016	합계	143	43	35	25	40
	남성	75	23	21	13	18
	여성	69	20	15	12	22
2017	합계	154	46	40	27	41
	남성	80	25	22	15	18
	여성	74	21	18	12	23
2018	합계	156	45	43	28	40
	남성	82	24	24	15	19
	여성	74	21	19	13	21
2019	합계	167	46	43	31	47
	남성	87	25	24	16	22
	여성	82	22	20	15	25

출처: 통계청(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별 기본통계」.

2) 제주특별자치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활용하여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34〉 제주특별자치도 준·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

지원정책	내용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 중장년 고용활성화 및 근로자 임금 지원을 위해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도내 만40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월 40만원씩 1년간 총 480만원의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청 복지과 2021. 12.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정책」

18. 지역별 50세 이상 준·고령자 취업자수

전체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4,512만 4천명 중에서 고령자 인구수는 1092만 7천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고령층 경제활동 인구수는 856만 3천명으로 19%에 해당한다. <표 3-2-35>는 앞에서 제시한 각 지역별 50세 이상 연령대별 취업자수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수, 50세 이상 연령층 경제활동인구수 등을 활용하여 5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대비 50세 이상 취업자 비율,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대비 50세 이상 취업자수 비율 등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3-2-35> 지역별 50세 이상 준·고령자 취업자수: 2019년 기준

(단위: 천명)

지역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수(A)	50세 이상 연령층 경제활동 인구수(B)	50세 이상 취업자수 (C)	5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대비 50세 이상 취업자 비율(%) C/B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대비 50세 이상 취업자수 비율(%) C/A
서울	5,335	1,977	1,877	94.9	35.1
부산	1,755	751	716	95.3	40.9
대구	1,261	551	523	94.9	41.4
인천	1,648	634	611	96.3	37
광주	783	311	302	97.1	38.5
대전	814	316	296	93.6	36.3
울산	595	236	228	96.6	38.3
세종 (2018년 기준)	159	46	43	93.4	27
경기도	7,270	2,753	2,665	96.8	36.6
강원도	864	440	406	92.2	46.9
충청북도	918	412	391	94.9	42.5
충청남도	1,259	562	521	92.7	41.3
전라북도	961	477	460	96.4	47.8
전라남도	1,014	539	523	97	51.5
경상북도	1,502	756	713	94.3	47.5
경상남도	1,821	812	769	94.7	42.2
제주특별자치도	395	179	167	93.2	42.2

출처: 각 지역별 데이터를 연구자가 재구성함

제4장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

제1절 분석 자료와 변수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의 관계가 연령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분석대상자를 연령대를 중심으로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할 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령화연구 패널조사(KLoSA) 7차년도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50세 이상 응답자 데이터이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향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사회경제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³⁾ 본 연구에서처럼 50세 이상 준·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는데에도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되었는데, 2006년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연령대 중에서 일반가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표집 및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6년부터 짝수 연도에는 동일한 조사 항목을 중심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7년부터 홀수 연도에는 특정 주제를 정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본조사에 포함되지 않

3)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1.jsp>)를 참고하기 바람.

은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까지 조사된 패널데이터 중에서 본 연구의 분석기준을 충족하는 데이터를 선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특히,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부터 제7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응답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응답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종속변수, 설명변수, 통제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각 변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이다. 이는 준·고령자가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대체로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그렇지 않은 실업자나 미취업자(비경제활동인구 포함)인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자로 분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인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경제활동인 상태로 정의한다.

두 번째는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성과이다. 이는 준·고령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성과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성과를 주관적 측면에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준·고령자의 현재 경제적 상황의 안정성이나 경제적 만족감 정도를 활용하고 있고(예. 한형수, 2004; 윤명숙, 2007; 주경희, 2011; 노유지 외, 2018; 도수관·박기묵, 2020), 객관적 측면에서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객관적 소득 수준을 측정한다(예. McLaughlin & Jersen, 1993; Knight et al., 2009; 홍백의, 2005; 김영주, 2008; 한석태, 2008; 정운영·정세은, 2011; 장명숙·박경숙,

2012; 전명숙·태명옥, 2016; 김학주, 2017, 노유지 외, 2018; 도수관·박기목,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주관적 측면에서의 경제활동 성과는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로 측정하고, 객관적 측면에서의 경제활동 성과는 연간 개인 총소득액 변수를 활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설명변수는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이다. 개인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을 측정한 많은 선행연구들(예. Knack & Keefer, 1997; Dakhli & de Clercq, 2004; Beugelsdijk & van Schaik, 2005; Doh & Acs, 2010; 도수관, 2012; 강경란, 2018; 도수관·박기목, 2020)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개념을 활용하여 개인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만남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타인 또는 친구의 존재 유무나 혹은 그러한 타인(친구)과의 만남의 빈도, 개인의 사회단체 참여 활동 수준 등을 통해 측정을 하였다. 특히, 다양한 사회단체에 개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을 측정한 연구들(예. Beugelsdijk & van Schaik, 2005; Doh & McNeely, 2012; 도수관, 2012; 도수관·박기목, 2020)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 획득의 한계로 인해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 측정은 만남을 유지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와 얼마나 자주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즉,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준·고령자들이 얼마나 자주 친구를 만나고 있는지를 측정한 문항이 있는데, 이 문항을 활용하면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단체에 준·고령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을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본 연구의 한계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활용된 준·고령자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 여부), 자녀수,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 결혼 여부, 종교 유무, 배우자 취업 여부 등이다. 이와 같은 특성 변수들은 선행연구들(예. McLaughlin & Jersen, 1993; 최현수·류연규, 2003; 홍백의, 2005; 박능후·송미영, 2006; 최옥금, 2007; 김영주, 2008; 최점숙, 2009; 손병돈, 2010; 이용우·이미진, 2014; 이상봉, 2016; 노유지 외, 2018; 도수관·박기묵, 2020)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성별(예. 강이수 외, 2001; 김학주, 2004; 황성우, 2014; 강철희 외, 2015), 연령(예. 김학주·우경숙, 2004; 성지미·안주엽, 2006; 방하남, 2010; 양지원 외, 2016), 배우자 취업 여부(예. 박경숙, 2003; 김은심, 2020; 성지미·안주엽, 2006; 유길상, 2004), 교육수준(Schultz, 1961; Becker, 1967; Mincer, 1974; Jiang et al., 2012; 유길상, 2004; 장창원, 2004; 윤형호·김성준, 2007; 이성용, 2007; 라진구, 2009; 류형택, 2010; 한종국, 2015; 김문수, 2016; 신연하, 2018), 자녀수(김교성·류만희, 2000; 박경숙, 2003; 남기성 외, 2014; 이정숙, 2014), 주관적 건강상태(예. 유주희, 2013) 등과 같은 요인들은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그에 따른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분석모형에 포함하고자 한다.

2. 변수 정의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각 변수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변수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개인 총소득 그리고 경제적 만족도로 구분하였다.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근로자, 자영업자)와 그렇지

지 않은 경우(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준·고령자의 개인 총소득은 응답자 개인의 연간 총소득(단위: 만원)의 원래 값과 자연로그값을 활용하였으며, 경제적 만족도는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수준을 측정한 값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설명변수에 해당하는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은 친구관계 개념을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친구관계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서부터 일주일에 4회 이상 거의 매일 만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그 만남의 빈번함 정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 여부), 자녀수,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 결혼 여부, 종교 유무, 배우자 취업 여부 등을 활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각 변수의 정의와 측정값에 대한 설명은 <표 4-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1〉 변수 정의

변수명		변수 정의		
종속 변수	경제 활동	경제활동 여부	1=경제활동을 하고 있음(근로자, 자영업자) 0=기타(실업자, 미취업(비경제활동인구))	
		개인 총소득	응답자 개인의 연간 총소득(단위: 만원)의 자연로그값	
		경제적 만족도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 (0 ~ 100)	
설 명 변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친구관계	0=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 1=일년에 거의 볼 수 없음 2=일년에 한두번 정도 3=일년에 서너번 정도(3-4개월에 1번 정도) 4=일년에 대여섯번 정도(2개월에 1번 정도) 5=한달에 한번 정도 6=한달에 두 번 정도(2주에 한번 정도) 7=일주일에 한번 정도 8=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9=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통 제 변 수	성별		1=남성; 0=여성	
	연령		응답자 연령	
	연령제공		응답자 연령의 제공값	
	거주지역		1=서울/경기/인천 지역 거주; 0=기타 지역 거주	
	자녀수		응답자의 현재 생존 자녀수(명)	
	주관적 건강상태		1=매우 나쁨; 2=나쁜 편임; 3=보통; 4=좋은 편임; 5=매우 좋음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1=초등학교 졸업 이하; 0=기타
			중학교 졸업	1=중학교 졸업; 0=기타
			고등학교 졸업	1=고등학교 졸업; 0=기타
			대학교 졸업 이상	1=대학교 졸업 이상; 0=기타
결혼		1=현재 혼인중임; 0=기타		
종교 유무		1=종교 있음; 0=종교 없음		
배우자 취업		1=배우자 취업함; 0=기타		

제2절 분석방법

1. 경제활동 여부에 관한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때문에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측정변수에 따라 두 가지 분석모형을 활용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첫 번째 종속변수는 준·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이기 때문에 0과 1로 측정된 변수가 종속변수로 활용된다. 이 경우에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법(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한다. 준·고령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설명변수인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 변수의 추정계수 값은 분석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이 모두 통제된 상황에서 준·고령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확률에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를 구체적인 수식으로 나타내보면 다음의 수식 (1)과 같다.

$$\ln[P_i/(1-P_i)] = \beta_0 + \beta_1 SN_i + \sum_{j=1}^n \beta_j X_{ji} + \varepsilon \quad \text{수식 (1)}$$

수식 (1)에서, $P(Y_i = 1, X_i)$ 는 준·고령자 i 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확률(근로자, 자영업자일 확률) 의미한다. 이때 준·고령자 i 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종속변수가 1, 그렇지 않을 때는 0의 값을 갖는다. β_1 는 분석모형에 포함된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 측정변수의 추정계수값을 의미하며, β_j 는 분석모형에 포함된 다양한 통제변수들의 계수값들을 나

타내는 벡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SN_i 는 개별 준·고령자 i 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X_{ji} 는 분석모형에 포함된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나타내는 벡터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 여부), 자녀수,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 결혼 여부, 종교 유무, 배우자 취업 여부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ε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2. 연간 개인 총소득과 경제적 만족도에 관한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 여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그들의 연간 개인 총소득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그들의 경제적 만족도의 관계를 객관적 소득 수준과 주관적 소득 수준 측면에서 각각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종속 변수로 연간 개인 총소득과 경제적 만족도 변수가 활용될 경우에는 연속형 또는 서열형 변수로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OLS 회귀분석기법(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한다. 물론, 서열형 변수가 종속변수인 경우에 OLS 회귀분석기법을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종종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준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OLS 회귀분석 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내보면 다음의 수식 (2), 수식 (3)과 같다.

$$AI = \beta'_0 + \beta'_1 SN_i + \sum_{j=1}^n \beta'_j X_{ji} + \varepsilon' \quad \text{수식 (2)}$$

$$ES = \beta''_0 + \beta''_1 SN_i + \sum_{j=1}^n \beta''_j X_{ji} + \varepsilon'' \quad \text{수식 (3)}$$

수식 (2)에서 A_i 는 준·고령자 i 가 느끼는 연간 개인 총소득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연간 개인 총소득(만원) 값과 연간 총소득(만원)의 자연로그값을 계산하여 각각 변수로 활용한다. β'_1 는 분석모형에 포함된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 측정변수들의 추정계수값을 의미하며, β'_j 는 분석모형에 포함된 다양한 통제변수들의 계수값들을 나타내는 벡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SN_i 은 개별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을 나타낸다. X_{ji} 는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 벡터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여부, 성별, 연령,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 여부), 자녀수,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 결혼 여부, 종교유무, 배우자 취업 여부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ε_i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수식 (3)에서 ES_i 는 준·고령자 i 가 느끼는 경제적 만족도를 의미하며, β''_1 는 분석모형에 포함된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 측정변수의 추정계수값을 의미하며, β''_j 는 분석모형에 포함된 다양한 통제변수들의 계수값들을 나타내는 벡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SN_i 은 개별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을 나타낸다. X_{ji} 는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 벡터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경제활동 여부, 성별, 연령,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 여부), 자녀수,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 결혼 여부, 종교유무, 배우자 취업 여부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ε_i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 여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그들의 연간 개인 총소득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그들의 경제적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ooled OLS 회귀분석기법뿐만 아니라 패널회귀분석기법도 활용한다.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활용한 패널회

귀분석의 경우에는 패널 프로빗분석과 패널 로짓분석을 실시하며, 준·고령자의 연간 개인 총소득과 경제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의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활용한다. 각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수식 (1), 수식 (2), 수식 (3)에 활용된 변수들과 동일하다.

제5장 분석결과와 논의

제1절 기술통계분석

1. 인적 특성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에서 7차례에 걸쳐 조사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한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표본에 대한 유지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5-1-1>은 이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의 연차별 측정 결과를 요약한 결과이다.

<표 5-1-1> 데이터의 연차별 측정결과

(단위: 명, %)

구분	조사횟수							합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2006년	1,261 (12.3)	767 (7.5)	644 (6.3)	548 (5.3)	578 (5.6)	870 (8.5)	5,586 (54.5)	10,254 (100.0)
2008년		697 (8.0)	592 (6.8)	506 (5.8)	523 (6.0)	784 (9.0)	5,586 (64.3)	8,688 (100.0)
2010년		26 (0.3)	556 (7.0)	492 (6.2)	492 (6.2)	768 (9.7)	5,586 (70.5)	7,920 (100.0)
2012년		13 (0.2)	63 (0.8)	478 (6.4)	533 (7.1)	813 (10.9)	5,586 (74.6)	7,486 (100.0)
2014년		3 (0.0)	10 (0.1)	71 (1.0)	539 (7.7)	820 (11.7)	5,586 (79.5)	7,029 (100.0)
2016년			31 (0.5)	49 (0.7)	122 (1.8)	830 (12.5)	5,586 (84.4)	6,618 (100.0)
2018년		28 (0.5)	36 (0.6)	48 (0.8)	103 (1.7)	335 (5.5)	5,586 (91.0)	6,136 (100.0)
합계	1,261 (2.3)	1,534 (2.8)	1,932 (3.6)	2,192 (4.0)	2,890 (5.3)	5,220 (9.6)	39,102 (72.2)	54,131 (100.0)

<표 5-1-1>을 살펴보면, 2006년~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된 패널조사의 전체 표본 수는 54,131명이다. 이를 연차별로 살펴보면, 조사 첫해인 2006년이 10,254명으로 가장 많고, 2018년이 가장 적은 6,136명이다. 그리고 연차에 따라 표본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패널조사가 동일한 조사 대상을 추적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즉, 1차 조사 이후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진 경우가 포함될 수 있으며, 사망 등에 따라 표본에서 제외된 경우도 존재한다. 다만, 1차 조사 이후 7차 조사에 이르기까지 7차례 모두 조사에 응한 표본의 수는 200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약 54.5%(5,586명)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표본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⁴⁾

4) 물론, 패널 유지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준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학계의 동의는 이뤄진 바 없다. 다만, 이 조사의 대상이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50% 이상의 표본 유지는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으로 판단한다.

〈표 5-1-2〉 응답자의 성별

(단위: 명, %)

구분	전체표본			7회 유지 표본		
	여성	남성	합계	여성	남성	합계
2006	5,791 (56.5)	4,463 (43.5)	10,254 (100.0)	3,249 (58.2)	2,337 (41.8)	5,586 (100.0)
2008	4,922 (56.7)	3,766 (43.3)	8,688 (100.0)	3,249 (58.2)	2,337 (41.8)	5,586 (100.0)
2010	4,509 (56.9)	3,411 (43.1)	7,920 (100.0)	3,249 (58.2)	2,337 (41.8)	5,586 (100.0)
2012	4,271 (57.1)	3,215 (42.9)	7,486 (100.0)	3,249 (58.2)	2,337 (41.8)	5,586 (100.0)
2014	4,042 (57.5)	2,987 (42.5)	7,029 (100.0)	3,249 (58.2)	2,337 (41.8)	5,586 (100.0)
2016	3,837 (58.0)	2,781 (42.0)	6,618 (100.0)	3,249 (58.2)	2,337 (41.8)	5,586 (100.0)
2018	3,570 (58.2)	2,566 (41.8)	6,136 (100.0)	3,249 (58.2)	2,337 (41.8)	5,586 (100.0)
합계	30,942 (57.2)	23,189 (42.8)	54,131 (100.0)	22,743 (58.2)	16,359 (41.8)	39,102 (100.0)

〈표 5-1-2〉는 응답자의 기본 속성 가운데 성별에 대한 정보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차별 표본 탈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응답자의 기본속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응답자 기본속성 중의 하나인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대체로 전체 표본과 7회 모두 응답한 표본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회 조사인 2006년의 경우, 전체 표본에서 여성 비율은 56.5%인데 비해, 7회 모두 조사된 표본에서의 여성 비율은 58.2%로 두 시점에 대한 조사에서 약 1.7%p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확인된다. 이와 비교할 때, 마지막 조사시점인 2018년 조사에서 전체 표본의 여성비율은 57.2%, 7회 모두 조사된 표본의 여성 비율은 58.2%로 두 표본 집단 간 차이는 1%p로 약 0.7%p의 차이를 보인다.

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고령화패널데이터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사망’을 이유로 발생한 표본 이탈율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크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한다.⁵⁾ 따라서 표본의 성별에 있어 전체 표본과 7회 모두 유지된 표본 간의 차이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3〉 응답자의 평균 연령

(단위: 명, %)

조사년도	전체표본		7회 유지 표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006	61.71	11.12	59.33	9.26
2008	63.65	10.91	61.33	9.26
2010	65.27	10.55	63.33	9.26
2012	66.80	10.22	65.33	9.26
2014	68.29	9.91	67.33	9.26
2016	69.81	9.61	69.33	9.26
2018	71.21	9.30	71.33	9.26
Total	66.17	10.83	65.33	10.08

〈표 5-1-3〉은 분석 표본의 평균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표본의 평균 연령은 66.7세, 7회 모두를 유지한 표본에서의 평균 연령은 65.33세이다. 이때, 7회 유지 표본의 연도별 차이가 모두 2년인 것은 조사시점(매 2년)이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사유는 없다.

5) 물론, 조사시점에서 이주 등을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주’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인한 표본 이탈율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차이를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유는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

<표 5-1-4> 응답자의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전체 표본	2006	1,789 (17.4)	2,916 (28.4)	2,894 (28.2)	1,996 (19.5)	659 (6.4)	10,254 (100.0)
	2008	882 (10.2)	2,590 (29.8)	2,477 (28.5)	1,999 (23.0)	740 (8.5)	8,688 (100.0)
	2010	271 (3.4)	2,455 (31.0)	2,354 (29.7)	2,013 (25.4)	827 (10.4)	7,920 (100.0)
	2012		2,197 (29.3)	2,242 (29.9)	2,120 (28.3)	927 (12.4)	7,486 (100.0)
	2014		1,698 (24.2)	2,206 (31.4)	2,093 (29.8)	1,032 (14.7)	7,029 (100.0)
	2016		1,182 (17.9)	2,203 (33.3)	2,062 (31.2)	1,171 (17.7)	6,618 (100.0)
	2018		690 (11.2)	2,156 (35.1)	1,993 (32.5)	1,297 (21.1)	6,136 (100.0)
	Total	2,942 (5.4)	13,728 (25.4)	16,532 (30.5)	14,276 (26.4)	6,653 (12.3)	54,131 (100.0)
7회 유지 표본	2006	1,012 (18.1)	1,921 (34.4)	1,787 (32.0)	790 (14.1)	76 (1.4)	5,586 (100.0)
	2008	609 (10.9)	1,947 (34.9)	1,834 (32.8)	1,042 (18.7)	154 (2.8)	5,586 (100.0)
	2010	205 (3.7)	1,949 (34.9)	1,896 (33.9)	1,260 (22.6)	276 (4.9)	5,586 (100.0)
	2012		1,784 (31.9)	1,867 (33.4)	1,530 (27.4)	405 (7.3)	5,586 (100.0)
	2014		1,410 (25.2)	1,897 (34.0)	1,685 (30.2)	594 (10.6)	5,586 (100.0)
	2016		1,012 (18.1)	1,921 (34.4)	1,787 (32.0)	866 (15.5)	5,586 (100.0)
	2018		609 (10.9)	1,947 (34.9)	1,834 (32.8)	1,196 (21.4)	5,586 (100.0)
	합계	1,826 (4.7)	10,632 (27.2)	13,149 (33.6)	9,928 (25.4)	3,567 (9.1)	39,102 (100.0)

<표 5-1-4>는 분석 표본을 연령대로 구분한 결과이다. 이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과 7회 모두를 유지한 표본 모두에서 6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표본에서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5%이며, 7회 모두 유지된 표본에서 60대의 비중은 33.6%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7회 모두 유지된 표본에서 2006년의 관측값은 최초 측정된 표본의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를 살펴보면, 2006년 표본에서는 50대가 가장 많은 3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다음으로 60대가 32.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연령대를 감안하면, 7회 모두 응답한 표본에서 50대와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6.4%에 해당함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측면을 주요 변수로 다루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될 표본에 포함된 응답자의 상당한 비중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준·고령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는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그들의 경제활동의 관계 규명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표 5-1-5>는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정리한 결과표이다. 응답자의 지역 분포는 일반적인 인구분포를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전체 표본과 7년 유지 표본 모두에서 서울지역 거주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7회 유지 표본의 경우, 연도별 지역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전체 표본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지역변화가 연도별로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분석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5> 응답자의 거주지역

(단위: 명)

구분	시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합계
전체 표본	서울	1,767	1,372	1,172	1,109	1,014	904	852	8,190
	부산	743	648	601	560	537	515	477	4,081
	대구	562	497	471	436	395	360	346	3,067
	인천	556	408	376	334	299	282	253	2,508
	광주	401	362	347	325	295	279	250	2,259
	대전	390	340	296	285	279	263	228	2,081
	울산	318	266	255	244	230	212	192	1,717
	세종	0	0	0	0	19	17	20	56
	경기	1,935	1,570	1,352	1,299	1,239	1,186	1,108	9,689
	강원	391	337	325	327	307	298	287	2,272
	충북	392	363	336	301	274	263	241	2,170
	충남	556	521	484	459	423	414	377	3,234
	전북	485	447	420	394	375	348	322	2,791
	전남	480	434	417	393	375	354	317	2,770
	경북	602	531	496	475	450	424	399	3,377
경남	676	592	572	545	518	499	467	3,869	
	합계	10,254	8,688	7,920	7,486	7,029	6,618	6,136	54,131
7회 유지 표본	서울	785	782	774	763	751	742	736	5,333
	부산	477	474	468	458	456	457	454	3,244
	대구	323	323	321	319	317	311	309	2,223
	인천	210	208	207	205	205	215	214	1,464
	광주	246	247	245	238	232	234	233	1,675
	대전	225	225	226	225	225	223	216	1,565
	울산	187	187	186	187	185	183	181	1,296
	세종	0	0	0	0	15	16	19	50
	경기	915	916	923	934	945	944	947	6,524
	강원	245	246	246	252	252	252	257	1,750
	충북	229	228	229	229	231	232	233	1,611
	충남	355	358	362	362	349	353	356	2,495
	전북	311	312	312	310	310	308	308	2,171
	전남	283	283	284	293	299	300	302	2,044
	경북	367	367	367	366	367	368	370	2,572
경남	428	430	436	445	447	448	451	3,085	
	합계	5,586	5,586	5,586	5,586	5,586	5,586	5,586	39,102

〈표 5-1-6〉 응답자의 교육수준

(단위: 명, %)

구분	연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합계
전체 표본	2006	4,791 (46.7)	1,660 (16.2)	2,718 (26.5)	1,082 (10.6)	10,251 (100.0)
	2008	4,099 (47.2)	1,401 (16.1)	2,317 (26.7)	871 (10.0)	8,688 (100.0)
	2010	3,693 (46.6)	1,331 (16.8)	2,116 (26.7)	780 (9.8)	7,920 (100.0)
	2012	3,425 (45.8)	1,259 (16.8)	2,034 (27.2)	768 (10.3)	7,486 (100.0)
	2014	3,160 (45.0)	1,190 (16.9)	1,955 (27.8)	724 (10.3)	7,029 (100.0)
	2016	2,907 (43.9)	1,144 (17.3)	1,879 (28.4)	688 (10.4)	6,618 (100.0)
	2018	2,622 (42.7)	1,086 (17.7)	1,793 (29.2)	635 (10.3)	6,136 (100.0)
	합계	24,697 (45.6)	9,071 (16.8)	14,812 (27.4)	5,548 (10.2)	54,128 (100.0)
7회 유지 표본	2006	2,414 (43.2)	986 (17.7)	1,619 (29.0)	567 (10.2)	5,586 (100.0)
	2008	2,414 (43.2)	986 (17.7)	1,619 (29.0)	567 (10.2)	5,586 (100.0)
	2010	2,414 (43.2)	986 (17.7)	1,619 (29.0)	567 (10.2)	5,586 (100.0)
	2012	2,414 (43.2)	986 (17.7)	1,619 (29.0)	567 (10.2)	5,586 (100.0)
	2014	2,414 (43.2)	986 (17.7)	1,619 (29.0)	567 (10.2)	5,586 (100.0)
	2016	2,414 (43.2)	986 (17.7)	1,619 (29.0)	567 (10.2)	5,586 (100.0)
	2018	2,414 (43.2)	986 (17.7)	1,619 (29.0)	567 (10.2)	5,586 (100.0)
	합계	16,898 (43.2)	6,902 (17.7)	11,333 (29.0)	3,969 (10.2)	39,102 (100.0)

<표 5-1-6>은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이를 살펴보면, 전체표본과 7회 유지 표본 모두에서 초등학교 졸업자가 각각 45.6%, 43.2%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고졸 이상(고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표본은 전체 표본의 경우 37.6%, 7회 유지 표본의 경우 39.2%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 연구의 측정데이터가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태어난 세대들의 경우,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측이 된다.⁶⁾ 또한, 전체 표본과 7회 유지 표본의 교육수준 분포비율의 차이는 분석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7> 응답자의 가구주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체표본		7회 유지 표본	
	표본수	퍼센트	표본수	퍼센트
예	11,393	57.59	9,535	56.9
아니오	8,390	42.41	7,223	43.1
합계	19,783	100	16,758	100

6) 이는 연령대별 교육수준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1회차 측정(2006년)을 기준으로 측정대상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받은 사람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다음은 연령대별 교육수준을 정리한 결과이다(2006년 표본 대상)

구분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Total
초등학교 졸업 이하	182	866	1,692	1,474	577	4,791
중학교 졸업	304	675	455	200	26	1,660
고등학교 졸업	906	1,031	538	211	32	2,718
대학교 졸업 이상	396	342	209	111	24	1,082
Total	1,788	2,914	2,894	1,996	659	10,251

<표 5-1-7>은 응답자가 가구주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가구주 여부는 ‘책임감’의 관점에서 적극적 경제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이므로, 분석과정에서의 통제가 필요한 변수임에 분명하다. 다만,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가 전체 표본에서는 57.59%, 7회 유지 표본에서는 56.9%로 절반을 상회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변수의 경우 결측치가 50% 이상으로 높아 분석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에 관련 조사문항 중에서 배우자의 취업 여부 변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표 5-1-8> 배우자의 고용상태

(단위: 명, %)

구분	전체 표본	7회 유지 표본
미취업	37,046(68.4)	25,417(65.0)
취업	17,085(31.6)	13,685(35.0)
합계	54,131(100.0)	39,102(100.0)

<표 5-1-8>은 배우자의 고용상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체 표본의 경우 응답자의 31.6%는 배우자가 취업상태에 있으며, 7회 유지 표본의 경우에는 35.0%의 응답자가 배우자 취업상태에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자녀수 역시 응답자의 경제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표 5-1-9>는 응답자의 현재 생존 자녀의 수를 정리한 결과이다.

<표 5-1-9> 응답자의 현재 생존 자녀 수

(단위: 명, %)

자녀 수	전체표본	7회 유지 표본	7회 유지 표본의 2018년
0명	1,737(3.2)	1,266(3.2)	510(9.1)
1명	3,784(7.0)	2,619(6.7)	355(6.4)
2명	18,988(35.1)	14,554(37.2)	1,931(34.6)
3명	13,812(25.5)	10,264(26.3)	1,367(24.5)
4명	7,655(14.1)	5,348(13.7)	732(13.1)
5명	4,606(8.5)	2,961(7.6)	410(7.3)
6명	2,220(4.1)	1,343(3.4)	184(3.3)
7명	955(1.8)	522(1.3)	68(1.2)
8명	296(0.6)	183(0.5)	23(0.4)
9명	70(0.1)	42(0.1)	6(0.1)
10명 이상	8(0.0)		
합계	54,131(100.0)	39,102(100.0)	5,586(100.0)

<표 5-1-9>에 따르면, 두 표본집단 모두에서 96.8% 이상의 응답자가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표본과 7회 유지 표본 간 차이는 일부 존재하나, 분석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데이터는 7회에 걸친 응답결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기간 동안 자녀수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최근 조사일수록 자녀수가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마지막 조사시점인 7회 유지 표본의 2018년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7회 유지 표본의 2018년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90.9%는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건강 관련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은 준·고령자에 해당하며, 모두 50세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응답자의 상당수는 건강문제로 인해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관련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실증분석에 활용할 변수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10〉 응답자 건강상태

(단위: 명, %)

구분	전체표본	7회 유지 표본
매우 나쁨	3,321(6.1)	1,614(4.1)
나쁜 편	12,830(23.7)	8,493(21.7)
보통	21,144(39.1)	16,216(41.5)
좋은 편	15,722(29.0)	11,977(30.6)
매우 좋음	1,114(2.1)	802(2.1)
Total	54,131(100.0)	39,102(100.0)

우선 〈표 5-1-10〉에서 응답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과 7회 유지 표본 사이에 큰 폭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례 수는 전체표본에서는 70.2%, 7회 유지 표본에서는 74.2%로 약 4.0%p 높은 것이 확인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건강상태는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연령대별 건강상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5-1-11〉은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연령대별 건강상태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

<표 5-1-11> 연령대별 건강상태 인식

(단위: 명, %)

구분	건강상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전체 표본	매우나쁨	46 (1.6)	264 (1.9)	707 (4.3)	1,248 (8.7)	1,056 (15.9)	3,321 (6.1)
	나쁜편	218 (7.4)	1,584 (11.5)	3,535 (21.4)	4,798 (33.6)	2,695 (40.5)	12,830 (23.7)
	보통	805 (27.4)	4,953 (36.1)	7,199 (43.5)	5,918 (41.5)	2,269 (34.1)	21,144 (39.1)
	좋은편	1,662 (56.5)	6,429 (46.8)	4,830 (29.2)	2,205 (15.4)	596 (9.0)	15,722 (29.0)
	매우 좋음	211 (7.2)	498 (3.6)	261 (1.6)	107 (0.7)	37 (0.6)	1,114 (2.1)
	Total	2,942 (100.0)	13,728 (100.0)	16,532 (100.0)	14,276 (100.0)	6,653 (100.0)	54,131 (100.0)
	보통이상	2,678 (91.0)	11,880 (86.5)	12,290 (74.3)	8,230 (57.6)	29.2 (43.6)	37,980 (70.2)
7회 유지 표본	매우나쁨	29 (1.6)	149 (1.4)	413 (3.1)	607 (6.1)	416 (11.7)	1,614 (4.1)
	나쁜편	140 (7.7)	1,181 (11.1)	2,663 (20.3)	3,141 (31.6)	1,368 (38.4)	8,493 (21.7)
	보통	510 (27.9)	3,932 (37.0)	5,893 (44.8)	4,484 (45.2)	1,397 (39.2)	16,216 (41.5)
	좋은편	1,017 (55.7)	4,999 (47.0)	3,970 (30.2)	1,623 (16.3)	368 (10.3)	11,977 (30.6)
	매우 좋음	130 (7.1)	371 (3.5)	210 (1.6)	73 (0.7)	18 (0.5)	802 (2.1)
	Total	1,826 (100.0)	10,632 (100.0)	13,149 (100.0)	9,928 (100.0)	3,567 (100.0)	39,102 (100.0)
	보통이상	1,657 (90.7)	9,302 (87.5)	10,073 (76.6)	6,180 (62.2)	1,783 (50.0)	28,995 (74.2)

응답자를 연령대를 기준으로 구분한 후 건강상태를 검토한 <표 5-1-11>을 살펴보면, 전체표본과 7회 유지 표본 모두에서 연령은 건강상태와 유의미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⁷⁾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보통’ 이상의 인식을 갖고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건강에 대한 인지도에 일부 차이도 확인되고 있다. 건강상태에 대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표본에서는 70.4%인데 비해, 7회 유지 표본에서는 74.2%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표본 간의 차이는 약 3.8%p 수준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연령대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도 확인된다. 예컨대, 40대의 경우 두 표본 간 평균 차이가 약 0.3%p이고 전체 표본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80대 이상의 경우 표본 간 차이가 약 6.4%p 수준이며, 7회 유지 표본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⁸⁾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몇 개의 질문들이 추가적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응답자의 장애판정 여부와 만성질환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5-1-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교차분석에 따른 Pearson chi-square값은 전체 표본의 경우 9.5e+03(Pr = 0.000), 7회 유지표본의 경우 5.6e+03(Pr = 0.000) 임.

8)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장기간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 차이가 존재함도 유사한 사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건강상태 인지에 대하여, 7회 유지 응답자 표본과 6회 이하 응답자에 대한 평균 차이 분석(독립표본 t-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Group	표본수(명)	Mean	Std. Err.	Std. Dev.	t-value
6회 이하 표본	15,029	2.7750	0.0083	1.0122	30.9992 (p 값: 0.0000)
7회 유지 표본	39,102	3.0476	0.0044	0.8766	
combined	54,131	2.9719	0.0040	0.9243	
차이		-0.2726	0.0088		

〈표 5-1-12〉 응답자 건강상태: 장애판정 여부 및 만성질환 여부

(단위: 명, %)

문항	구분	전체표본	7회 유지 표본
장애판정 여부	없음	49,629(97.9)	36159(98.6)
	있음	1,050(2.1)	520(1.4)
	전체	50,679(100.0)	36,679(100.0)
만성질환 여부	없음	19,249(40.1)	13,859(41.4)
	있음	28,746(59.9)	19,657(58.7)
	전체	47995(100.0)	33,516(100.0)

〈표 5-1-12〉에서 응답자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장애판정 여부와 만성질환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 표본과 7회 유지 표본 간 특별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장애판정 여부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장애판정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표본 모두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⁹⁾

3. 사회 네트워크 활동 관련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명변수는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 네트워크 활동을 사람들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으며,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이를 몇 가지 문항으로 조사하고 있다. 우선,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단체활동 참여와 관련해서는 종교 모임, 친목모임, 여가활동(문화/

9)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나, 만성질환 여부와 연령의 관계는 앞서 〈표 5-1-10〉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스포츠 등), 동창회, 자원봉사, 단체 활동(정당,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사회단체 참여 활동에 대한 응답에는 결측값들이 너무 많아 분석에 활용할 수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네트워크 활동을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로 측정하여 설명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¹⁰⁾

〈표 5-1-13〉 응답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단위: 명, %)

구분	전체표본	7회 유지 표본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	4,443(8.2)	2,549(6.5)
일년에 거의 볼 수 없음	432(0.8)	184(0.5)
일년에 한두 번 정도	1,307(2.4)	916(2.3)
일년에 서너 번 정도	1,634(3.0)	1,284(3.3)
일년에 대여섯 번 정도	1,179(2.2)	903(2.3)
한달에 한 번 정도	7,817(14.4)	5,804(14.8)
한달에 두 번 정도	3,123(5.8)	2,371(6.1)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1,635(21.5)	8,594(22.0)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7,723(14.3)	5,748(14.7)
거의 매일(주 4회 이상)	14,838(27.4)	10,749(27.5)
합계	54,131(100.0)	39,102(100.0)

〈표 5-1-13〉은 응답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을 전체표본과 7회 유지 표본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체표본과 7회 유지 표본에 있어 항목 간 큰 폭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응답자의 27.4%는 다른 사람들과 활발

10) 실증분석 과정에서 다른 측정문항들의 경우 결측치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정보의 손실이 많아 분석에 활용하는 실익이 없다.

한 사회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체의 약 16.6% 응답자는 일년에 대여섯 번 이하의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 5-1-14>에 성별과 사회 네트워크 활동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5-1-14> 응답자의 성별과 사회 네트워크 활동 교차분석

(단위: 명, %)

구분	전체			7회		
	여성	남성	합계	여성	남성	합계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	2,468 (8.0)	1,975 (8.5)	4,443 (8.2)	1,472 (6.5)	1,077 (6.6)	2,549 (6.5)
일년에 거의 볼 수 없음	235 (0.8)	197 (0.8)	432 (0.8)	106 (0.5)	78 (0.5)	184 (0.5)
일년에 한두번 정도	715 (2.3)	592 (2.6)	1,307 (2.4)	524 (2.3)	392 (2.4)	916 (2.3)
일년에 서너번 정도	905 (2.9)	729 (3.1)	1,634 (3.0)	742 (3.3)	542 (3.3)	1,284 (3.3)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	651 (2.1)	528 (2.3)	1,179 (2.2)	520 (2.3)	383 (2.3)	903 (2.3)
한달에 한 번 정도	3,845 (12.4)	3,972 (17.1)	7,817 (14.4)	2,878 (12.7)	2,926 (17.9)	5,804 (14.8)
한달에 두 번 정도	1,465 (4.7)	1,658 (7.1)	3,123 (5.8)	1,130 (5.0)	1,241 (7.6)	2,371 (6.1)
일주일에 한 번 정도	6,753 (21.8)	4,882 (21.1)	11,635 (21.5)	5,058 (22.2)	3,536 (21.6)	8,594 (22.0)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	4,656 (15.0)	3,067 (13.2)	7,723 (14.3)	3,492 (15.4)	2,256 (13.8)	5,748 (14.7)
거의 매일	9,249 (29.9)	5,589 (24.1)	14,838 (27.4)	6,821 (30.0)	3,928 (24.0)	10,749 (27.5)
합계	30,942 (100.0)	23,189 (100.0)	54,131 (100.0)	22,743 (100.0)	16,359 (100.0)	39,102 (100.0)
Pearson χ^2	546.8***			425.0***		

*** $p < 0.000$

<표 5-1-14>에 따르면, 두 표본집단에 대한 분석 모두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네트워크 활동이 상대적으로 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표 5-1-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대에 따른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5>는 연령대에 따른 응답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을 정리한 교차분석 결과인데, 대체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약 60% 정도 수준으로 70대가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표 5-1-15> 응답자의 연령대와 사회 네트워크 활동 교차분석

(단위: 명, %)

구분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전체 표본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	196 (6.7)	718 (5.2)	990 (6.0)	1,349 (9.4)	1,190 (17.9)	4,443 (8.2)
	일년에 거의 볼 수 없음	10 (0.3)	57 (0.4)	85 (0.5)	132 (0.9)	148 (2.2)	432 (0.8)
	일년에 한두번 정도	83 (2.8)	323 (2.4)	396 (2.4)	347 (2.4)	158 (2.4)	1,307 (2.4)
	일년에 서너번 정도	84 (2.9)	436 (3.2)	542 (3.3)	402 (2.8)	170 (2.6)	1,634 (3.0)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	59 (2.0)	306 (2.2)	387 (2.3)	298 (2.1)	129 (1.9)	1,179 (2.2)
	한달에 한 번 정도	508 (17.3)	2,406 (17.5)	2,708 (16.4)	1,625 (11.4)	570 (8.6)	7,817 (14.4)
	한달에 두 번 정도	176 (6.0)	951 (6.9)	1,094 (6.6)	674 (4.7)	228 (3.4)	3,123 (5.8)
	일주일에 한 번 정도	570 (19.4)	3,220 (23.5)	3,613 (21.9)	2,951 (20.7)	1,281 (19.3)	11,635 (21.5)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	418 (14.2)	1,908 (13.9)	2,452 (14.8)	2,125 (14.9)	820 (12.3)	7,723 (14.3)
	거의 매일	838 (28.5)	3,403 (24.8)	4,265 (25.8)	4,373 (30.6)	1,959 (29.4)	14,838 (27.4)
	Total	2,942 (100.0)	13,728 (100.0)	16,532 (100.0)	14,276 (100.0)	6,653 (100.0)	54,131 (100.0)
7회 유지 표본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	107 (5.9)	425 (4.0)	672 (5.1)	781 (7.9)	564 (15.8)	2,549 (6.5)
	일년에 거의 볼 수 없음	6 (0.3)	35 (0.3)	38 (0.3)	55 (0.6)	50 (1.4)	184 (0.5)
	일년에 한두번 정도	53 (2.9)	247 (2.3)	309 (2.3)	235 (2.4)	72 (2.0)	916 (2.3)
	일년에 서너번 정도	58 (3.2)	358 (3.4)	458 (3.5)	304 (3.1)	106 (3.0)	1,284 (3.3)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	27 (1.5)	233 (2.2)	320 (2.4)	244 (2.5)	79 (2.2)	903 (2.3)
	한달에 한 번 정도	306 (16.8)	1,864 (17.5)	2,184 (16.6)	1,127 (11.4)	323 (9.1)	5,804 (14.8)
	한달에 두 번 정도	98 (5.4)	734 (6.9)	890 (6.8)	517 (5.2)	132 (3.7)	2,371 (6.1)
	일주일에 한 번 정도	342 (18.7)	2,523 (23.7)	2,892 (22.0)	2,134 (21.5)	703 (19.7)	8,594 (22.0)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	267 (14.6)	1,494 (14.1)	1,999 (15.2)	1,513 (15.2)	475 (13.3)	5,748 (14.7)
	거의 매일	562 (30.8)	2,719 (25.6)	3,387 (25.8)	3,018 (30.4)	1,063 (29.8)	10,749 (27.5)
	Total	1,826 (100.0)	10,632 (100.0)	13,149 (100.0)	9,928 (100.0)	3,567 (100.0)	39,102 (100.0)
빈번(전체 표본: 1주일 한번 이상)		1,826 (62.1)	8,531 (62.1)	10,330 (62.5)	9,449 (66.2)	4,060 (61.0)	34,196 (63.2)

4. 경제활동 관련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활용한 종속변수는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경제활동 변수를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개인 총소득 그리고 경제적 만족도로 조작적 정의를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경제활동 그 자체에 해당하는 취업자(근로자, 자영업자)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상태는 취업자와 비취업자로 구분되며, 비취업자의 경우 다시 자발적 비취업자와 비자발적 비취업자로 구분된다. 이때, ‘자발적’의 개념은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표 5-1-16>은 응답자의 현재 경제활동 상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5-1-16> 경제활동 참여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체표본	7회 유지 표본
취업자		20,839(38.5)	16,324(41.8)
비취업자	비자발적	516(1.0)	368(0.9)
	자발적	32,776(60.6)	22,410(57.3)
합계		54,131(100.0)	39,102(100.0)

본 연구에서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그 자체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할 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취업자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간주하였다. 대체로 전체표본과 7회 유지 표본에 큰

폭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지만, 취업자 비중은 7회 유지 표본에서 전체표본에 비해 약 3.3%p 정도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성별과 연령 등 인적특성 변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표 5-1-17>에 성별과 경제활동 참여 여부 간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표 5-1-18>에는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5-1-17> 응답자의 성별과 경제활동 참여 여부 간 교차분석 결과

(단위: 명, %)

취업 여부	전체표본			7회 유지 표본		
	여성	남성	Total	여성	남성	Total
비취업자	22,681 (73.3)	10,611 (45.8)	33,292 (61.5)	16,022 (70.4)	6,756 (41.3)	22,778 (58.3)
취업자	8,261 (26.7)	12,578 (54.2)	20,839 (38.5)	6,721 (29.6)	9,603 (58.7)	16,324 (41.7)
Total	30,942 (100.0)	23,189 (100.0)	54,131 (100.0)	22,743 (100.0)	16,359 (100.0)	39,102 (100.0)
Pearson chi ²	4.2e+03***			3.3e+03***		

*** $p < 0.000$

<표 5-1-17>에 따르면, 전체표본과 7회 유지 표본 모두에서 남성이 취업상태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취업자 비중은 전체표본과 7회 유지 표본에서 각각 26.7%와 29.6%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볼 때, 남성의 경우 취업자 비중은 두 집단에서 각각 54.2%와 58.7%로 나타났다.

<표 5-1-18>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여부¹¹⁾

(단위: 명, %)

구분	취업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전체 표본	비취업자	964 (32.8)	5,087 (37.1)	9,723 (58.8)	11,291 (79.1)	6,227 (93.6)	33,292 (61.5)
	취업자	1,978 (67.2)	8,641 (62.9)	6,809 (41.2)	2,985 (20.9)	426 (6.4)	20,839 (38.5)
	합계	2,942 (100.0)	13,728 (100.0)	16,532 (100.0)	14,276 (100.0)	6,653 (100.0)	54,131 (100.0)
7회 유지 표본	비취업자	588 (32.2)	3,861 (36.3)	7,469 (56.8)	7,591 (76.5)	3,269 (91.6)	22,778 (58.3)
	취업자	1,238 (67.8)	6,771 (63.7)	5,680 (43.2)	2,337 (23.5)	298 (8.4)	16,324 (41.7)
	합계	1,826 (100.0)	10,632 (100.0)	13,149 (100.0)	9,928 (100.0)	3,567 (100.0)	39,102 (100.0)

<표 5-1-18>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취업 상태인 응답자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표본 집단의 차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전체 표본에서 40대 취업자 비중은 67.2%인데 비해, 60대의 경우에는 41.2%, 70대의 경우에는 20.9%로 각각 나타나 연령대 간에 각각 26.0%p와 39.3%p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측정변수로 개인 총소득과 경제적 만족도도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준·고령자의 개인 총소득은 연간 총소득액(단위: 만원)을 활용하였으며, 경제적 만족도는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개념¹²⁾을 활용하였다.

11) 교차분석결과에 따른 Pearson chi2 값은 전체표본의 경우 9.3e+03(p=0.000), 7회 유지 표본의 경우 5.6e+03(p=0.000)임.

12) 경제적 만족도는 100점 만점의 11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즉, 측정에서 완전히 불만족한 상태는 0으로, 완전히 만족하는 상태는 100점으로 측정되었다.

〈표 5-1-19〉 응답자의 연간 개인 총소득

(단위: 만원)

구분	전체 표본	7회 유지 표본
40대	1,608.1 (2,162.3)	1,502.9 (1,871.4)
50대	1,606.5 (2,185.1)	1,609.1 (2,212.3)
60대	1,148.4 (4,182.0)	1,205.2 (4,635.6)
70대	752.3 (1,191.8)	808.5 (1,055.7)
80대 이상	559.3 (893.8)	663.3 (911.1)
Total	1,112.7 (2,725.1)	1,178.8 (3,032.0)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표 5-1-19〉에 따르면, 응답자의 연간 개인 총소득 평균은 전체 표본의 경우 1,112.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연간 개인 총소득 규모는 감소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표본과 7회 유지 표본은 상호 큰 폭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역시 유사한 것이 확인된다. 즉, 〈표 5-1-20〉에 따르면,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50대에서 가장 높고, 이후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20〉 응답자의 경제적 만족도

구분	전체 표본	7회 유지 표본
40대	53.1 (22.9)	53.9 (22.5)
50대	56.2 (20.8)	57.1 (20.3)
60대	54.0 (20.6)	55.3 (19.8)
70대	48.3 (21.7)	50.4 (20.8)
80대 이상	44.6 (22.1)	48.1 (21.4)
Total	51.8 (21.6)	53.8 (20.7)

제2절 경제활동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1.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분석모형에 따라 실증분석에 포함할 변수들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5-2-1> 기술통계량

변수명		전체표본	7회 유지 표본		
종속 변수	경제 활동	경제활동 참여 여부	0.385 (0.487)	0.417 (0.493)	
		개인 총소득	1,112.7 (2725.1)	1178.8 (3032.0)	
		경제적 만족도	51.847 (21.619)	53.830 (20.702)	
설명 변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친구관계	6.415 (2.669)	6.537 (2.524)	
통제 변수	성별		0.428 (0.495)	0.418 (0.493)	
	연령		66.168 (10.825)	65.332 (10.083)	
	연령제곱		4,495.3 (1461.6)	4369.9 (1347.6)	
	거주지역		0.377 (0.485)	0.341 (0.474)	
	자녀수		2.954 (1.497)	2.871 (1.426)	
	주관적 건강상태		2.275 (0.934)	2.332 (0.905)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0.456 (0.498)	0.432 (0.495)
		중학교 졸업		0.168 (0.373)	0.177 (0.381)
		고등학교 졸업		0.274 (0.446)	0.290 (0.454)
		대학교 졸업 이상		0.102 (0.303)	0.102 (0.302)
	결혼		0.760 (0.427)	0.798 (0.401)	
	종교 유무		0.520 (0.500)	0.521 (0.500)	
	배우자 취업		0.316 (0.465)	0.350 (0.477)	
사례수		54,131	39,102		

2. 경제활동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경제활동 참여 여부인 이분형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표 5-2-2>와 같다. 각 분석결과로 도출된 개별 변수의 추정계수값이 갖는 의미는 종속변수의 상태, 즉 경제활동 참여 상태가 될 가능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만일 설명변수 또는 특정 통제변수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추정계수값을 지닌다면, 결과적으로 해당 변수의 변이가 경제활동 참여 상태일 가능성을 증가시킴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Fixed Effect 모형과 Random Effect 모형을 제외한 다양한 회귀분석에서 연도더미변수를 제외한 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실제로 2006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더미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도 설명변수 즉, 사회 네트워크 활동 변수의 추정회귀계수값과 통계적 유의성은 비슷하게 도출되었다. 따라서, 회귀분석결과표 작성 시 지면의 제약 상 연도더미변수를 제외한 회귀분석결과를 표로 제시하였다.

<표 5-2-2>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전체 표본	7년 유지 표본
설명변수	사회 네트워크 활동	0.051*** (0.004)	0.043*** (0.005)
통제변수	성별	1.645*** (0.025)	1.709*** (0.029)
	연령	0.115*** (0.014)	0.105*** (0.017)
	연령제곱	-0.002*** 0.000	-0.002*** 0.000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	-0.254*** (0.023)	-0.223*** (0.027)
	자녀수	0.086*** (0.009)	0.109*** (0.011)
	주관적 건강상태	0.319*** (0.013)	0.275*** (0.015)
	중학교 졸업	-0.233*** (0.031)	-0.240*** (0.036)
	고등학교 졸업	-0.295*** (0.029)	-0.337*** (0.033)
	대학교 졸업 이상	-0.450*** (0.040)	-0.527*** (0.046)
	결혼	-0.333*** (0.032)	-0.377*** (0.038)
	종교 유무	0.091*** (0.022)	0.092*** (0.025)
	배우자 취업	0.754*** (0.025)	0.738*** (0.029)
상수	-2.647*** (0.458)	-2.162*** (0.555)	
LR Chi ²	18,013.1***	11,998.9***	
Pseudo R ²	0.2497	0.2258	
사례수	54,131	39,102	

*** $p < 0.001$; ** $p < 0.01$; * $p < 0.05$;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표 5-2-2>에 따르면, 우선 본 연구의 설명변수인 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두 표본 모두에서 종속변수인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서 두 표본 모두에서 사회 네트워크 활동 변수의 추정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활발한 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을 높이고, 이것이 경제활동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활용한 변수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변수로 활용한 성별 변수는 전체표본과 7년 유지 표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 값을 갖는 것이 확인된다. 즉,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남성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연령 변수의 경우에는 연령과 연령제곱 변수를 모두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이때, 연령제곱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한 것은 연령과 경제활동 참여 간의 관계가 선형이 아닌 2차 함수 형태를 지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5-2-2>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제곱 변수의 계수값은 유의미한 음(-)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 변수의 계수값은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이 도출된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참여 상태일 가능성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다가 특정 시점 이후에는 감소하는, 즉 2차 함수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연령 관련 변수의 추정계수값을 검토해보면, 경제활동 참여 상태일 확률이 최대일 경우를 계산할 수 있는데, 전체표본의 경우 57.5세, 7년 유지 표본의 경우 52.5세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50대 초·중반까지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후 감소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거주지역 변수는 두 표본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음(-)의 계수 값을 갖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거주자에 비해 더 활발함을 의미하며, 비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준·고령자에 대한 일자리가 더 많은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인구가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준·고령자들이 근로할 수 있는 단순직에도 청년층이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공영역 등에서 단순직으로 준·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청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이 현실이다.

넷째, 자녀수 변수는 두 표본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추정계수값을 갖는 것이 확인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준·고령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녀의 수가 많아진다는 점은 자녀로부터 부양받을 가능성을 높여 경제활동에의 참여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두 표본 모두에서 예상과는 달리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으로 도출된 것이 확인된다. 다만, 최근의 사회현상을 감안하면, 자녀의 부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반대로 자녀가 많을수록 부양의무자로서 부모가 더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최근에 일명 ‘캥거루족’이라는 용어가 발생하게 된 현상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자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가 고령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를 길러낸 사람들일수록 경제력 보유에 대한 경험과 필요성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젊은 시절 많은 자녀를 부양했던 응답자일수록, 경제적

관점에서의 근로의욕이 더 높을 수 있으며, 자녀의 분가 등을 이유로 적절한 수준의 노후대비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들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응답자의 건강상태는 당연히 경제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석결과에서도 두 표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이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상태는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조건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 준·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섯째, 교육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의 4개 명목변수로 측정되었고, 실증분석에서는 이를 가변수(dummy)로 활용하였다. 이때의 준거집단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으로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의 변수가 두 표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계수 값을 갖는다는 것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다’는 기존의 인적자본이론에서의 논의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표본이 준·고령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분석에 포함된 연령층이 50대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상당부분이 은퇴 후 직업을 갖는지 여부를 의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출된 분석결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즉, 종속변수인 경제활동 참여에는 ‘직업의 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준·고령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이 그리 다양하지 않으며, 자영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순직임을 감안해 볼 때, 높은 교육수준은 오히려 경제활동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준·고령자일수록 은퇴 이후 직업선

택에 있어서도 ‘직업의 질’을 따질 가능성이 높다.¹³⁾

일곱째, 결혼 여부는 두 분석 표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추정계수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다른 모든 조건을 통제된 상태에서 결혼 상태(부부 동거)인 경우에는 준·고령자의 은퇴 후의 삶을 경제활동 참여 없이 영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의미한다. 다만, 상호 연결되는 변수로 활용한 배우자 취업 여부는 이와는 달리 두 표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추정계수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취업 상태에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준·고령자의 경우 대부분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편이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제활동은 응답자가 가정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준·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취업한 상태라면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응답자도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획득한 경제적 이익을 활용하여 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자영업의 경우 대체로 가족경영의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다른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유추되기도 한다.¹⁴⁾

13) 이후 종속변수를 개인 총소득으로 활용한 분석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지만, 총소득을 종속변수로 활용한 분석한 결과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경제활동 참여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이 더 높지만,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참고로, 경제활동의 종류가 자영업일 경우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전체 표본에서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1.6%이지만 반

여덟째, 종교 유무는 두 분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 값을 갖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종교를 갖고 있는 준·고령자가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물론, 종교행위 그 자체가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교행위는 종교를 매개로 사회의 다른 사람들 또는 영역과 일종의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이고, 이것이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종교행위 자체도 일정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표 5-2-3>은 앞에서 이루어진 분석을 연령대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표 5-2-3>의 분석결과는 <표 5-2-2>의 분석결과와 특별한 차이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연령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연령과 연령제곱 변수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결혼 변수의 경우, 60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추정계수값을, 80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추정계수값을 지니고 있어 분석결과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이유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60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 중 어느 한명이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 세대이며, 이 경우 어느 일방은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세대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80대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건강상태 등과 같은 여건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세대이다. 따라서 80대는 처해진 상황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면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4.4%로 약 12.6%p 높다.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표 5-2-3>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령대별

변수		50대	60대	70대	80대
설명 변수	사회 네트워크 활동	0.045*** (0.009)	0.061*** (0.007)	0.055 (0.009)	0.124*** (0.022)
통제 변수	성별	1.919*** (0.048)	1.496*** (0.040)	1.175 (0.055)	1.152*** (0.148)
	연령	0.5 (0.306)	-0.159 (0.307)	0.181 (0.485)	-0.404 (0.765)
	연령제곱	-0.005 (0.003)	0.000 (0.002)	-0.002 (0.003)	0.002 (0.005)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	-0.215*** (0.042)	-0.153*** (0.037)	-0.396 (0.052)	-0.436** (0.133)
	자녀수	0.005 (0.023)	0.073*** (0.016)	0.095 (0.016)	0.084*** (0.034)
	주관적 건강상태	0.396*** (0.024)	0.320*** (0.021)	0.285 (0.028)	0.450*** (0.069)
	중학교 졸업	-0.104 (0.060)	-0.045 (0.048)	-0.344 (0.072)	-0.425* (0.211)
	고등학교 졸업	-0.156** (0.055)	-0.195*** (0.047)	-0.25 (0.068)	-0.762** (0.222)
	대학교 졸업 이상	-0.157* (0.075)	-0.555*** (0.067)	-0.873 (0.107)	-0.313*** (0.246)
	결혼	-0.115 (0.069)	-0.393*** (0.053)	-0.345 (0.062)	0.385* (0.158)
	종교 유무	0.059 (0.040)	0.051 (0.035)	0.097 (0.047)	0.246* (0.122)
	배우자 취업	0.170*** (0.046)	0.787*** (0.040)	1.819 (0.058)	2.468*** (0.158)
	상수		-13.4 (8.3)	6.3 (9.9)	-6.1 (18.0)
LR Chi ²		2,722.3***	2,836.4***	2,407.0***	789.63***
Pseudo R ²		0.1504	0.1266	0.1644	0.2494
사례수		13,728	16,532	14,276	6,653

*** $p < 0.001$; ** $p < 0.01$; * $p < 0.05$;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표 5-2-4>는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표본을 대상으로 시점을 달리해 측정된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결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5-2-4>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패널프로빗 및 패널로짓 분석 결과

변수		패널 프로빗	패널 로짓
설명변수	사회 네트워크 활동	0.021*** (0.005)	0.039*** (0.008)
통제변수	성별	1.767*** (0.051)	3.166*** (0.090)
	연령	0.204*** (0.016)	0.374*** (0.030)
	연령제곱	-0.002*** 0.000	-0.004*** 0.000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	-0.421*** (0.046)	-0.750*** (0.081)
	자녀수	0.003 (0.016)	0.015 (0.029)
	주관적 건강상태	0.238*** (0.013)	0.424*** (0.024)
	중학교 졸업	-0.064 (0.066)	-0.136 (0.115)
	고등학교 졸업	0.039 (0.060)	0.044 (0.105)
	대학교 졸업 이상	-0.142 (0.081)	-0.285* (0.142)
	결혼	-0.228*** (0.048)	-0.407*** (0.086)
	종교 유무	0.069** (0.025)	0.125** (0.044)
	배우자 취업	0.546*** (0.030)	0.976*** (0.054)
	상수	-5.332*** (0.530)	-9.754*** (0.963)
Waldo Chi ²	4641.7***	4415.7***	
rho	0.7648**	0.7581**	
사례수	54,131	54,131	

*** $p < 0.001$; ** $p < 0.01$; * $p < 0.05$;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표 5-2-4>에 제시된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설명변수에 해당하는 사회 네트워크 활동 변수의 추정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준·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 변수는 앞에서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 값을 가지며, 이는 상대적으로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사회적 현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셋째, 연령의 경우에도 역시 앞서와 동일하게 연령제곱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계수값을, 연령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거주지역 변수의 경우에도 역시 앞서와 동일하게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준·고령자가 역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종교 유무와 배우자 취업 변수 역시 앞에서의 분석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일곱째, 결혼 변수의 경우에는 앞에서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두 분석모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계수값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분석 논리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앞서 실시한 횡단면 로짓분석의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분석이다. 즉, 현재 시점에서 결혼한 상태일 경우의 종속변수에 대한 확률값을 분석하는 것이다. 반면에,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결혼이라는

변화, 즉 미혼 상태에서 결혼 상태로 변화한 경우의 종속변수에 대한 확률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패널데이터 분석에서 결혼 변수의 해석은 분석대상 기간 중 미혼에서 혼인상태로 변화하였을 경우의 종속변수에 대한 확률값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청년층에서는 결혼이라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준·고령자의 경우에는 결혼은 보유하고 있는 경제력의 합산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즉, 준·고령층에서의 새로운 결혼은 주로 경제력을 보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새롭게 부부가 된 준·고령층 부부는 일정수준의 경제력의 합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결혼 변수의 추정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계수값, 즉, 경제활동 비참여로 이어졌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3. 연간 개인 총소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뿐만 아니라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그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도 수행하였다. 특히, 실증분석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다양한 변수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의 측정방법과 관련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① 원래의 측정값을 활용한 분석과 ② 원래의 측정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활용한 분석으로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둘째, 표본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전체 데이터와 7회의 조사 모두에 참여한 표본을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pooled OLS 회귀분석방법과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분석방법(Random Effect, Fixed Effect Model)을 활용하였다.

넷째, 앞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던 경제활동 참여 여부 변수 역시 개인 총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일 것으로 판단하여 이 변수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분리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여부의 회귀분석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간 개인 총소득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도 Fixed Effect 모형과 Random Effect 모형을 제외한 다양한 회귀분석에서 연도더미변수를 제외한 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실제로 2006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더미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도 설명변수 즉, 사회 네트워크 활동 변수의 추정회귀계수값과 통계적 유의성은 비슷하게 도출되었다. 따라서, 회귀분석결과표 작성 시 지면의 제약 상 연도더미변수를 제외한 회귀분석결과를 표로 제시하였다.

<표 5-2-5>는 먼저 종속변수로 모두 원래의 측정값을 활용한 pooled OLS 회귀분석기법을 활용한 분석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구체적으로 모형 1과 모형 2는 전체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결과이며, 모형 3과 모형 4는 7회 모두 측정이 유지된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결과이다.

<표 5-2-5> 연간 개인 총소득(원래의 측정값)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 결과: pooled OLS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활용 데이터(원래의 측정값)		전체 표본	전체 표본	7회 유지 표본	7회 유지 표본
설명 변수	사회 네트워크 활동	17.7*** (4.322)	24.31*** (4.370)	14.457* (6.035)	20.163** (6.084)
통제 변수	경제활동 참여 여부	968.9*** (26.941)		912.4*** (34.6)	
	성별	627.2*** (26.739)	911.4*** (25.848)	741.0*** (35.5)	1035.0*** (34.0)
	연령	-15.650 (11.557)	-39.682** (11.675)	-5.866 (16.806)	-21.563 (16.943)
	연령제곱	0.044 (0.085)	0.104 (0.086)	-0.037 (0.126)	-0.039 (0.127)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	-65.4** (23.8)	-109.6*** (24.0)	-53.911 (32.281)	-91.407** (32.533)
	자녀수	7.534 (8.783)	15.974 (8.884)	13.429 (12.152)	27.338* (12.248)
	주관적 건강상태	103.1*** (13.5)	158.1*** (13.6)	105.4*** (18.2)	151.4*** (18.2)
	중학교 졸업	99.5** (33.9)	60.6 (34.3)	94.6* (44.0)	54.4 (44.4)
	고등학교 졸업	412.6*** (31.9)	363.7*** (32.2)	412.2* (41.5)	355.6*** (41.8)
	대학교 졸업 이상	1273.2*** (43.7)	1196.9*** (44.2)	1278.3*** (57.9)	1188.7*** (58.3)
	결혼	-135.8*** (31.6)	-205.0*** (31.9)	-189.7*** (43.2)	-258.6*** (43.5)
	종교 유무	30.695 (22.738)	46.558* (23.003)	30.254 (30.050)	45.873 (30.308)
	배우자 취업	-349.4*** (28.2)	-206.2*** (28.2)	-339.7*** (36.1)	-207.7*** (36.1)
	상수		902.9** (391.8)	2326.7*** (394.5)	665.4 (562.8)
F-value		443.6***	369.4***	262.1***	225.0***
Adj, R ²		0.1027	0.0813	0.0855	0.0693
사례수		54,131	54,131	39,102	39,102

*** $p < 0.001$; ** $p < 0.01$; * $p < 0.05$;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먼저, 본 연구의 설명변수에 해당하는 사회 네트워크 활동 변수의 계수값은 앞에서 제시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4개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개인의 총소득 증가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통제변수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 참여 여부 변수는 모형 1과 모형 3에서 활용되었는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응답자일수록 더 많은 개인 총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성별 변수는 앞에서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앞에서의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남성이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남성의 총소득이 여성보다 더 높다는 것도 당연한 결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령 변수의 계수값은 전체 표본을 사용한 모형과 7회 유지 표본을 사용한 경우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전체 표본의 경우에는 연령제곱 변수의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연령과 총소득 간의 관계가 2차 함수 관계라는 가설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연령 변수 역시 모형 2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계수 값을 얻었다. 반면, 7회 유지 표본을 이용한 모형 3과 모형 4의 경우에는 연령과 연령제곱 변수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표본에서의 연령 변수의 추정계수값만으로 결과를 해석한다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일부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관한 분석결과는 자연로그를 취한 다른 분석결과를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넷째, 거주지역 변수는 모형 3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계수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로써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준·고령자의 개인 총소득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준·고령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자녀수 변수의 경우에는 모형 4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값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역시 향후 추가적으로 수행되는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건강한 준·고령자일수록 더 높은 소득을 얻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앞서 제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판단된다.

일곱째, 학력 변수는 모형 4의 중학교 졸업 변수를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의 세 변수의 계수값을 살펴보면, 비교가 되는 준거집단인 초등학교 이하 졸업자에 비해 중학교 졸업자가, 중학교 졸업자에 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고등학교 졸업자보다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응답자가 더 많은 총소득을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¹⁵⁾ 이는 앞서 제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경제활동 참여 변수를 종속 변수로 하였을 경우와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즉, 앞에서 제시한 회귀분석결과와 현재의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판단해보면,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은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경향이 있지만, 연간 총소득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5) 가변수의 비교 시 준거가 되는 집단과 세 변수의 계수값의 크기를 통해 판단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각 변수의 추정계수값의 크기는 모든 분석에서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결혼과 배우자 취업 변수를 종합하여 분석해보면, 두 변수는 4개의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계수 값을 갖는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혼인 변수의 추정계수값이 유의미한 음(-)의 값을 지니지만, 남성 표본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결혼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가지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계수 값을 지닌다.¹⁶⁾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해 볼 때,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총소득의 증가를 추구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가사부담 등의 증가가 총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배우자가 취업으로 인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남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총소득 증가는 지속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결론으로도 귀결될 수 있다. 즉, 결혼과 배우자 취업이라는 상황 변화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16) 성별을 분리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수	남성	여성
경제활동 참여 여부	1018.582***	748.433***
사회 네트워크 활동	26.298**	5.606*
성별	-52.075	15.465*
연령	0.206	-0.117*
연령제곱	-156.139**	5.203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	18.864	-8.272
자녀수	166.865***	47.522***
주관적 건강상태	164.943*	174.870***
중학교 졸업	575.627***	329.600***
고등학교 졸업	1532.827***	703.816***
대학교 졸업 이상	397.172***	-182.801***
결혼	117.040*	-16.134
종교 유무	-291.594***	-248.776***
배우자 취업	2300.482*	-103.976

<표 5-2-6> 연간 개인 총소득(자연로그 값)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 결과: pooled OLS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활용 데이터(자연로그값)		전체 표본	전체 표본	7회 유지 표본	7회 유지 표본
설명 변수	사회 네트워크 활동	0.029*** (0.004)	0.041*** (0.004)	0.018*** (0.004)	0.029*** (0.005)
	경제활동 참여 여부	1.810*** (0.022)		1.690*** (0.025)	
통제 변수	성별	0.985*** (0.022)	1.516*** (0.022)	1.125*** (0.026)	1.669*** (0.026)
	연령	0.210*** (0.010)	0.165*** (0.010)	0.176*** (0.012)	0.147*** (0.013)
	연령제곱	-0.001*** (0.000)	-0.001*** (0.000)	-0.001*** (.000)	-0.001*** (.000)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	-0.184*** (0.020)	-0.266*** (0.021)	-0.064** (0.023)	-0.134*** (0.025)
	자녀수	0.026*** (0.007)	0.042*** (0.008)	0.034*** (0.009)	0.060*** (0.009)
	주관적 건강상태	0.026* (0.011)	0.129*** (0.012)	0.041** (0.013)	0.127*** (0.014)
	중학교 졸업	0.185*** (0.028)	0.112*** (0.030)	0.143*** (0.032)	0.069* (0.033)
	고등학교 졸업	0.323*** (0.026)	0.232*** (0.028)	0.241*** (0.030)	0.136*** (0.032)
	대학교 졸업 이상	0.639*** (0.036)	0.497*** (0.038)	0.560*** (0.042)	0.395*** (0.044)
	결혼	-0.515*** (0.026)	-0.644*** (0.028)	-0.614*** (0.031)	-0.742*** (0.033)
	종교 유무	0.015 (0.019)	0.045* (0.020)	-0.009 (0.022)	0.020*** (0.023)
	배우자 취업	-0.599*** (0.023)	-0.331*** (0.025)	-0.606*** (0.026)	-0.362*** (0.027)
	상수	-3.283*** (0.326)	-0.623*** (0.343)	-2.063*** (0.405)	0.072 (0.427)
	F-value	1,077.3***	587.3***	864.2***	518.0***
Adj, R ²	0.2178	0.1234	0.2361	0.1467	
사례수	54,131	54,131	39,102	39,102	

*** $p < 0.001$; ** $p < 0.01$; * $p < 0.05$;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표 5-2-6>은 앞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종속변수에 자연 로그를 취한 값을 활용한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각 변수의 추정계수값에 차이는 있으나 앞서 수행하였던 분석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설명변수에 해당하는 사회 네트워크 활동 변수의 추정계수값은 앞에서 제시한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이 증가할수록 준·고령자의 연간 개인 총소득 수준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성별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남성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총소득을 얻음을 나타낸다.

연령의 경우, 앞에서 제시한 분석에서 유보적으로 판단한 연령과 연령제곱 변수의 추정계수값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값을 가지며, 연령제곱 변수의 경우 유의미한 음(-)의 값을, 연령 변수는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일정 연령시점까지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는 이차함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녀수 변수와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건강한 상태일수록 더 많은 개인 총소득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수준 변수의 경우에도 원래의 측정값을 종속변수로 활용한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총소득을 지님을 알 수 있다. 결혼과 배우자 취업 변수 역시 앞에서와 동일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5-2-7> 연간 개인 총소득(원래의 측정값)에 대한 Random Effect 모델 분석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활용 데이터(원래의 측정값)		전체 표본	전체 표본	7회 유지 표본	7회 유지 표본	
설명 변수	사회 네트워크 활동	17.704*** (4.322)	24.31*** (4.370)	13.344* (6.315)	16.950** (6.383)	
	경제활동 참여 여부	968.8*** (26.9)		853.4*** (37.866)		
통제 변수	성별	627.2*** (26.7)	911.3*** (25.8)	757.3*** (42.678)	1026.0*** (42.253)	
	연령	-15.65 (11.557)	-39.682** (11.675)	6.731 (18.266)	-0.52 (18.545)	
	연령제곱	0.044 (0.085)	0.104 (0.086)	-0.102 (0.137)	-0.148 (0.139)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	-65.3** (23.7)	-109.5*** (24.0)	-67.9 (39.285)	-110.0** (40.485)	
	자녀수	7.534 (8.783)	15.974 (8.884)	0.311 (14.472)	8.362 (14.874)	
	주관적 건강상태	103.1*** (13.5)	158.1*** (13.6)	85.1*** (19.041)	120.4*** (19.174)	
	중학교 졸업	99.5** (33.9)	60.5 (34.3)	117.2* (53.816)	89.2 (55.525)	
	고등학교 졸업	412.5*** (31.8)	363.7*** (32.2)	449.6*** (50.316)	413.1*** (51.842)	
	대학교 졸업 이상	1273.2*** (43.6)	1196.9*** (44.1)	1311.9*** (70.415)	1243.2*** (72.552)	
	결혼	-135.8*** (31.5)	-205.0*** (31.9)	-208.4*** (50.083)	-265.6*** (51.220)	
	종교 유무	30.695 (22.738)	46.558* (23.003)	46.902 (32.185)	62.974 (32.622)	
	배우자 취업	-349.4*** (28.1)	-206.1*** (28.2)	-264.1*** (39.358)	-145.3*** (39.663)	
	상수		902.9** (391.8)	2326.6 (394.4)	203.0 (610.6)	1025.9 (618.7)
	R ²	within	0.0035	0.0000	0.0031	0.0000
		between	0.3133	0.2503	0.2992	0.2502
overall		0.1029	0.0813	0.0855	0.0692	
사례수		54,131	54,131	39,102	39,102	

*** $p < 0.001$; ** $p < 0.01$; * $p < 0.05$;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표 5-2-7>은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가운데 Random Effect 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는 앞에서 실시하였던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설명변수에 해당하는 사회 네트워크 활동 변수는 Random Effect 모형을 활용한 분석에서도 앞에서 제시한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추정계수값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준·고령자의 개인 총소득 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활용한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성별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준·고령자일수록, 그리고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총소득을 가짐을 의미한다. 연령과 연령제곱 변수는 일부 분석결과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계수값이 도출되지 않았다. 거주지역 변수의 경우에는 모형 3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계수값이 도출되어,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준·고령자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준·고령자에 비해 더 높은 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교육수준을 의미하는 3개의 변수 역시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추정계수값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일수록 소득이 많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개인 총소득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배우자 취업 변수는 앞서와 유사하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계수값이 도출된 반면 자녀수와 종교 유무 변수는 일부 모형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계수값을 얻지 못하였다.

<표 5-2-8> 연간 개인 총소득(자연로그 값)에 대한 Random Effect 모델 분석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활용 데이터(자연로그값)		전체 표본	전체 표본	7회 유지 표본	7회 유지 표본
설명 변수	사회 네트워크 활동	0.033*** (0.004)	0.038*** (0.004)	0.025*** (0.004)	0.030*** (0.005)
통제 변수	경제활동 참여 여부	1.611*** (0.026)		1.538*** (0.028)	
	성별	1.004*** (0.035)	1.430*** (0.038)	1.155*** (0.037)	1.622*** (0.040)
	연령	0.142*** (0.011)	0.119*** (0.012)	0.118*** (0.014)	0.105*** (0.014)
	연령제곱	-0.001*** 0.000	-0.001*** 0.000	-0.0001*** (0.000)	-0.001*** (0.000)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	-0.297*** (0.032)	-0.404*** (0.035)	-0.106** (0.035)	-0.197*** (0.039)
	자녀수	-0.050*** (0.011)	-0.061*** (0.012)	-0.025* (0.012)	-0.025 (0.014)
	주관적 건강상태	-0.01 (0.012)	0.051*** (0.012)	0.014 (0.014)	0.068*** (0.014)
	중학교 졸업	0.334*** (0.047)	0.330*** (0.052)	0.228*** (0.048)	0.205*** (0.053)
	고등학교 졸업	0.552*** (0.043)	0.581*** (0.047)	0.370*** (0.044)	0.351*** (0.049)
	대학교 졸업 이상	0.826*** (0.059)	0.801*** (0.065)	0.666*** (0.062)	0.579*** (0.069)
	결혼	-0.501*** (0.036)	-0.569*** (0.038)	-0.615*** (0.040)	-0.690*** (0.044)
	종교 유무	0.042* (0.021)	0.062** (0.022)	0.000 (0.023)	0.020 (0.025)
	배우자 취업	-0.344*** (0.027)	-0.157*** (0.028)	-0.408*** (0.029)	-0.215*** (0.031)
	상수		-1.692*** (0.377)	-0.009 (0.395)	-0.676 (0.452)
R ²	within	0.0680	0.0346	0.0723	0.0375
	between	0.2806	0.1408	0.4103	0.2573
	overall	0.2067	0.1088	0.2290	0.1362
사례수		54,131	54,131	39,102	39,102

*** $p < 0.001$; ** $p < 0.01$; * $p < 0.05$;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표 5-2-8>은 종속변수에 원래의 측정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활용하였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표 5-2-7>에서 활용한 변수와 동일하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5-2-7>에서 결과해석이 유보되었던 연령 변수에 대한 계수값이 2차 함수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의 설명변수에 해당하는 사회 네트워크 활동 변수의 추정계수값은 앞에서 제시된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준·고령자의 총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9>와 <표 5-2-10>은 Fixed Effect 모델을 적용한 분석결과로, 앞서 Random Effect 모델을 적용한 것과 동일하게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이지만 분석방법에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이 모형은 차분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도별 변화가 없는 측정값에 대해서는 결과를 나타나지 않는다. 먼저, <표 5-2-9>는 종속변수를 원래의 측정값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표 5-2-10>은 종속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이 분석모형은 차분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도별 변화가 거의 없는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표 5-2-9> 연간 개인 총소득(원래의 측정값)에 대한 Fixed Effect 모델 분석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활용 데이터(원래의 측정값)		전체 표본	전체 표본	7회 유지 표본	7회 유지 표본
설명 변수	사회 네트워크 활동	13.178* (5.703)	13.789* (5.716)	13.008 (7.585)	13.433 (7.599)
통제 변수	경제활동 참여 여부	595.3*** (41.961)		579.4*** (52.198)	
	성별				
	연령	27.708 (19.519)	32.32 (19.561)	41.612 (24.682)	47.71 (24.720)
	연령제곱	-0.06 (0.148)	-0.14 (0.148)	-0.162 (0.188)	-0.252 (0.188)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	82.0 (209.4)	97.8 (209.9)	33.9 (306.4)	67.4 (307.0)
	자녀수	1.632 (42.667)	6.308 (42.763)	0.459 (50.861)	4.794 (50.952)
	주관적 건강상태	17.621 (17.787)	33.948 (17.790)	27.426 (22.753)	43.903 (22.746)
	중학교 졸업	-55.437 (365.9)	-49.483 (366.7)	-166.964 (508.9)	-158.818 (509.8)
	고등학교 졸업	163.511 (362.4)	195.023 (363.2)	138.254 (456.2)	178.23 (457.0)
	대학교 졸업 이상	-299.4 (463.0)	-326.7 (464.1)	-353.4 (603.2)	-364.4 (604.3)
	결혼	-176.7* (76.9)	-194.8* (77.1)	-227.4* (99.0)	-244.1* (99.2)
	종교 유무	35.1 (32.9)	37.0 (33.0)	42.9 (41.6)	44.2 (41.7)
	배우자 취업	-78.364 (43.205)	-37.408 (43.206)	-42.049 (53.711)	-2.918 (53.693)
	상수		-703.7 (684.4)	-487.8 (685.7)	-1035.0 (865.1)
R ²	within	0.0057	0.0011	0.0048	0.0011
	between	0.0087	0.0727	0.0092	0.0500
	overall	0.0066	0.0179	0.0055	0.0106
사례수		54,131	54,131	39,102	39,102

*** $p < 0.001$; ** $p < 0.01$; * $p < 0.05$;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표 5-2-10> 연간 개인 총소득(자연로그 값)에 대한 Fixed Effect 모델 분석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활용 데이터(자연로그값)		전체 표본	전체 표본	7회 유지 표본	7회 유지 표본
설명 변수	사회 네트워크 활동	0.036*** (0.004)	0.038*** (0.004)	0.038*** (0.005)	0.039*** (0.005)
통제 변수	경제활동 참여 여부	1.318*** (0.031)		1.296*** (0.034)	
	성별				
	연령	0.015 (0.014)	0.025 (0.015)	0.03 (0.016)	0.043** (0.016)
	연령제곱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0** 0.000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	-0.004 (0.153)	0.031 (0.156)	0.057 (0.200)	0.132 (0.205)
	자녀수	0.052 (0.031)	0.063* (0.032)	0.058 (0.033)	0.068* (0.034)
	주관적 건강상태	-0.030* (0.013)	0.006 (0.013)	-0.009 (0.015)	0.028 (0.015)
	중학교 졸업	-0.504 (0.267)	-0.491 (0.272)	-0.879** (0.333)	-0.860* (0.340)
	고등학교 졸업	0.161 (0.264)	0.231 (0.270)	0.163 (0.298)	0.253 (0.305)
	대학교 졸업 이상	-0.744* (0.338)	-0.804* (0.345)	-0.754 (0.394)	-0.778 (0.403)
	결혼	-0.506*** (0.056)	-0.547*** (0.057)	-0.555*** (0.065)	-0.592*** (0.066)
	종교 유무	-0.037 (0.024)	-0.033 (0.025)	-0.071** (0.027)	-0.068* (0.028)
	배우자 취업	-0.207*** (0.031)	-0.116*** (0.032)	-0.229*** (0.035)	-0.141*** (0.036)
	상수		1.349** (0.499)	1.827*** (0.509)	1.271* (0.565)
R ²	within	0.0860	0.0473	0.0860	0.0467
	between	0.0162	0.0035	0.0510	0.0000
	overall	0.0322	0.0001	0.0528	0.0027
사례수		54,131	54,131	39,102	39,102

*** $p < 0.001$; ** $p < 0.01$; * $p < 0.05$;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표 5-2-9>와 <표 5-2-10>에 제시된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설명변수에 해당하는 사회 네트워크 활동 변수는 <표 5-2-9>와 <표 5-2-10>에 제시된 분석결과의 대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차분 방식을 적용한 Fixed Effect 모형의 적용에 있어서도 여전히 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개인 총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도별 추정값에 전혀 변화가 없는 성별 변수의 경우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연도별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은 거주지역과 교육수준 등의 변수의 추정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다만, 결혼과 배우자 취업 변수의 경우에는 앞서와 동일하게 다양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계수값이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주관적 측면에서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2-11>, <표 5-2-12>, <표 5-2-13>, <표 5-2-14>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여부 및 연간 개인 총소득의 회귀분석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도 지면관계상 Fixed Effect 모형과 Random Effect 모형을 제외한 다양한 회귀분석에서 연도더미변수를 제외한 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5-2-11>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 결과: pooled OLS

변수		모형 1	모형 2
활용 데이터		전체 표본	7회 유지 표본
설명 변수	사회 네트워크 활동	0.505*** (0.032)	0.411*** (0.039)
	경제활동 참여 여부	1.204*** (0.213)	0.861*** (0.236)
통제 변수	개인 총소득(자연로그값)	0.872*** (0.039)	0.792*** (0.045)
	성별	-3.824*** (0.203)	-3.029*** (0.235)
	연령	1.415*** (0.087)	1.286*** (0.109)
	연령제곱	-0.009*** (0.001)	-0.008*** (0.001)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	-2.022*** (0.178)	-2.143*** (0.208)
	자녀수	-2.022*** (0.065)	-2.143*** (0.078)
	주관적 건강상태	7.024*** (0.101)	6.576*** (0.117)
	중학교 졸업	5.198*** (0.253)	4.994*** (0.284)
	고등학교 졸업	8.034*** (0.238)	7.878*** (0.268)
	대학교 졸업 이상	12.772*** (0.325)	12.667*** (0.372)
	결혼	5.196*** (0.236)	5.068*** (0.280)
	종교 유무	0.150 (0.170)	(0.028) (0.194)
	배우자 취업	2.489*** (0.211)	2.324*** (0.234)
	상수	-33.073*** (2.925)	-25.778*** (3.627)
	F-value	944.12***	597.94***
Adj, R ²	0.2072	0.1863	
사례수	54,131	39,102	

*** $p < 0.001$; ** $p < 0.01$; * $p < 0.05$;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표 5-2-11>은 경제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활용한 분석결과이다. 이때, 응답자의 주관적인 경제적 만족도의 경우 앞에서 다른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던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개인 총소득(자연로그값)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되어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설명변수에 해당하는 사회 네트워크 활동 변수는 모든 분석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경제적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앞서 다른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한 바가 있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연간 개인 총소득(자연로그값)은 응답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각각 전체 표본과 7회 유지 표본을 이용한 모형 1과 모형 2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실증분석을 통해 당연히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준·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총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성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계수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 동일한 조건을 가질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연간 개인 총소득, 연령 등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활용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경제적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연령 변수의 경우 종속변수인 경제적 만족도와 2차항이 음수인 2차 함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모형 모두에서 연령제곱 변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계수값을, 연령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거주지역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계수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준·고령자의 경제적 만족도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준·고령자에 비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수도권과 비교할 때, 비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준·고령자들 가운데 비수도권 거주자들은 수도권 거주자들에 비해 동일한 조건에서도 경제적 측면에 대한 만족감을 더 높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자녀수는 두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계수값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부양비용과 독립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고령자의 경우 가장 많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이 건강에 대한 것이고,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용은 주관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여덟째, 교육수준 변수는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지니며, 교육수준 증가에 따라 계수값도 증가하는 것이 확인된다. 즉, 교육수준은 경제적 만족도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만족도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결혼과 배우자 취업 변수는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혼인으로 인한 합가는 분산된 경제력의 결합을 의미하며, 배우자의 취업상태 역시 가구 내 경제수준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2-12>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 결과: 연령대별

변수		50대	60대	70대	80대
설명 변수	사회 네트워크 활동	0.571*** (0.071)	0.428*** (0.060)	0.531*** (0.061)	0.368*** (0.079)
	경제활동 참여 여부	0.909* (0.400)	1.150*** (0.332)	1.680*** (0.453)	1.789 (1.127)
	개인 총소득(자연로그값)	0.695*** (0.064)	0.892*** (0.069)	1.462*** (0.095)	1.101*** (0.147)
	성별	-4.808*** (0.392)	-2.751*** (0.345)	-3.242*** (0.405)	-2.280** (0.711)
	연령	5.457* (2.492)	4.158 (2.532)	(2.261) (3.394)	(0.091) (2.006)
	연령제곱	(0.044) (0.023)	(0.033) (0.020)	0.015 (0.023)	0.002 (0.012)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	-2.266*** (0.347)	-2.414*** (0.308)	-1.257*** (0.355)	-2.273*** (0.526)
	자녀수	-2.266*** (0.190)	-2.414*** (0.128)	-1.257*** (0.111)	-2.273*** (0.137)
	주관적 건강상태	5.907*** (0.197)	6.395*** (0.171)	8.158*** (0.203)	9.012*** (0.326)
	중학교 졸업	3.238*** (0.512)	6.454*** (0.398)	4.349*** (0.515)	5.786*** (1.000)
	고등학교 졸업	7.743*** (0.463)	8.189*** (0.387)	6.526*** (0.506)	7.373*** (0.973)
	대학교 졸업 이상	13.033*** (0.593)	12.904*** (0.559)	11.657*** (0.718)	10.071*** (1.296)
	결혼	9.060*** (0.581)	5.676*** (0.427)	3.723*** (0.410)	2.142** (0.676)
	종교 유무	0.931** (0.329)	(0.025) (0.292)	(0.497) (0.335)	(0.073) (0.516)
	배우자 취업	1.609*** (0.368)	2.047*** (0.332)	2.114*** (0.514)	2.225 (1.356)
	상수	-149.1* (68.0)	(111.1) (81.5)	99.5 (126.0)	13.6 (86.7)
	F-value	215.07***	276.68***	226.30***	85.16***
Adj, R ²	0.1896	0.2001	0.1914	0.1595	
사례수	18,756	18,396	14,276	6,653	

*** $p < 0.001$; ** $p < 0.01$; * $p < 0.05$;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표 5-2-12>는 경제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에서 연령대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제시된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값의 크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표 5-2-11>에 제시된 분석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대별로 분리한 분석에서 연령과 연령제곱 변수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일부 모형을 제외하고는 상실되었다.

또한, 특히 연령대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변수는 준·고령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변수의 계수값은 50대, 60대, 70대, 80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3>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Random Effect 모델 분석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활용 데이터		전체 표본	7회 유지 표본	
설명 변수	사회 네트워크 활동	0.308*** (0.031)	0.207*** (0.038)	
	경제활동 참여 여부	2.438*** (0.226)	2.154*** (0.251)	
통제 변수	개인 총소득(자연로그값)	0.558*** (0.036)	0.491*** (0.042)	
	성별	-3.792*** (0.331)	-2.729*** (0.381)	
	연령	1.677*** (0.096)	1.615*** (0.116)	
	연령제곱	-0.010*** (0.001)	-0.010*** (0.001)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	-2.755*** (0.299)	-3.178*** (0.354)	
	자녀수	-2.755*** (0.101)	-3.178*** (0.120)	
	주관적 건강상태	4.626*** (0.098)	4.325*** (0.113)	
	중학교 졸업	7.323*** (0.445)	6.772*** (0.496)	
	고등학교 졸업	11.370*** (0.406)	10.579*** (0.454)	
	대학교 졸업 이상	16.714*** (0.556)	15.733*** (0.640)	
	결혼	3.160*** (0.316)	2.795*** (0.374)	
	종교 유무	0.066 (0.176)	(0.066) (0.200)	
	배우자 취업	2.219*** (0.227)	2.174*** (0.252)	
	상수		-36.455*** (3.237)	-31.285*** (3.889)
	R ²	within	0.0374	0.0401
between		0.2860	0.2808	
overall		0.1928	0.1716	
사례수		54,131	39,102	

*** $p < 0.001$; ** $p < 0.01$; * $p < 0.05$;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표 5-2-14>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Fixed Effect 모델 분석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활용 데이터		전체 표본	7회 유지 표본	
설명 변수	사회 네트워크 활동	0.204*** (0.034)	0.138*** (0.040)	
	경제활동 참여 여부	2.364*** (0.255)	2.350*** (0.281)	
통제 변수	개인 총소득(자연로그값)	0.303*** (0.039)	0.302*** (0.044)	
	성별			
	연령	1.792*** (0.116)	1.751*** (0.130)	
	연령제곱	-0.010*** (0.001)	-0.009*** (0.001)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	-3.947** (1.247)	-4.218** (1.613)	
	자녀수	-3.947** (0.254)	-4.218** (0.268)	
	주관적 건강상태	3.380*** (0.106)	3.313*** (0.120)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결혼	-1.366** (0.459)	-1.215* (0.522)	
	종교 유무	-0.513** (0.196)	-0.509* (0.219)	
	배우자 취업	1.496*** (0.257)	1.634*** (0.283)	
	상수	-35.192*** (3.963)	-31.175*** (4.392)	
	R ²	within	0.0456	0.0471
		between	0.0055	0.0079
overall		0.0127	0.0169	
사례수		54,131	39,102	

*** $p < 0.001$; ** $p < 0.01$; * $p < 0.05$;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표 5-2-13>은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 중 Random Effect 모델을 적용한 분석결과이며, <표 5-2-14>는 Fixed Effect 모델을 적용한 분석결과이다. 제시된 Random Effect 모델과 Fixed Effect 모델을 활용한 분석결과 모두에 전체 표본과 7회 유지 표본을 각각 활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표 5-2-13>과 <표 5-2-14>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설명변수에 해당하는 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경우는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이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는 패널데이터의 특징을 이용한 Random Effect 모형과 Fixed Effect 모형에서도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그들의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적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두 분석 모두 앞서 실시한 <표 5-2-11>의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 확인된다. 공통적으로,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연간 개인 총소득 변수의 경우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이 도출되었고, 거주지역과 자녀수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계수값이 도출되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이 도출되었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50+세대에 해당하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증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7차년도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50세 이상 응답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종속변수인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 연간 개인 총소득, 경제적 만족도와 같은 세 가지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기술통계분석과 회귀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 패널 프로빗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Pooled OLS,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Random Effect Model, Fixed Effect Model) 등과 같은 분석기법들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이 다양한 분석방법을 적용한 것은 이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가 비교적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이며, 2년 격년으로 조사된 데이터로 총 7회에 걸쳐 조사되었기는 하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조사라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방법들을 활용하여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분석결과들을 요약

해보면 <표 6-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6-1-1>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분석결과 요약

변수		경제활동 참여 여부	연간 개인 총소득	경제적 만족도	
설명변수	사회 네트워크 활동	+	+	+	
통제변수	경제활동 참여 여부		+	+	
	연간 개인 총소득			+	
	성별	+	+	-	
	연령	+	+	+	
	연령제곱	-	-	-	
	거주지역(서울/경기/인천)	-	-	-	
	자녀수	+	+	-	
	주관적 건강상태	+	+	+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	+	+
		고등학교 졸업	-	+	+
		대졸 이상	-	+	+
	결혼	-	-	+	
	종교 유무	+	?	?	
	배우자 취업	-	-	+	

<표 6-1-1>에 제시된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설명변수에 해당하는 사회 네트워크 활동 변수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거의 모든 분석결과에서 조건 및 방법론, 표본의 차이를 막론하고 모든 종속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결과적으로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률이 높고, 연간 개인 총소득도 증가하며, 주관적 측면에서 준·고령자의 경제적 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통제변수들의 경우 대체로 각 변수들의 추정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속변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분석결과가 도출된 통제변수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성별 변수의 계수값은 종속변수가 경제활동 참여 여부인 경우와 연간 개인 총소득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이 도출되었지만, 종속변수가 경제적 만족도인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계수값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은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연간 개인 총소득의 경우에는 비교적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변수인데 비해, 경제적 만족도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측면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동일한 상황 하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주어진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그간의 논의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한다. 또한, 자녀수의 경우도 성별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 것 역시 유사한 사유로 판단한다.

한편, 통제변수의 추정계수값 중에서 교육수준의 계수값에 대한 해석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의 경우, 교육수준의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지니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계수값이 작아지는데 비해, 연간 개인 총소득과 경제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나타냄은 물론 교육수준 증가에 따라 계수값이 커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의 경우 ‘직업의 질’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지 또는 하지 않는지의 선택 문제인 반면, 연간 개인 총소득과 경제적 만족도의 경우 현실과 상황을 반영한 결과 때문일 것으로 이해하였다.

결혼 여부와 배우자 취업 변수의 경우에도 역시 종속변수에 따라 추정 계수값이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연간 개인 총소득 변수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결혼 여부와 배우자 취업 변수의 추정계수값은 각각 음(-)의 값이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응답결과가 과다 대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여 추정한 분석결과에서 결혼 변수의 추정계수값은 남성의 경우 유의미한 양(+)의 값을, 여성의 경우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각각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절 연구결과의 함의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준·고령자의 경제활동(근로자, 자영업자), 연간 개인 총소득, 경제적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준·고령자들에게 사회 네트워크 활동 기회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을 경제활동 여부(근로자, 자영업자), 연간 개인 총소득, 경제적 만족도로 구분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을 단순히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로만 측정하지 않고 그러한 경제활동의 결과로 객관적 측면에서 소득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주관적 측면에서 경제적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준·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객관적인 측면에서 준·고령자의 총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만족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향후 정부의 준·고령자 지원정책 방향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의 관계 분석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분석 모형과 분석결과 제시하였기 때문에 향후 준·고령자의 경제활동 연구에 필요한 분석방법론적 다양화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이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이 개인의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과정에서 좀 더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다양한 변수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는 종속변수의 처리에 있어 ①원래의 측정값을 활용한 분석과 ②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활용한 분석으로 분리한 두 가지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둘째는 표본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전체 데이터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1회차부터 7회차 조사까지 모두 참여한 표본을 분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셋째는 분석방법에 있어 pooled OLS와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분석 방법(Random Effect, Fixed Effect Model)을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넷째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던 경제활동 참여 여부 역시 연간 개인 총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분리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분석방법론적 다양성을 추구하였으며, 이러한 방법론적 다양성은 향후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의 관계 분석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준·고령자의 경제활동의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자료 획득의 한계로 인해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 측정은 만남을 유지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와 얼마나 자주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즉,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준·고령자들이 얼마나 자주 친구를 만나고 있는지를 측정한 문항이 있는데, 이 문항을 활용하면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을 측정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단체에 준·고령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활용하여 개인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을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본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준·고령자들의 직군이나 업종에 대한 고려가 불가능하였다. 그 이유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데이터에 응답자의 직군이나 업종에 대한 측정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본 연구에서도 활용이 불가능하였다. 만일,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직군이나 업종, 경력 등에 대한 정보들을 측정하는 조사항목들이 포함된다면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이 증가할수록 준·고령자의 총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정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준·고령자의 총소득이 높을수록 준·고령자의 사회 네트워크 활동 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역인과성

문제는 향후 충분한 이론적 논의를 통한 후속연구 수행을 통해 실증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경란(2018). 베이비 붐 세대의 창·재취업의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이수·신경아(2001). 여성과 일: 한국여성노동의 이해. 한국여성학 17(1): 175-177.
- 강철희·김교성·임정기·민인식·조주희(2015).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민간 복지수요 추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0: 971-989.
- 강철희·이홍직·홍현미라(2005). 실업자의 재취업에 관한 분석: 인적자본관점. 한국사회복지학 57(3): 223-249.
- 고재성·이건남·변정현·김성남(2010). 청년층 구직역량 개념 정의 및 가중치 분석. 한국직업연구 29(2): 17-42.
- 궁세균(2016). 중고령 재취업자의 조직 적응에 관한 연구. 경력 특성과 전환 학습의 관점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산업경영학 박사학위논문.
- 권문일·변재관·백선희·정경희·이문국·이인재·임정기(2003). 고령자인력운영 사업 활성화 방안: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86(1): 11-46.
- 금재호·조준모(2005). 고용 안정성의 동태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제연구 11(3): 79-114.
- 김교성·류만희(2000). 서울시 장기 실업자의 실태와 재취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연구 16(2): 83-108.
- 김문수(2016). 비정규직 경력단절 여성의 돌봄노동·가사노동이 노동시장 재진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가족양립제도와 근로조건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19(4): 81-118.
- 김석란(2013). 장래복지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실천학회지

5(1): 175-198.

김성준·윤형호(2007).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고용정책: 서울시와 도쿄도의 비교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1-23.

김소형·전정수(2008). 취업전략과 생활태도가 여자대학생의 진로 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20: 105-112.

김수완(2005). 여성의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1: 85-118.

김순자(2011). 노인 취업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미국·일본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안국·황규희(2013). 노동문제에 대한 통계적 분석: 업무 및 업종 변화가 숙련에 미치는 효과: 화이트칼라 근로자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9(2): 161-190.

김영주(2008). 농촌노인가구의 빈곤특성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4): 31-53.

김영철(2018). 브라질의 인구고령화, 재정적자와 연금개혁. 이베로아메리카 20(1): 1-30.

김은심(2020).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욕구에 관한 구조모형 연구. 남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학주·우경숙(2014).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2): 97-110.

김학주 (2017). 노인가구의 경제적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강변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45: 297-349.

김희연·이외희·이수진·최석현(2013). 한국 노인의 四重苦, 원인과 대책. 이슈&진단 120: 1-25.

나혜숙(2012). 실직자 재취업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중·고령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기성·천영민(2014). Sandwich Generation에 대한 규정과 노동 이력에 관한 연구. 지역고용노동연구 6(2): 77-104.
- 노유지·이혜경·이원형·조정래(2018). 경제, 건강, 관계자원과 다차원적 삶의 만족: 중고령인구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6(3): 233-267.
- 도수관(2012). 지식정보사회에서 사회자본과 창의적 기업가정신과의 관계: 젠더, 교육수준,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른 집단구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4): 357-388.
- 도수관·박기묵(2020). 초고령화 사회의 고령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과 고령자 빈곤 완화의 관계: 고령자의 주관적 웰빙과 경제 상황 인식, 노후 사회보장과 객관적 소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4(3): 311-348.
- 라진구(2009). 고령자 재취업 및 직종선택의 결정요인과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형택(2011). 중년남성의 재취업 유형과 직업만족도의 영향요인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영미(2006). 구직활동이 고령자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11: 139-156.
- 박경숙(2003).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5: 283-307.
- 박능후·송미영 (2006).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1: 7-26.
- 박재규·백선희(2011). 한국사회 성인 남녀의 실직유형에 따른 우울증 차이 분석.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논문집 4: 155-178.
- 방하남(2010). 인구 고령화시대 정년퇴직제도와 정년연장의 의미. 노동저널 4: 41-52.
- 서명호(2019). 고령자 재취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지역의 고령 재취

- 업자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미경·최희진(2011). 비취업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의 취업의사 결정요인 비교 연구. 노인복지연구 53: 125-173.
- 성지미·안주엽(2006).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6(1): 39-74.
- 손병돈(2010). 빈곤심도별 빈곤 결정요인 비교. 보건사회연구 30(1): 3-28.
- 신연희(2018). 사회적지지가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아이앤아이리서치(2016). 60+ 취업확대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경기도: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 양혜진(2016). 대구광역시 준고령자의 재취업결정요인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혜진·김한곤(2017). 준고령자의 재취업결정요인 분석: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 242-261.
- 어수봉·최기성·윤광식(2014). 정년연장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직업과 자격연구 3(1): 1-22.
- 오영희·조남훈·김경래·유혜영·김해란(2007). 사회교육기관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실태와 활성화 방안연구: 공공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07-19-7.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 유길상(2004). 실업급여가 재취업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연구 12: 89-112.
- 유주희(2013). 베이비 부머들의 생산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명숙(2007). 도시·농촌 노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문제음주 및 삶의 질 연구. 노인복지연구 38: 281-310.
- 이경상(2001). 취업시장에서의 개인적 연결망의 특성과 직업성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병호(2013). 중·고령실업자의 재취업욕구가 진로경로 개척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봉(2016). 노인가구단위의 이전소득에 따른 빈곤완화분석. 사회과학연구(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3(4): 7-26.
- 이석래(2018).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의 환경적합성이 재취업 의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용(2007). 중·고령자의 실직·재취업에 대한 동태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 645-660.
- 이용우·이미진(2014).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노인빈곤 심각성의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8(1): 291-318.
- 이윤경·김세진·황남희·임정미·주보혜·남궁은하·이선희·정경희·강은나·김경래(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20-35.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용목(2016). 퇴직한 중년남성의 재취업과정 탐색.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숙(2014). 경력단절여성의 희망근로형태(시간제/전일제)에 영향을 미치는 재취업결정요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경(2002). 고령화 사회의 삶의 질. 연세사회복지연구 8: 27-58.
- 이혜훈(2002).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소고. 노동정책연구 2:(2): 23-50.
- 장명숙·박경숙(201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보건사회연구 32(2): 232-266.
- 장인협·최성재(1994).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창원(2004). 중·고령층 재취업 결정요인분석과 정책 과제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고령층 재취업 과제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17(2): 157-186.
- 전명숙·태명옥(2016). 사회경제적 변인이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여가 참여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6): 323-333.

- 정운영·정세은(2011). 1인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연구: 저소득가구
와 고소득 가구의 비교. 한국노년학 31(4): 1119-1134.
- 조보배·최요한(2018).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고용보험 신규가
입연령 상한기준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1): 64-87.
- 조순점(2010).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관한 취업결정요인에 따른 개선방안. 한국복지
실천학회지 1(1): 69-86.
- 주경희(2011). 사회참여노인의 활동수준과 삶의 질: 성별과 연령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2): 5-39.
- 최옥금(2007).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1):
5-25.
- 최점숙(2009). 노인의 빈곤 원인과 개선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23(1): 457-476.
- 최현수·류연규(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
년학 23(3): 143-160.
- 한중국(2015). 직무특성이 중고령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고령 친화적
인적자원관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준상(2013). 미래한국 평생교육정책의 비전. 한국평생교육 1(1): 151-180.
- 황성우(2015). 경력단절 간호사의 재취업 지속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재취업 지원
서비스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석태(2008). 노인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 42: 441-461.
- 한형수(2004). 한국사회 도시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9:
113-142.
- 황정덕(2016). 중·고령자의 취업요인과 취업준비가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구
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백의(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75-290.

2. 외국문헌

- Bahramnezhad, F., R. Chalik, F. Bastani, M. Taherpour, and E. Navab (2017). The Social Network among the Elderly and Its Relationship with Quality of Life. *Electron Physician* 9(5): 4306-4311.
- Becker, G. S. (1967).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rt, R. S. (2001). Attachment, Decay, and Social Net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2(6): 619-643.
- Beugelsdijk, S. and T. van Schaik (2005). Differences in Social Capital between 54 Western European Regions. *Regional Studies* 39(8): 1053-1064.
- Breen, L. Z. (1960). *State Responsibility and Community Effort: The Elderly in Indiana*. Indiana: Indiana State Commission on the Aging and Aged.
- Carey, J. R. (2003). Life Span: A Conceptual Review. In J. R. Carey & Juljapurkar (Eds.), *Life Span Evolutionary, Ecological and Demographic Perspectiv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A Supplement*. New York: Population Council. p. 8.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ornwell, B., E. O. Laumann, and L. P. Schumm (2008). The Social Connectedness of Older Adults: A National Profile. *American Sociology Review* 73(2): 185-203.
- Cowgill, D. O. and L. D. Holmes (1972). *Aging and Modernization*.

- Appleton–Century–Crofts and Fleschner Publishing Company.
- Dakhli, M. and D. de Clercq (2004).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and Innovation: A Multi-country Study.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16(2): 107–128.
- Doh, S. and Z. J. Acs (2010). Innovation and Social Capital: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Industry and Innovation* 17(3): 241–262.
- Doh, S. and C. L. McNeely (2012).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o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 Exploratory Analysis. *Annals of Regional Science* 49(3): 821–843.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Gutheil, I. A. (1994). *Work With Older Peopl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 Knack, S. and P. Keefer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251–1288.
- Knight, J., S. Lina, and R. Gunatilaka (2009). Subjective Well-being and its Determinants in Rural China. *China Economic Review* 20: 635–649.
- Marcelino, I., R. Laza, and A. Pereira (2016). SSN: Senior Social Network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Distributed Sensor Networks* 12(7): 2150734. <https://doi.org/10.1177/155014772150734>.
- McLaughlin, D. K. and L. I. Jensen (1993). Poverty among Older Americans: The Plight of Nonmetropolitan Elders. *Journal of Gerontology* 48(2): S44–S54.
- Miller, D. A. (1981). The 'Sandwich' Generation: Adult Children of the Aging. *Social Work* 26(5): 419–423.

OECD (2006). *Live Longer, Work Longer: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Paris: OECD Publishing.

United Nations (2015). Youth Population Trend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opulation Facts 2015/1.

URL available:

<https://www.un.org/esa/socdev/documents/youth/fact-sheets/YouthPOP.pdf>.

European Commission (2012).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A Statistical Portrait of the European Union 2012. Belgium: European Union.

Lamura, G. and A. Principi (2019). *2018 Active Ageing Index: Analytical Report*.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Geneva) and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 General for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Inclusion (Brussels).

3. 기타 자료

강원도 일자리정보망: https://job.gwd.go.kr/gwjob/support_policy/customized_info

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s://www.gif.or.kr/gjf/add/esUserList.do>

경상남도청(<http://www.gyeongnam.go.kr>), 고령자 재취업 지원정책.

경상북도 일자리 종합센터: <https://www.gbjob.kr/contents/main/main.do>

경상남도 장년워크넷: <https://www.work.go.kr/senior/lifePlan/lifePlanSvcInvite.do>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고령자 재취업.

고용센터(<http://www.work.go.kr>). 고령자 재취업.

고용보험(<http://www.ei.go>). 고령자 재취업.

공무원연금공단(<http://www.geps.or.kr>), 공무원연금통계.

광주광역시 광주일잡GO: <https://www.gjobgo.com/index.php?>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고령자.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 국민연금통계연보.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102조 조약).

네이버 지식백과(<http://dic.naver.com>), 한경경제용어사전.

다음 위키백과(<http://www.daum.net>), 매경시사용어사전.

대구광역시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https://dgjob.daegu.go.kr/>

대전광역시 일자리진흥원: <https://www.djbea.or.kr/board?menuId=MENU00353>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https://www.busan50plus.or.kr/>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http://www.tp.or.kr>), 사학연금통계연보 각년도.

서울특별시 일자리 서비스:
https://job.seoul.go.kr/www/job_support_service/policy/job_50plus_plcy.jsp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지원센터: <https://www.sejong.go.kr/job.do>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고령자 재취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전라남도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http://www.jnef.or.kr/sw/index.php?>

전라북도 일자리센터: <http://www.1577-0365.or.kr/>

울산광역시청(<http://www.ulsan.go.kr>), 고령자 재취업 지원정책.

울산광역시 울산일자리포털:
<https://www.ujf.or.kr/job/jobSupport/list.ulsan?mlId=001003001001000000>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http://inlife.or.kr/index.do>

잡코리아(<http://jobkorea.co.kr>). 고령자 재취업.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https://www.cjpi.or.kr/>

충청북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http://cbef4060.kafein.gethompny.com/>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 고령화 사회와 재취업.

통계청(<http://www.kostat.go.kr>), 직업별, 교육별, 산업별 등 연도별 통계.

통계청(2019).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19년 9월 2일 통계청 보도자료.

통계청(2021). 2021년 사회조사 결과: 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2021년 11월 17일 통계청 보도자료.

한국고용정보원(<http://www.keis.or.kr>). 고령자 재취업.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고령자 재취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www.kihasa.re.kr). 고령자 재취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http://www.krivet.re.kr>). 고령자 재취업.

ABSTRACT

A Study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Aged: Focusing on Social Networking Activities of the 50+ Generation

Oh, Hyun Seok

Advised by Prof. Doh, Soogwa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This study analyzed how social network activity affects economic activity in the elderly and semi-elderly people (those above the age of 50). Three variables were used to measure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elderly and semi-elderly peopl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personal gross income, and economic satisfaction. For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used raw data from the seventh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provided by the 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the key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higher level of social network activity of the elderly and semi-elderly people i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increased personal gross income, and increased economic satisfaction from a subjective aspect. As such, the study found that social network activit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elderly and semi-elderly people .

Second, the coefficient value of gender variable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dependent variable used in empirical models. In most cases where the dependent variable is either 'participation of economic activity' or 'personal gross income', the coefficients of gender variable a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0.05. The gender variable has a negative sign, and it is directly related to economic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semi-elderly people.

Third, the coefficients of education level variable are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0.05 when the dependent variable i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The coefficient decreases as the level of education increases. In contrast, when the 'personal gross income' and 'economic satisfaction' were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not only did this study find a positive value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0.05, but also confirm that the coefficients increased with the increase in education level.

Fourth, the coefficient values of marital status and spouse's employment variables are different depending on dependent variables. Assuming that th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and 'personal gross income' variables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the coefficients of marital status and spouse's employment are negative, respectively. However, the results may have been affected by a relatively larger sample of women. When the analysis was conducted separately for male and female groups, the marital status variable has a positive sign in male group. However, the coefficient of marital status variable is negative in female group.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network activity of the elderly and semi-elderly people is positively related to their

economic activity. As such,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provide the elderly and semi-elderly people with opportunities for social network activities as an attempt to boost economic activity.

Secon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 activities of the elderly and semi-elderly people and their economic activities in terms of three aspect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worker, self-employed), personal gross income, and economic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semi-elderly people. This study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those three aspects because prior studies fail to consider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aspect of economic activities.

Lastly, this study used various empirical models using data from KLoSA provided by the 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 activities of the elderly and semi-elderly people and their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diversification of analytical methodologies for future research on economic activities of the elderly and semi-elderly people.

Keyword: the elderly and semi-elderly people, social network activity, economic activity, 50+ generation